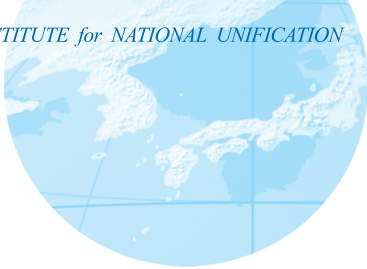




월간 북한동향

제6권 제2호 (2012년 3·4월호)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월간 북한동향

제6권 제2호 (2012년 3·4월호)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Contents

3 March 2012

① 주차_3.01-3.04	1. 대내 6 가. 정치 나. 경제 다. 사회·문화
	2. 대외 10 가. 일반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12
② 주차_3.05-3.11	1. 대내 16 가. 정치 나. 경제 다. 군사 라. 사회·문화
	2. 대외 24 가. 일반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28
③ 주차_3.12-3.18	1. 대내 34 가. 정치 나. 경제 다. 군사 라. 사회·문화
	2. 대외 43 가. 일반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48
④ 주차_3.19-3.25	1. 대내 54 가. 정치 나. 경제 다. 군사 라. 사회·문화
	2. 대외 60 가. 일반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66
⑤ 주차_3.26-3.31	1. 대내 70 가. 정치 나. 경제 다. 군사 라. 사회·문화
	2. 대외 74 가. 일반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80

인쇄: 2012년 5월 발행: 2012년 5월
 발행처: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편집인: 북한연구센터 편집간사: 손지숙 연구원
 등록: 제2-02361호(97.4.23) 주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전화: (대표) 900-4300 / (직통) 901-2525 / (팩시밀리) 901-2544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인쇄: (주)예원기획 02)745-8090
 (비매품)

4 April 2012

① 주차_4.01-4.08	1. 대내 84 가. 정치 나. 경제 다. 군사 라. 사회·문화
	2. 대외 94 가. 일반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103
② 주차_4.09-4.15	1. 대내 106 가. 정치 나. 경제 다. 군사 라. 사회·문화
	2. 대외 120 가. 일반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129
③ 주차_4.16-4.22	1. 대내 132 가. 정치 나. 경제 다. 군사 라. 사회·문화
	2. 대외 140 가. 일반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149
④ 주차_4.23-4.30	1. 대내 154 가. 정치 나. 경제 다. 군사 라. 사회·문화
	2. 대외 163 가. 일반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167
■ 3월 일지 / 172	
■ 4월 일지 / 173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3.01-3.04

3월

1주차

1. 대내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사회·문화

2. 대외

- 가. 일반
-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1 대내

가. 정치

- 北만수대 김일성동상 옆에 김정일 대형동상(3/2, 연합뉴스)
 - 북한 전문 여행사인 '고려여행사'(Koryo Tour)의 관광 담당 매니저인 한나 바라크라우씨는 북한 전문 웹사이트 '캔코'(CanKor)에 올린 글에서 "김 위원장의 생일인 '광명성절'에 평양을 방문했다"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대형 동상을 평양 중심가에 있는 만수대언덕의 김일성 동상 옆에 만들고 있는 것으로 2일 알려졌다.
- 北, 식수절 맞아 전역서 나무심기 독려(3/2,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2일 식수절(3월2일)을 맞아 전역에서 식수모임을 갖고 나무심기를 진행·독려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전했다.
 -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전역에서 나무심기운동을 활발히 펼쳐 산림조성 사업에 큰 성과를 거뒀다고 전하며 지난해에도 많은 시·군에서 나무를 대대적으로 심어 "가까운 앞날에 자기 고장을 사회주의 선경으로 전변시킬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고 주장
- 北김정은 전략로켓 사령부 시찰(3/3,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인민군 전략로켓사령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
 - 김 부위원장은 영접보고를 받은 뒤 김일성 주석의 현지 교시판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현지도 표식비를 돌아봤으며, 김 주석은 1974년 8월, 김 위원장은 지난 2002년 3월 이 부대를 각각 방문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했다.
 - 김 부위원장의 로켓부대 시찰에는 리영호 군 총참모장, 박재경 군 대장, 리재일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황병서 당 중앙위 부부장 등이 수행했다.

● **김정은 판문점 시찰...“격동상태 유지해야”(3/4,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판문점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일 전함.
- 김 부위원장은 판문각 전망대에 올라 ‘키 리졸브’ 군사훈련 등 한미합동 군사연습에 돌입한 남쪽의 상황을 직접 살펴보고 “판문점의 전초병들은 적들과 항시적으로 총부리를 맞댄 만큼 언제나 최대의 격동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지시했음.
- 이날 시찰에는 박재경 대장, 김영철 총정찰국장, 조경철 보위사령관 등 군 인사와 김기남 당비서, 강석주 외교담당 부총리,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김양건·박도춘·최룡해·문경덕 당비서, 황병서 당 부부장 등이 수행했음.

● **호주·보츠와나 北대사에 리정률·조영만(3/4, 연합뉴스)**

- 북한이 호주 주재대사로 리정률 전 인도네시아 주재대사를, 보츠와나 주재대사에는 조영만 전 남아공 대사를 임명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 **김정은동향**

- 3/3 김정은 부위원장, 조선인민군 전략로케트사령부 시찰(3.3,중통·중방)
 - 리영호(총참모장)·박재경(대장)·리재일(黨제1부부장)·황병서(黨부부장) 등 동행
- 3/3 김정은 부위원장, 판문점 시찰(3.3,중통·중방)
 - 박재경·김영철(대장들), 조경철(상장) 및 김기남, 강석주, 장성택, 김양건, 박도춘, 최룡해, 문경덕, 황병서 동행

■ **기타 (대내 정치)**

-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더 많이 하자’ 구호는 ‘2012년 총진군의 기본주제, 전투적 기치’라고 강조하며 쉐위원장의 유훈과 黨이 제시한 목표 달성을 위한 ‘인민생활문제 해결 총돌격전’ 독려(3.1, 중통·노동신문/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더 많이 하자)
- 최영림 내각총리, 3.1 평양지하철도 운영 및 관리정형 현지요해(3.1,중통)
- 北 [식수절(3.2)] 즈음 3.2 최영림·김기남 및 당과 정권기관·근로단체·중앙기관 일꾼 등 참가하 전국 각지에서 궤기모임 진행과 만경대혁명사적지 중앙식물원 수목원 등에 植樹(3.2,중통·중방)
-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에 대한 각계층의 지지 반향 및 역적패당에 대한 ‘쫓민 복수전’ 다짐 선동(3.4,중통·중방·우리민족끼리)

나. 경제

- **북-중 교역 1월에도 18%↑ …4억달러 넘어(3/2, 미국의소리(VOA))**
 - 북한과 중국 간의 교역이 높은 증가세를 유지해 올해 1월 교역액이 4억 달러를 넘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일 보도했는데 중국 상무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1월 북중 교역액은 4억1천8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 늘어났으며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1억3천900만 달러로 전년보다 7% 늘었고, 수입액은 2억7천800만 달러로 24% 증가함.

- **北관리들 ‘외자유치’ ‘국제금융’ 등 학습(3/3,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 관리들이 이달 중순 평양에서 싱가포르, 유럽 등지의 국제경제 전문가들로부터 ‘외자유치’와 ‘국제금융’ 기법 등을 학습한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일 보도
 - RFA는 미국의 민간교류 단체인 ‘조선익스체인지’의 안드레이 아브라하미안 공보관 말을 인용해 “싱가포르에서 활동중인 국제경제 전문가들이 평양을 방문해 북한의 정부 관리와 기업소 관계자 등 20여명에게 이틀간 국제금융 체계 및 전략, 외국 자본 유치, 국제 경영법 등을 강의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 아브라하미안 대표는 북한 기성세대가 국제경제와 경영 등에 대한 실험 정신과 동기가 부족한 반면 젊은 세대는 국제경영과 경제지식에 개방돼 있는 점을 감안해 강연회 참석 대상을 현장에서 일하는 20~30대 관리들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 사회·문화

- **北주민 간접적으로 해외와 이메일 소통(3/1, 연합뉴스; 미국의소리(VOA))**
 - 북한 주민들이 이메일을 통해 중국을 비롯한 해외와 연락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1일 알려졌는데 김홍광(52) NK지식인연대 대표는 “작년 10월 중순께부터 북한 사람 중 일부가 간접적인 방법으로 외부와 이메일을 통해 연락을 주고 받고 있다고 들었다”고 밝힘.
 -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도 1일 중국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 소재 북한 무역총회사와 10여년 간 거래해왔다는 조선족 기업가의 말을 인용해 “북한 무역회사와 거래할 때 주로 전화와 팩스를 이용하지만 간단한 내용은 이메일로 주고받기도 한다”고 보도함.

- **정명훈 “北단원들과 친해져 즐겁게 연습”(3/2, 연합뉴스)**
 - 지휘자인 정명훈 서울시향 예술감독이 2박 3일간 방북 일정을 마치고 1일 오후 대한항공을 이용해 베이징을 거쳐 인천공항으로 귀국했는데 정 감독은 오는 14일 프랑스 파리 살 플레엘(Salle Pleyel)에서 열리는 북한 은하수 관현악단과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합동공연 리허설을 위해 이번에 평양을 방문함.

- **北태권도시범단 올 여름 세번째 방미(3/3, 미국의소리(VOA) 방송)**
 - 북한의 태권도시범단이 올 여름 미국을 세번째로 방문해 양로원 등을 돌며 위문공연을 갖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3일 보도
 - 북한 태권도시범단의 방미를 추진하는 정우진 미국 ‘태권도타임스’ 대표는 VOA와 인터뷰를 갖고 “시애틀과 시카고 등 미국의 주요 도시를 돌며 태권도 시범을 보인 뒤 양로원과 장애인 시설 등 사회복지기관도 찾아 위문할 예정이다”고 밝혔음.

- **北, 女유도·다이빙 올림픽 출전권 획득(3/3,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여자 유도 52kg급과 다이빙에서 2012년 런던 하계올림픽 출전권을 따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

2 대외

가. 일반

- 북미, 7일 베이징서 식량지원 논의 매듭(종합2보)(3/3, 연합뉴스)
 - 미국과 북한은 오는 7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대북 식량(영양)지원에 관한 회담을 열고 세부절차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빅토리아 눌런드 미 국무부 대변인은 2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가 7일 베이징에서 북한측 관계자들과 만날 것”이라면서 “영양지원이 시작될 수 있도록 기술적인 문제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 눌런드 대변인은 “이번 회담에서는 (지원물품이) 어떤 항구를 통해, 언제 전달할 것이며, 누가 관리하고, 어떻게 모니터링하느냐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기타 (대외 일반)

- 「3.1운동」 93돌을 맞으며 ‘독립과 자주권을 위한 전인민적 반일항쟁’(중방)· ‘정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최악의 역사’(노동신문)· ‘3.1용사들의 염원을 실현해야 한다’(우리민족끼리) 등 題下로 ‘일본의 역사왜곡과 독도강탈책동 비난 및 과거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 촉구

나. 6자회담(북핵)

- 日 외상, 北에 비핵화 구체적 행동 촉구(3/2, NHK; 교도통신)
 - NHK방송과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에 의하면 겐바 외무상은 1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서 핵농축 활동 등을 일시 중단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북한의 여러 현안 해결을 향한 중요한 일보로 환영한다”면서 “향후 모든 핵 관련 시설의 중단을 위한 토대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중요한 것은 북한이 비핵화를 향해 구체적 행동을 취하는 것이다”면서 “이를 통해 6자 회담과 관계국과의 대화 재개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계속해서 미국 한국 등과 공조해 대응하겠다”고 밝힘.

● **北주민들, 북미 합의 성과에 ‘회의적’(3/2, 평양 AP통신)**

-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중단 등에 합의한 지난달 3차 북미 고위급 회담 결과에 대해 북한 주민들은 대체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일부 주민은 오히려 ‘핵을 포기해선 안된다’는 의견을 밝히며 미국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을 드러냈음. 또 이번 합의가 실제 결실을 볼 것이란 전망에 대해 냉소적인 입장을 나타냈다고 평양 AP 통신이 보도
- 평양 주민 정윤희(43)씨는 AP통신에 “소식을 듣긴 했지만 별로 흥분되지 않는다”면서 지난 수년간 여러 차례 회담이 있었지만 식량이나 에너지 지원 문제와 관련해 이렇다할 결과를 도출하는 데 실패한 점을 지적했으며, 정씨는 “미국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음.

● **정부 “北비핵화 진전되면 경수로 논의 가능”(종합)(3/4, 연합뉴스)**

- 정부는 9·19 공동성명의 취지에 따라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면 경수로 제공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정부 당국자는 4일 북한이 요구하는 경수로 제공 문제에 대해 “9·19 공동성명에 나와 있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으로,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면 다음 단계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음.
- 2005년 6자회담에서 채택된 9.19 공동성명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기존의 핵개발 계획을 포기하면 관계국이 적절한 시기에 경수로 제공을 논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다만 이 당국자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체제에 복귀하고 그런 국제기준을 준수해야 경수로 제공 논의가 가능하다”며 “지금 단계에서 논의되는 사안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 **기타 (6자회담(북핵))**

- 北 대표, 제네바군축회의 전원회의에서 연설을 통해 ‘공화국의 원칙적 입장’ 재천명(3.3,중통)
 - 우라늄농축활동은 철두철미 전기생산을 위한 평화적 핵활동임.
 -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와 1874호를 전면배격하며 그에 구속되지 않을 것임.
 - 전제조건없이 6자회담을 재개하고 동시행동원칙에 기초하여 9.19공동성명을 이행할 데 대한 입장은 일관함.

3 대남

- **‘남북협력 축구화’ 11일 인천서 첫선(3/1, 연합뉴스)**
 - 남한의 기술과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해 생산된 남북협력 축구화가 오는 11일 인천에서 처음으로 판매대에 오르는데 1일 인천시와 프로축구단 인천유나이티드에 따르면 오는 11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 개막경기 때 경기장 입구에 판매 부스를 마련, 남북협력 축구화 1천 켤레를 판매할 예정이다.

- **北, 박근혜 이틀만에 또 맹비난(종합)(3/1, 우리민족끼리)**
 - 대남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1일 ‘이것이 박근혜식 유연성과 적극성인가’라는 개인필명의 글을 통해 지난달 28일 서울에서 ‘세계핵안보체제의 형성과 동아시아 핵문제의 전망’을 주제로 열린 국제학술회의에서 박 비대위원장이 기초연설한 내용을 인용하며 그의 대북관을 집중 비난함.

- **연평도 대응포격에 북한군 40여명 사상(3/2,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 지난 2010년 연평도 사태 당시 우리군의 대응포격으로 북한군 40여명이 사상, 북한군이 우리군과 맞서기를 꺼린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북한 내부소식통을 인용해 2일 보도했는데 북한 황해남도의 한 소식통은 이 방송에 “2010년 연평도 포격전에서 북한군인 10여명이 사망하고 30여명이 부상했다는 소식을 한 (북한군) 대대장으로부터 들었다”며 “이 대대장이 사망한 북한군인들의 시체와 부상자들을 실은 군용차가 북한군 총참모부 산하 중앙병원인 ‘평양 11호 병원’에 후송되는 것을 목격했다”고 전함.
 - 소식통은 “북한군부도 한국군의 첨단무기에 겁을 먹었다. 군수뇌부에서는 매일 전쟁을 한다고 큰소리 치지만 정작 병사들의 사기가 말이 아니다”며 “연평도 포격전 이후 군에서는 한국군과 싸우기를 꺼려한다”고 말함.

- **국방부, ‘생물테러 대응지침 전군에 첫 배포(3/2, 연합뉴스)**
 - 국방부가 북한의 생물무기 테러시 전군 차원의 대응체계와 의료지원 절차 등을 담은 세부 지침서를 작성, 일선부대에 배포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130여 쪽으로 구성된 이 지침서에는 생물무기 테러시 국방부와 합참, 각 군의 대응체계와 조직도, 테러경보 발령 및 의료지원 절차를 비롯한 생물무기 테러징후 분석과 감염환자의 후송과 격리치료 등이 포함되어 있음.

● 北 “南군부대서 최고존엄 증상모독” 비난(종합)(3/2, 조선중앙통신)

- 북한 인민군 최고사령부는 2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전쟁 전야의 정세를 조성해놓은 것도 모자라 괴뢰(남측) 군부대들에서 최고존엄에 대한 노골적인 증상모독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으며 또한 “최근 인천시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의 내무반에서 벽과 문에 ‘백두산 절세 위인들’의 초상화를 걸어놓고 그 아래위에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글까지 버젓이 써붙이는 천하무도한 망탕짓을 벌여놓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함.

● 北이 문제 삼는 인천 군부대 구호는(3/4, 연합뉴스)

- 북한이 최근 인천의 한 군(軍)부대에 전시된 ‘대북관 구호’를 문제 삼아 연일 격하게 반발하며 비난수위를 높이고 있음.
- 북한이 문제 삼고 있는 인천 한 군부대의 ‘대대 대북관 구’는 지난달 28일 한 언론이 포토뉴스 ‘때려잡자! 김정일’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알려 줬음.
- 해당 언론은 당시 “북한이 한·미 연합 키 리졸브훈련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27일 인천의 한 군부대 내무반 문에 김정일-김정은 부자를 비난하는 구호가 나붙어 눈길을 끌고 있다”며 구호가 전시된 내무반을 담은 사진을 함께 소개했으며, 소개된 사진에는 ‘대대 대북관 구호’라는 제목 아래 김정일·김정은 부자의 사진과 함께 그 아래 ‘때려잡자! 김정일’ ‘쳐!!죽이자! 김정은’이라는 구호가 적혀 있음.

● 軍 “북 억지주장..대응가치 없어”(3/4, 연합뉴스)

- 북한이 최근 인천의 한 부대에 전시된 김정일·김정은 부자 초상화 문제 등을 거론하며 대남비난을 쏟아내는 것과 관련, 국방부는 “대응가치가 없다”고 밝혔음.
- 국방부 당국자는 4일 “이번 북측의 억지 주장에 대해 우리 군은 일일이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음.

- 이 당국자는 “북측은 그동안 공식 매체를 통해 우리 정부와 최고위층에 대해 입에 담지 못할 악의적인 비방을 계속해오고 있다”면서 “따라서 우리 측이 오히려 북측의 비방증상 행위에 대해 중단을 촉구해야 할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 北 ‘최고준엄 모독’ 격한 반발…총력 비난(종합)(3/4, 조선중앙TV; 조선중앙방송)

- 인천 한 군부대에서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사진에 전 투구호를 붙인 사실을 놓고 북한이 연일 격하게 반발하며 문제 삼고 있음.
- 북한은 4일 평양시 김일성광장에서 주민 15만여명이 모인 가운데 ‘평양시 군민대회’를 열어 대남 비난과 성토에 나서면서 조선중앙TV와 조선중앙방송 등을 통해 이를 생중계했으며, 이날 대회에 참석한 인원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장례식 이후 최대규모임.
- 대회에는 리용호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최영림 내각 총리, 김기남·최태복·김영일·최룡해 당비서,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오극렬 국방위 부위원장 등 당·정·군 고위간부들이 대거 참석했음.

기타 (대남)

- 南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北 단군민족통일협의회, 3.1 『3.1운동』 93돌 즈음 『南北공동호소문』 발표(3.1,중통·평방)
-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3.26~27) 개최를 ‘反北핵소동 모의판’이라고 持續 비난하며 ‘핵무기는 美國만 가지고 있는 독점물이 아니며, 우리 군대의 타격은 단호하고 무자비하다’고 위협(3.1, 중통·노동신문/핵전쟁 광신자들의 정체를 감출 수 없다)
- 『조평통』 서기국 보도 제991호, 3.1 김관진 국방부장관의 군부대 巡視발언(도발시 즉시 대응, 지원세력까지 응징)을 비난하며 ‘도발시 무자비한 보복타격으로 역적무리들을 영영 쓸어버릴 것’이라고 위협(3.1,중통)
- 『북한軍 최고사령부』 대변인, 3.2 남측의 ‘우리(北) 최고준엄 중상모독행위’(인천 某부대의 김정일 父子 겨냥 전투구호)에 대해 “우리 식의 성전을 무차별적으로 벌이게 될 것” 위협 ‘성명’ 발표 (3.2,중통·중·평방)
- 北 국방위(정책국 부국장 박철희 소장 발언), 3.3 인민문화궁전에서 평양시 기자들· 日 교도통신·AP통신사 기자·국제기구 대표 등 초청下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 통보 기자회견 진행(3.3,중방·중·평방)
- 北 최고준엄을 중상 모독한 『李○○ 역적패당을 무자비한 성전으로 매장해 버리기 위한 평양시 군민대회』, 3.4 15만여명 참가下 김일성광장에서 진행(3.4,중·평방·중앙TV/현지실황중계)

3.05-3.11

3월

2주차

1. 대내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군사
- 라. 사회·문화

2. 대외

- 가. 일반
-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1 대내

가. 정치

- 北 금속공업상에 전승훈 전 부총리(3/6, 연합뉴스)
 - 북한에서 '주체철'을 비롯한 금속공업을 담당하는 내각 금속공업상에 전승훈 전 내각 부총리가 임명된 것으로 6일 확인됨.
- 北 김정은 선거승리 러시아 푸틴에 축전(3/6,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최근 치러진 러시아 대선에서 승리한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보도했는데 김 부위원장은 축전에서 푸틴 총리의 당선을 축하하고 "전통적인 조러친선협조관계가 두 나라 사이에 이룩된 합의들과 두 나라 인민들의 이익에 맞게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한다"고 밝혔으며 이어 "강력한 러시아를 건설하기 위한 당신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 것을 축원한다"고 덧붙임.
- 北 노동신문 1면 고정구호에 '김정일' 추가(3/7, 연합뉴스; 노동신문)
 -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면에 실는 구호를 지난달 26일부터 1면 상단 중앙에 있는 제호 왼쪽의 구호로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를 쓰고 있는데 그 이전까지 노동신문의 고정구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였으며 지난해 12월 사망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새로 추가된 것임.
- 北 '부녀절' 맞아 체제 띄우기 주력(3/8, 우리민족끼리; 노동신문)
 - 북한이 8일 '국제부녀절'(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들이 최상의 사회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내세우며 체제선전에 주력했는데 대남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아직도 수많은 여성들이 사회적 불평등과 온갖 사회악의 희생물이 돼 신음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 공화국

은 여성들의 낙원으로 동경과 찬탄을 모으고 있다”고 주장했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부녀절 관련사설을 1면에 실었으며, 또 국립교향악단 여성지휘자 허문영, 인민배우 조청미,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김성희 등 각계각층에서 활약하는 여성들을 집중적으로 조명함.

● **김정은 ‘여성의 날’ 기념음악회 관람(3/9,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국제부녀절 기념 은하수음악회 ‘여성은 꽃이라네’를 관람했다고 9일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음악회에서는 리룡하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부부가 ‘어머니 생각’을, 해산을 앞둔 전 보천보전자악단 성악가수 현송월이 ‘준마처녀’를, 김원홍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조직부국장 부부가 ‘매혹과 흠모’, 오극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가족이 ‘우리 엄마 기쁘게 한번 웃으면’ ‘나의 사랑 나의 행복’을 무대에 나와 불렀음.

● **北김정은, 서해 초도방어대·해군부대 시찰(3/10,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9일 서해 초도 방어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전했다.
- 행정구역상 황해남도 과일군 소속이었다가 1996년 남포시에 편입된 초도에는 우리의 해병대격인 북한군 해상육전대 병력이 주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중앙통신은 “이곳 방어대는 1996년 11월23일 섬에서 병사들이 기다린다고 쏟아붓는 비와 사나운 풍랑 길을 헤치신 장군님(김정일)의 혁명전설과 더불어 우리 군대와 인민들 속에 널리 알려진 부대”라고 소개
- 김 부위원장의 이날 시찰에는 리영호 총참모장,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김원홍 총정치국 조직부국장, 박재경 총정치국 선전부국장, 김영철 정찰총국장, 조경철 보위사령관, 윤동현 인민군 상장과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박도춘 당비서, 리재일 당 제1부부장, 황병서 당 부부장 등이 동행했음.

● **北중통 대표단, AP와 공동사진전 위해 방미(3/10, 조선중앙통신)**

- 김창광 1부사장이 이끄는 북한 조선중앙통신사 대표단이 미국 뉴욕에서 진행되는 공동 사진전시회에 참가하기 위해 10일 평양에서 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 이번 사진전시회는 김일성 주석의 100주년 생일을 맞아 조선중앙통신사와 미국 AP통신사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임.
-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6일 “지난해 6월 조선중앙통신사와 미국 AP통신사 사이에 조인된 양해문(MOU)에 따라 열리게 되는 공동 사진전시회에는 두 통신사가 각각 준비한 조선에 관한 사진들이 전시된다”며 “전시회에는 백두산 위인들의 영상 사진들을 모시게 된다”고 밝혔다.

● 北 “애도기간 100일”…3월말 분위기 전환?(3/11, 연합뉴스)

- 북한이 “최고존엄을 모독했다”며 남한 정부에 연일 거친 비난을 이어가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애도기간을 강조하고 있음.
- 북한 매체는 지난 2일 인천 한 군부대의 김정일·정은 부자의 사진을 이용한 전투구호에 반발하는 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낸 뒤 다음날부터 김 위원장의 애도기간을 100일로 정했음을 시사하는 표현을 잇달아 사용하고 있음.
- 리충성 중앙체육학원 청년동맹비서는 지난 9일 대외용 라디오방송인 평양방송에 출연해 “아직도 100일 애도기간이 끝나지 않은 동족을 향해서 총부리를 돌려대고…”라며 남측을 비난한 뒤 중앙체육학원 전체 학생들이 인민군 입대를 탄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 북한 金씨 일가의 대 이은 ‘음악단’ 사랑(3/11, 조선중앙통신)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9일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은하수음악회 ‘여성은 꽃이라네’를 관람했다고 전했다.
- ‘은하수음악회’는 은하수관현악단의 음악회를 줄인 말로, 최근 북한에서 주목받는 은하수관현악단은 김 부위원장의 전용 음악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위원장이 후계자로 내정된 이후 만들어진 이 악단은 2009년 9월8일 북한 매체에 처음 등장했다.
- 중앙통신은 이날 공연관람에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김기남, 최태복 노동당 비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고 밝혔으나 김 부위원장도 참석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김정은동향

- 3/6, 김정은 부위원장, 3.6 러시아 대선 승리 푸틴총리에게 축전(3.6,중통)
- 3/7, 김정은 부위원장·김영남 상임위원장, 3.7 시리아 3·8혁명 49돌 즈음 시리아 대통령에게 축전(3.7,중통)
- 3/9, 김정은 부위원장, 38 평양대극장에서 [38국제부녀절] 기념 은하수음악회 '녀성은 꽃이라네' 관람 (3.9,중통·중·평방)
 - 최영림·리영호·김경희·김영춘·김국태·김기남·장성택·김정각 등 관람
- 3/10, 김정은 부위원장, 오종흡7연대칭호를 수여받은 해군 제123군부대 시찰(3.10,중통·중·평방)
 - 이영호(軍 총참모장/차수), 김영춘(인민무력부장/차수), 김원홍·박재경·김영철(대장들), 조경철·윤동형(軍 상장들), 장성택, 박도춘, 이재일, 황병서 동행
 - 남포인근 서해안 전방초소인 초도방어대도 동시 시찰(3.10,중통·중·평방)

기타 (대내 정치)

- [3.8국제부녀절] 102돌 기념 중앙보고회, 3.8 양형섭(최고인민회의 부위원장)·최룡해(黨 비서)·김락희(내각 부총리)·로성실(「여맹」위원장/기념보고) 등 참가下 인민문화궁전에서 개최(3.8,중방·중통)
- '산림 및 경관회복에 관한 국제토론회', 3.7~9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3.9,중통)

나. 경제

● 中연변자치주, 작년 대북교역 中전체 40% 차지(3/7, 연변일보)

- 중국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의 지난해 대북 교역액이 중국 전체 대북 교역액의 약 4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변일보가 7일 보도
- 신문은 지난해 연변과 북한의 교역액이 5억9천300만 달러(6천667억 원) 규모로, 중국 전체 대북 교역액 15억 달러(1조6천800억 원)의 39.5% 수준이라고 밝혔으며 지린성의 지난해 대북 교역액 7억1천800만 달러(8천억 원)의 82.6%에 달함.

● 中 “훈춘에 북중러 협력모델지구 건설” 구상(3/7, 교도통신)

- 중국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최고위 관계자가 훈춘(琿春)시에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국제협력모델 지구를 설치해 물류와 관광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을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6일 보도
- 장안순(張安順,46) 연변조선족자치주 공산당위원회 서기는 이날 베이징 시내에서 취재진에게 이같은 내용의 프로젝트를 만들어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힘.

- **北 1월 중국쌀 수입 급감…옥수수는 급증(3/8, 미국의 소리(VOA))**
 - 북한이 올해 1월 중국에서 수입한 쌀의 양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90% 넘게 급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8일 전함.
 - 중국 상무부가 최근 발표한 ‘2012년 1월 농축수산물 수출입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1월에 중국에서 614t(23만6천 달러)의 쌀을 수입해 작년 동월의 1만814t(630만 달러)보다 94% 이상 급감했는데 북한이 중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한 곡물은 옥수수로 1천809t(59만6천 달러)을 수입해 전년도의 600t(17만4천 달러)보다 수량은 배, 금액은 3배 넘게 늘었음.

- **FAO, 北 ‘식량부족국’ 재분류(3/9, 미국의소리(VOA))**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북한을 북한을 외부 지원이 필요한 34개 식량부족 국가에 다시 넣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9일 전함.
 - FAO는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3월호 보고서에서 북한의 식량 사정이 나아졌지만 지난가을의 알곡 수확량 증가에도 경제난과 농자재 부족 등으로 식량난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으며 지난해 북한의 알곡 생산량을 1년 전보다 8.5% 늘어난 466만t(도정후 기준)으로 집계했는데 FAO는 북한 주민 1인당 연간 곡물 소비량을 174kg으로 잡고 식량 수요를 약 540만t(도정후 기준)으로 추산했음.

- **中, 北라선-금강산 유람선관광 4월 정식개통(3/10, 연변인터넷방송)**
 - 중국인들을 상대로 북한 라선에서 유람선을 타고 금강산을 다녀오는 관광이 다음 달 정식 개통한다고 연변인터넷방송이 10일 보도
 - 방송은 북한이 지난해 시범 운영한 무비자 금강산 유람선관광이 다음 달 14일부터 정식 운영되며, 북한으로부터 대행 자격을 얻은 중국 여행사들이 이미 관광객 모집에 나섰다고 전했음.
 - 대행 자격을 얻은 중국 내 관광업체는 지린(吉林)성 강휘여행사와 연변(延邊) 천우국제무역유한회사 등 모두 4곳이며, 이 금강산 관광은 연변 훈춘(琿春)에서 북한 원정리를 거쳐 라선시 고성항에서 유람선을 타고 금강산에 도착, 하루를 묵으며 비로봉과 만물상, 해금강, 구룡연 등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고 돌아오는 3박 4일 코스로 이뤄짐.

- 금강산 관광은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시행되며 관광비는 1인당 2천980 위안(52만8천 원)임.

● 北 투자유치 위해 남북경협보험 모델 도입(3/11, 연합뉴스)

- 북한이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남북경협보험과 비슷한 투자손실 보상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2004년 도입된 남북경협보험은 기업이 북한에 투자한 뒤 여러 외부요인 때문에 사업이 중단됐을 때 손실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에서 보상받을 수 있게 한 제도
- 북한경제 소식에 밝은 한 대북소식통은 11일 “북한이 최근 조선국제보험 회사를 설립했는데 이 보험사가 국제보험에 재가입할 예정”이라며 “외국인 투자위험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다. 군사

● 연평도 포격도발 주도 北김격식 교체 확인(3/6, 조선중앙방송)

- 4군단은 황해도와 북방한계선(NLL) 등 북한 서해지역을 담당하는 부대로, 6일 북한 매체에 따르면 변인선 4군단 사령관, 양영철 사단장, 김정수 연대장, 윤영식 여단장이 전날 조선중앙방송에 출연해 남한의 한 군부대가 김정일·김정은 부자 사진에 전투구호를 붙인 것을 강하게 비난
- 방송은 4군단 사령관으로 김격식이 아닌 변인선을 소개함으로써 김격식이 교체됐음을 사실상 확인함.

● 北, 10여년간 지대공미사일 수량 20배 늘려(3/7, 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 2000년부터 최근 10여 년간 지대공미사일의 수량을 기종에 따라 최대 20여배까지 늘린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지대공미사일을 옛 소련에서 도입해 최근 자체 개량 기술까지 개발한 북한은 유사시 한미 공군 전투기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평양지역을 중심으로 밀집 배치해놓고 있으며 최대사거리 260~300km에 이르는 SA-5(Gammon) 지대공미사일의 수량을 2000년 2기에서 20여배가 증가한 40여기로 늘린 것으로 분석됐다고 정부의 한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연합뉴스가 7일 밝힘.

라. 사회·문화

- **北 “사회주의 선경 만들자”…산림녹화에 총력(3/5, 노동신문)**
 - 북한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매체 중 하나인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식수절인 2일 장문의 사설을 포함해 7건의 글을 쏟아내며 나무심기를 독려했다고 전함.
 - 신문은 김정은 체제에서 처음 맞은 식수절 기념사설에서 김 주석 100회 생일과 김 위원장의 유훈인 ‘강성대국’ 건설을 강조하며 ‘온 나라의 수림화·원림화’를 역설했으며 새 지도자인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북한의 식수절(植樹節)인 2일 미사일지도국을 방문해 기념식수를 하며 “식수사업을 전 군중적 운동으로 힘있게 벌여 조국의 산과 들을 푸른 숲 우거진 사회주의 선경으로 전변시키자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강조함.

- **北남포항 결빙 두달만에 풀려 정상화(3/5, 연합뉴스)**
 - 북한 제1의 항구이자 평양의 관문인 남포항의 결빙이 두달 만에 풀렸는데 고려대기환경연구소(소장 정용승)는 5일 최근 열흘간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남포항 앞바다에 있는 얼음이 거의 녹으면서 이달 2일부터 수산업과 화물운송을 위한 정상적인 입출항이 가능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최근 탈북 ‘고난의행군’ 때와 닮은 패턴(3/7, 좋은벗들)**
 - 북한과 중국이 국경경비를 대폭 강화했지만 북한주민이 탈북을 시도하다 잡히는 일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고 대북인권단체 (사)좋은벗들이 7일 전함.
 - 이 단체가 운영하는 북한연구소는 이날 발간한 ‘오늘의 북한소식’(445호)에서 지난달 17일 함경북도 무산에서 일가족 5명이 사라져 인근 국경지역이 전면통제됐다고 주장함.

- **北 안전한 식수 확보 퇴보<유엔보고서>(3/7, 연합뉴스)**
 -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엔아동기금(UNICEF)이 7일 공동발표한 ‘식수와 위생 분야의 진전 2012’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식수 분야에서 ‘새천

년개발목표(MDGs)를 달성하기 위한 궤도에 오르지 못한 국가'로, 위생 시설 분야에서는 '궤도에 오른 국가'로 분류되었으며 분야별로는 식수의 경우 상수도, 공공 배수탑, 위생적 우물 등에서 안전한 식수를 확보한 주민의 비율이 지난 2000년 전체 인구의 100%에서 2010년에는 98%로 줄었으며 도시에서는 주민 99%가 안전한 식수를 확보했지만 농촌에서는 그 비율이 97%에 그친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北中 단속강화에 탈북자 입국 크게 줄어(종합)(3/8, 연합뉴스)**

- 8일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1월 국내입국 탈북자는 160명(여성 99명·남성 61명)으로 지난해 1월의 179명의 89%에 그쳤고 최근 5년간 1월 평균인 210명의 76%에 불과한데 지난해 월평균 입국자 228명의 70%, 최근 5년간 월평균 입국자 223명에 비해서도 72% 수준에 불과하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유엔 특별보고관 “北 권력승계로 변화 기회”(3/11, 연합뉴스)**

- 마르주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10일 북한의 인권 상황이 최근 몇 달 동안 악화하고 있으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에 따른 리더십 교체로 변화의 기회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오는 12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새로운 리더십은 권력 승계를 국제사회에 참여하고 세계의 신뢰를 얻는 데 활용하려 할 것”이라며 “리더십 교체는 북한으로 하여금 개혁 절차를 채택하고 인권과 관련한 의문과 우려를 해소할 기회의 창(窓)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 다루스만 보고관은 2011년 9월부터 2012년 1월까지의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와 평가를 담고 있는 이번 보고서에서 “조사 대상 기간 북한의 인권 및 인도주의적 상황은 지속적으로 악화했다”고 평가하고 “식량 부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 **北은하수관현악단 파리 도착(3/11,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권혁봉 조선민족음악연구학회 고문이 이끄는 은하수관현악단이 11일 프랑스 파리에 도착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평양발로 보도

- 은하수관현악단은 오는 14일 파리에서 정명훈 서울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의 지휘에 맞춰 라디오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합동공연을 한다고 전함.

기타 (대내 사회·문화)

- 조선중앙통신사와 美 AP통신사 공동개최 사진전시회, 美 뉴욕에서 개최 예정 보도(3.6.중통)
- '北 학생들 영어실력 뛰어나며, 교원들 영어수준도 높다'고 '스튜어트 로운'(호주 '뉴 사우스 웨일즈대학' 역사학 교수) 평가(2010~ 평양 금성학원 등 영어 교사), 美 V-A방송인용 자랑(3.8. 중통)

2 대외

가. 일반

- 전직 국가수반 모임, 'UEP중단-영양지원' 합의 환영(3/5, 연합뉴스)
 - 전직 국가수반들의 모임인 '디 엘더스(The Elders)'는 5일(현지시간) 우리나라농축프로그램(UEP) 잠정 중단과 핵실험,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 유예, 24만명의 대북 영양지원을 골자로 하는 최근 발표된 북미간 합의 내용을 환영한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엘더스 대표단을 이끌고 지난해 방북했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UEP, 핵실험, 미사일 시험발사) 모라토리엄(유예)은 역내 안정과 평화 유지에 핵심적인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필요한 환영할만한 첫 조치"라고 말했으며 "북한의 새 지도부가 국제사회와 다시 접촉을 하려는 의지에 고무 받았다"면서 "엘더스는 이번 합의가 모든 관련국이 이미 한 약속을 완전히 준수하는 것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함.
- 제네바 인권회의도 탈북자 강제복송 논의(3/8, 자유아시아방송(RFA))
 - 오는 1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4차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제네바회의'가 중국 내 탈북자의 강제복송과 북한의 인권탄압 문제를 다룰 예정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8일 보도함.

- **日단체, 주일 中대사관서 탈북자 북송 항의(종합)(3/8, 연합뉴스)**
 - 북한 귀국자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모임(대표 미우라 고타로)과 간토(關東)지방 탈북자협회 등 일본 내 북한 관련 단체는 8일 낮 12시부터 도쿄 미나토(港)구에 있는 중국대사관 앞에서 중국 내 탈북자 강제 송환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오사카 조선학교 “초상화 제거했다” 보조금 신청(3/10, 아사히신문)**
 - 일본 오사카에 있는 조선총련계 조선학교가 교무실에 걸려 있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등의 초상화를 제거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0일 보도
 - 이 신문에 따르면 오사카에 있는 조선학교 9개교가 오사카부의 보조금 지급 조건을 받아들여 초상화를 제거했다고 전함.
 - 이 지역 조선학교를 운영하는 오사카 조선학원은 9일 이 같은 사실을 오사카부에 알린 뒤 학생 수가 적은 1개교를 제외하고 8개교분의 2011년도 보조금 약 8천100만엔(11억원)을 지급하라고 신청했음.

- **존 케리 “北, 북미 합의 준수 다짐”(3/10, 연합뉴스)**
 - 존 케리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은 9일(현지시간) 리용호 북한 외무성 부상이 최근 타결된 북미 합의를 준수하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 케리 위원장은 뉴욕 시라큐스 대에서 사흘째 열린 한반도 안보 관련 세미나에서 리 부상을 만났음.
 - 케리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리 부상이 또 미국과 싸우지 않고 다른 관계를 맺길 바라고 있다는, “마음에서 우러난(profound)”의사 표명을 했다고 전했으며, 케리 위원장은 “그들은 지난주 타결된 합의 사항을 지킬 것이라며, 우리가 그것을 믿어도 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 **北 “美, 식량지원 즉시 시작할 것”(3/10, 연합뉴스)**
 - 안명훈 북한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은 10일 북측의 비핵화 사전조치에 대한 대가로 미국이 식량지원을 즉시 시작하기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밝혔다.
 - 중국 베이징에서 7~8일 열린 북·미 식량지원 회담의 북한 측 대표인 안 부국장은 이날 귀국에 앞서 베이징 서우두(首都)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 안 부국장은 회담에서 미국 측 대표인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 “모든 실무적 문제들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 “北 2.29 합의 이행할 것” < NCAFP 간담회 > (3/11, 연합뉴스)

- 6자회담 북한대표인 리용호 북한 외무성 부상 등과 간담회를 한 미국 외교정책 전국위원회(NCAFP) 참석자들은 북한이 최근 북미간의 2.29 베이징 합의사항을 이행할 것이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 도널드 자고리아 NCAFP 수석부회장과 에번스 리비어 올브라이트 스톤 브릿지그룹 선임국장, 마크 민턴 전 주한미국 부대사 등 NCAFP 관계자들은 10일(현지시간) 맨해튼 밀레니엄 플라자 호텔에서 리용호 부상을 중심으로 하는 북측 대표단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음.
- 미국측 관계자들은 6시간에 걸친 이 간담회에서 북한 측에 북미간 합의 이행이나 남북간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나. 6자회담(북핵)

● 北 영변 경수로 건설 진전 < ISIS > (3/6, 연합뉴스)

- 북한이 영변 핵시설 단지에서 진행 중인 실험용 경수로 건설 공사가 진전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의 핵 관련 싱크탱크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가 5일(현지시간)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 연구소는 이날 보고서에서 지난달 3일 촬영된 위성 영상을 근거로 들며 “원자로의 터빈 건물은 외형적으로는 완공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 中, 6자회담 재개 ‘균불 지피기’ 나서 (3/7, 연합뉴스)

- 중국은 지난달 하순 베이징(北京)에서의 제3차 북미 고위급 회담을 계기로 분위기 조성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중국의 양제츠 외교부장이 6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행사 일환의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6자회담 조기 재개 필요성을 역설한 데 이어 같은 날 청징예(成競業) 국제원자력기구(IAEA) 대표가 이를 다시 강조했다며 청 대표는 한반도 핵 문제를 적절하게

푸는데 초점을 맞춘 6자회담을 이른 시일 내에 개최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北·美, 식량지원 협의…회담 연장(종합3보)(3/7, 연합뉴스)**

- 북한과 미국이 7일 베이징(北京)에서 대북 식량(영양) 지원 회담을 열어 세부절차를 논의했는데 이날 회담은 관례에 따라 오전에는 북한 대사관에서, 오후에는 미국 대사관에서 번갈아 열렸는데 미국 측에서는 로버트 킹 북한 인권특사가, 북한 측에서는 안명훈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이 각자 수석대표로 나서 지원 물품의 전달 방법과 시기, 관리 주체, 분배 모니터링 방법 등의 기술적인 문제를 논의했으며 킹 특사는 이날 밤 숙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오늘 많은 이슈를 논의했고 진전을 이뤄냈다”며 “해결해야 할 이슈들이 여전히 있어 내일 만난다”고 밝힘.

● **임성남 뉴욕 도착..리용호 회동 가능성 시사(3/7, 연합뉴스)**

- 임성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북한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리용호 부상과 회동할 가능성이 있음을 강하게 시사 했는데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임 본부장은 이날 뉴욕 컬럼비아대에서 열린 ‘2012 서울핵안보정상회의’ 세미나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이번 방미 기간에 리용호 부상을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 당장은 계획이 없다”고 말했으며 그는 그러나 “기회가 된다면 남북 간에도 최근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계제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 이 부상과의 뉴욕 회동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내비침.

● **美 킹 특사 “매우 생산·긍정적 대화였다”(종합)(3/8, 연합뉴스)**

-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8일 “(북한과) 매우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으며, 그는 북한과 식량 지원 방식에 최종적인 합의를 했느냐는 물음에는 “워싱턴에 돌아가 내일 토론할 것”이라며 말을 아낀.

기타 (6자회담(북핵))

- 北-美 양국의 '제3차 고위급회담' 결과 발표를 비교해보면 "인식과 입장에서 차이점이 선명하게 안겨온다"고 주장(3.5.조선신보/메아리, 조미고위급회담)
- 미국이 언급을 피한 것들 속에서 주목할 대목은 6자회담이 재개되면 제재해제와 경수로제공 문제가 우선적으로 론의 된다는 것과 정전협정의 위치규정도 어디까지나 평화협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임.
- 핵실험, 장거리미사일발사, 영변우라늄농축활동의 임시중지, IAEA 감시허용도 결실있는 회담이 진행 되는 기간이라는 조건부라는 것도 놓칠 수 없음.
- 美 제7함대 기함 '블루릿지호'의 강원도 동해항 입항은 '노골적인 군사적 위협이며 고의적인 긴장조성 행위'라며 '북침공격전술을 현장에서 연마하기 위해 기어 들었다'고 주장하면서 '전쟁 위협을 몰아오는 장본인은 韓美당국'이라고 비난(3.6.중통·평방/블루릿지호는 왜 기어 들었는가)

3 대남

- 北, 이대통령 비난에 욕설·폭언 총동원(3/5,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5일 '정의의 보복성전' '두발가진 미친개'라는 제목의 정론과 글을 통해 "한줌의 인간오물에 의해 민족의 정의, 인류의 정의가 참혹하게 유린당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을 '교활한 늑다리개' '특등미친개'라고 지칭했는데 정론에는 "이명박의 00을 콧 깨여봐서라도 알고 싶을 것이다" "이명박, 네놈은 그렇게 안된다" 등의 폭언과 욕설이 등장했는데 전길수 철도상은 이 신문에 게재한 '군수열차를 몰고 서울, 부산으로'라는 글에서 "명박이를 갈기갈기 00000"고 폭언했음.
 -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전투구호 사건과 관련해 '결코 위협사격이 아니다'는 글을 통해 "우리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은 역대 남조선 괴뢰들도 무색케 할 악행 중의 최대 악행"이라며 "결코 경고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위협했으며 "온 나라가 무자비한 보복의 격동태세에 들어갔다. 보복성전은 이미 시작됐다"고 전함.
- 개성공단 의료시설 운영주체에 '일산 백병원'(3/6, 연합뉴스)
 -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는 6일 개성공단 내 응급의료시설 운영주체로 인제대학교 일산 백병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는데 관리위는 개성공단 응급의료시설 위탁운영에 따른 사업자 모집에 총 4개 기관이 응모해 심사를 통해 이같이 결정함.

- 관리위는 “출입이 제한된 개성공업지구의 특수성을 감안해 응급환자 발생 시 대처능력과 병원의 안정적 운영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으며 관리위는 일산 백병원 측과 앞으로 위·수탁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의료시설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 **통일부 “개성공단 설비반출 이번 주부터 허용”(3/6, 연합뉴스)**
 - 통일부는 6일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신규 설비반출과 창고 개축 등 이른바 ‘대체 건축’을 허용한다고 밝혔는데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달 여야 국회의원들의 개성공단 방문 이후 입주기업 123개사를 상대로 수요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이번주부터 대체건축이 허용된다”고 말했다.
- **통일부, 北접촉 6·15남측위에 과태료 부과(3/6, 연합뉴스)**
 - 통일부는 6일 정부의 허가 없이 지난달 중국 선양(瀋陽)에서 북측 인사들을 만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관계자 3명에게 각각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는 공문을 발송함.
- **경기도, 지방정부 차원 통일 준비한다(3/6, 연합뉴스)**
 - 경기도북부청은 5월부터 통일 바로알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 경기도북부청은 5월19일~6월22일 ‘독일과 함께하는 2012 공감 통일비전 아카데미’를 도내 시장·군수와 지방의원, 공무원, 공공·산하기관 직원 등이 2차로 나눠 참여하며 독일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주를 현지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함.
- **‘최고존엄 모독’ 대남규탄대회 北전역 확산(3/7, 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 4일 인천 한 군부대의 전투구호를 빌미로 대남규탄을 위한 평양시 군민대회를 개최한 이후 각계각층의 쫓기모임이 북한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7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전날 황해남도 신천군에서 농업근로자동맹원 및 농업근로자 결의대회가, 개성시 평화리에서 ‘조선여성들의 규탄대회’가 열렸다고 전함.

- **北군인 ‘李 대통령 이름 표적지’ 사격연습(3/7, 조선중앙TV)**
 - 북한 군인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실명이 적힌 표적지와 표적판을 만들어 사격연습을 하는 장면을 조선중앙TV가 6일 방영
 - 이날 오후 남한의 한 군부대가 최근 김정일·김정은 부자 사진에 전투구호를 붙인 것에 대해 군인들의 격앙된 반응을 전하면서 이 장면을 내보냄.

- **‘막강 화력’..포천시 대규모 空·地 합동훈련(3/8, 연합뉴스)**
 - 키 리졸브 훈련 기간인 8일 오후 육·공군 합동 화력전투훈련이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승진훈련장에서 열렸는데 육군 6군단 주관으로 열린 이번 훈련에는 K-9 자주포, K-1A1 전차, AH-1S 코브라 공격헬기, 전투기 KF-16 등 육군과 공군 병력 900여명이 참가했음.

- **北군인, 이번엔 ‘李대통령 얼굴그림’에 사격(3/8,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는 이날 오후 평양시 조선민주여성동맹원과 4·25국방체육단 선수들이 군사훈련을 하면서 남한 군부대가 최근 김정일·김정은 부자의 사진에 전투구호를 붙인 데 대해 “최고존엄을 모독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장면을 내보냈음.

- **北이탈주민이 가꾸는 통일동산, 인천에 조성(3/9, 연합뉴스)**
 - 인천시 남동구는 논현동 주공14단지 등대마을 앞 완충녹지에 북한 이탈주민들이 직접 나무를 심고 가꾸는 통일동산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으며 남동구는 이를 위해 3천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소나무, 잣나무, 구상나무 등 300그루를 마련하고 내달 7일 나무 심기 행사를 열 계획임.

- **‘키리졸브’ 연합훈련 오늘 종료(3/9, 연합뉴스)**
 - 지난달 27일부터 시작된 ‘키 리졸브’ 한미연합훈련이 9일 오후 종료되는데 군은 훈련기간 북한군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최전방지역의 대포병 레이다, RF-4 정찰기, U-2 고공전략정찰기 등 대북 감시자산을 총가동하고, 공군 F-15K 등 초계전력을 비상 대기시켰음.

● **탈북자 새국면..대중국 확산·절충모색 갈림길(3/11, 연합뉴스)**

- 지난달 13일 중국에서 탈북자 24명이 공안당국에 체포돼 북송 위기에 처해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시작된 우리 정부와 중국과의 ‘외교전쟁’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음.
- 정부 내에선 중국의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해 국제사회를 통한 압박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강경론과 이미 충분히 문제를 제기했으니 중국의 태도 변화를 지켜보자는 온건론이 공존하는 상황임.
- 정부는 오는 23일 끝나는 유엔인권이사회(UNHRC)에서 탈북자 문제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하는 방안을 놓고도 고심 중이며, 정부 고위 당국자는 11일 “이번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를 연장하면서 탈북자 관련 결의문을 채택하는 것도 옵션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참가국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가 관건”이라고 밝혔음.

● **北노동신문 ‘이명박 사망 소문’ 황당 보도(3/11, 노동신문)**

- ‘최고존엄’을 모독했다며 연일 이명박 대통령을 비난하는 북한이 이번에는 이 대통령이 사망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황당한 소식까지 전했음.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1일 ‘소문 그대로 죽어마땅한 역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누군가의 입에서 나왔을 리명박놈이 뉘졌다는 소리가 한입두입 건너 어느덧 사실처럼 됐다”고 보도
- 신문은 “소문이 얼마나 통쾌하고도 가슴후련했으면 삼시에 평양은 물론 평안남도, 평안북도, 황해남도, 함경북도 등 전국 각지로 짜하게 퍼져 갔겠는가”라고 전해 이 소문이 북한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알렸음.

■ **기타 (대남)**

- 南 국방부 장관의 ‘방위태세 현장점검’ 및 발언(2.27, 北 도발가능성 등) 등 관련 “정치군사적 도발의 극치”라며 ‘무자비한 징벌을 가할 것’이라고 비난 위협(3.5, 중통·노동신문·평방/특등 호전광의 분별없는 광기)
- “조선반도에서 지금껏 전쟁이 터지지 않은 것은 핵무기보다 위력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과 자위적 국방력이 있기 때문”이라며 ‘수령·당·대중의 일심단결, 선군정치’ 선전(3.5, 중통·노동신문/일심단결로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은 불패이다)
-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에 접한 각계의 對南 위협 반향
 - 금속공업상 전승훈-前 내각부총리(3.6, 우리민족끼리/우리는 결전의 시각을 기다린다)

- 제2군단 사령관 김형룡, 부사령관 이금철, 사단장 오광수와 제4군단 사령관 변인선, 사단장 양영철, 연대장 김경수, 여단장 윤영식 등 징벌의지 표명(3.6,중통)
- 軍장령 주도현(3.6,중통/최고사령관동지이시여, 명령만 내리시라), 여춘석·주성치(3.6,중방/이○
○역도와 군부호전광들을 민족의 이름으로 처단하고야 말 것이다)
- 재중조선인총연합회, 3.3 北 최고준엄 모독 역적패당 규탄 성명 발표(3.7,중통)
- 『조평통』 대변인 성명, 통일부와 국방부 등 대변인의 대남비방 중단 등의 발언에 대해 ‘역적패당이 노골적으로 도발을 걸어온 이상 끊어 번지는 보복의 용암을 활화산으로 총폭발시켜 조국통일로 결속할 것’이라고 再次 위협(3.9,중통·중방)
- ‘李대통령 사망설이 평양 등 북한 전역에 급속 확산되고 있다’며 “모두의 가슴을 후련하게 하는 소문”이라고 중상 보도(3.11,노동신문/소문그대로 죽어 마땅한 역적)

3.12-3.18

3월

3주차

1. 대내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군사
- 라. 사회문화

2. 대외

- 가. 일반
-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1 대내

가. 정치

● 北 기계공업상 교체…리종국 임명(3/12, 노동신문)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11일자에 따르면 리종국 신임 기계공업상은 지난 9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2011년 사회주의경쟁순회우수기 수여식’에 기계공업상 직함으로 최룡해 당비서, 조병주 내각 부총리 등과 함께 참석함.
- 리 기계공업상은 1999년 12월 기계공업성의 전신인 금속기계공업성의 전기기계공업관리국 국장으로 임명된 뒤 2003년과 2009년 연이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 당선된 인물임.

● 北김정은, 黨에 불순분자 색출 처리 지시(3/14, 마이니치신문)

-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노동당 간부들에게 불순분자를 색출해 숙청하도록 지시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4일 보도함.
- 이 신문은 자체 입수한 북한 내부 문서를 인용해 김정은이 인민군 최고사령관에 임명된 다음날인 작년 12월 3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간부들에게 이렇게 지시했다고 전함.
- 김정은은 “인민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지목하고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긴박한 문제”라고 말했으며 “정말 위험한 것은 뱃속에 칼을 품고 때를 기다리는 극소수의 불순분자”라면서 “인민 안보 담당자나 사법 검찰 부문의 활동가들은 뱃속에 칼을 품은 자들만을 색출해 처리해야 한다”고 지시함.

● 김정은, 당군정 핵심간부 총동원 對南 무력시위(3/1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북한 김정은이 인민군 육해공 합동타격훈련을 참관했다고 15일 보도
- 김정은의 명령으로 시작된 훈련은 비행대와 해군 함정, 포부대의 연합작전으로 진행됐음.

- 노동신문은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은 당장에라도 명령만 내리면 즉시 강력한 타격으로 역적패당이 다시는 우리의 최고 존엄을 모독하고 우리의 존엄 높은 체제를 헐뜯지 못하도록 원수의 본거지를 흔적도 없이 쓸어버릴 인민군 장병의 비상한 각오와 전투정신을 잘 보여줬다”고 전했다.
- 이날 참관은 리영호 총참모장,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김정각 총정치국 1부국장, 김명국 총참모부 작전국장, 김원홍 총정치국 조직부국장, 박재경 총정치국 선전부국장, 정명도 해군사령관, 리병철 공군사령관,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함께 했으며, 또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 김기남, 최태복 당 비서, 강석주 내각 부총리, 박도춘, 최룡해, 김영일, 김양건, 태종수, 김평해, 문경덕 당 비서, 주규창 당 기계공업부장,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장, 김창섭 국가안전보위부 정치국장 등이 동행했음.

김정은동향

- 3/15 김정은 부위원장, 조선인민군 육해공군 합동타격훈련 지도(3.15, 중통·중·평방)
 - 리영호(軍총참모장/영접보고)·김영춘(인민무력부장)·김정각(軍총정치국 제1부국장)·김명국·김원홍(대장) 영접
 - 박재경·정명도·리병철·김영철(대장)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작전지휘성원들과 조선인민군 대연합부대 지휘성원들 현지 대기
 - 김기남·최태복·김경희·강석주·장성택·박도춘·최룡해·김영일·김양건·태종수·김평해·문경덕·주규창·우동측·김창섭·당과 국가 무력기관 책임일꾼·도당책임비서·평양시안의 당중앙지도기관 성원·성·중앙기관 일꾼 등 참관
- 3/15 김정은 부위원장, 순 위원장 사망 당시 ‘유훈관철을 통한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일떠세워야 한다는 입장을 뚜렷이 밝혀주었다’면서 유훈관철을 강조(3.15, 조선신보/유훈관철, 한치의 양보도 드팀도 없이)

기타 (대내 정치)

- ‘당대표자회’(4월 중순) 관련 ‘김정은을 수반으로 당두리에 대동단결하여 사회주의 강성부흥을 위한 대진군을 힘차게 벌리자’고 호소(3.14, 중통·민주조선/조선노동당 대표자회를 대진군의 자랑찬 성과로 맞이하자)
-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 담화(3.16)】 ‘광명성-3호’를 ‘4.12~16일 사이 平北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발사 예정’ 보도(3.16, 중통·중방)
- 최영림 내각총리, 3.15 黃南 농촌경리부문사업 및 무산광산연합기업소 현지시찰(3.16, 중통)
- [조선중앙통신사 보도(3.17)] ‘광명성-3호’ 발사준비 일환으로 ‘국제민용항공기구와 국제해사기구 등에 필요한 자료 통보’(3.17, 중통·중·평방)

- ‘광명성-3호’ 발사예고 발표(3.16)는 ‘김정은의 유훈관철 의지에 따른 대내외정책 구현’이라며 “설사 미국이 반대한다고 해도 ‘광명성-3호 발사 계획은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3.17,조선신보/100돌 태양절에 즈음한 실용위성 발사)
- 최영림 총리, 3.15 부령함금철공장 및 고무산시멘트공장 시찰(3.17,중통·중·평방)
- 최영림 총리, 3.16 김책제철연합기업소 현지시찰(3.18,중통)
-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위성발사는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것으로 주권국가의 자주권에 속하는 문제’라고 주장(3.18,중통·평방/광명성-3호 발사는 공화국의 정정당당한 합법적 권리이다)

나. 경제

- **美 1월 대북수출 486만달러…대부분 구호용(3/13, 미국의소리(VOA))**
 - 올해 1월 북미 간 교역액이 486만4천 달러로 집계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무역통계 자료를 인용해 13일 보도함.
 - 이는 지난해 전체 북미 교역액 940만 달러의 절반을 넘는 수치이며 수출 입별로 보면 북한의 대미수출은 전혀 없고 모두 미국이 북한에 수출한 것임.
- **‘활기찬 평양’ 이면엔 시장경제 확산(3/14, CNN)**
 - 북한을 왕래하는 외부 인사들의 눈에 비친 평양은 최근 경제 사정이 빠르게 나아지면서 도시의 면모가 완전히 변했다고 CNN이 미국 비영리 매체 글로벌메일을 인용해 13일(현지시간) 전함.
 - 몇 년 전만 해도 텅텅 비어 있던 상가에는 온갖 제품이 수북하고 상점도 늘고 있으며 레스토랑과 커피숍은 인파로 북적거리고, 한산하던 도로는 차량으로 가득하고 완공을 못해 장기간 방치된 105층짜리 류경호텔은 이집트 통신사업자 오라스콤의 지원으로 완공을 앞두고 있음.
- **김정은 등장 후 기술자들 해외연수 기회 늘었다(3/15,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 관료들이 최근 신기술과 지식 습득을 위해 중국을 포함한 각지의 해외 연수에 참여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 방송이 15일 전했다.
 - 이 방송은 북한의 기술 참관단이 최근 중국 산시성의 한 석탄화학 관련 공장을 찾아 관련 시설을 둘러보고 공장 관계자를 면담했다고 이날 전했다.

- 북한은 정기적으로 싱가포르 등지에서 지원 단체와 결연을 맺고 기술 습득 작업을 벌여왔는데 최근 이러한 행보가 더욱 가속화 되는 것으로 보임.

● 북·러 “북한 경유 가스관사업 협력강화”(3/16, 연합뉴스)

- 리용호 부상은 14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외교부의 안드레이 데니소프 제1차관과 회담을 갖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러시아 외교부는 회담이 끝난뒤 발표한 성명을 통해 “양국 차관은 한반도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관해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고 발표함.

● 北 전역에 돼지목장 건설 바람(3/16, 좋은벗들)

- 북한 전역에서 돼지목장 건설 바람이 불고 있다고 대북인권단체 (사)좋은벗들이 15일 전함.
- 이 단체가 운영하는 북한연구소는 소식지 ‘오늘의 북한소식’(446호)에서 북한의 각 시·군이 주민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돼지목장 건설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고 밝힘.

다. 군사

● 北 당·군수뇌부 대거 판문점 방문(3/13, 연합뉴스)

- 군의 한 소식통이 14일 “김정은이 지난 3일 판문점을 시찰한 뒤 사흘간 당·군 수뇌부 130여명이 집중적으로 판문점의 통일각 등을 방문했다”면서 “최근에는 중간 간부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힌 것을 연합뉴스가 전함.
- 리영호 북한군 총참모장과 김영춘 인민무력부장은 지난 4일 판문점을 시찰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정은 부위원장이 판문점을 다녀간 이후 최근에는 유조차량과 부식물을 공급하는 차량 등이 잇따라 목격되고 있어 시찰에 따른 후속 조치 차원으로 보인다고 소식통은 전함.

- 北, 4월 ‘광명성 3호 위성(장거리로켓)’ 발사(3/16,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김일성 주석의 100회 생일(4월15일)을 맞아 ‘광명성 3호 위성(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계획이라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함.
 -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담화를 통해 “김 주석 생일을 맞으며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제작한 실용위성을 쏘아올리게 된다”며 “이번에 쏘아올리는 ‘광명성 3호’는 극궤도를 따라 도는 지구관측 위성으로, 운반로켓 ‘은하 3호’는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남쪽방향으로 4월12일부터 16일 사이에 발사된다”고 밝힘.
 - 대변인은 “위성발사 과정에서 산생되는 운반로켓 잔해물들이 주변 국가들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비행궤도를 안전하게 설정했다”며 “우리는 평화적인 과학기술 위성발사와 관련해 해당한 국제적 규정과 관례들을 원만히 지킬 것이며 투명성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것”이라고 말함.

- 北 “광명성 3호 발사는 주권국 합법적 권리”(3/18, 연합뉴스)
 - 북한은 18일 ‘광명성 3호’ 발사가 우주공간의 평화적 개발 및 이용과 관련해 국제적으로 공인된 주권국의 합법적 권리라고 밝혔음.
 -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광명성 3호’ 발사 계획과 관련해 한국, 미국, 일본 등 관련국의 우려와 비난에 대해 논평을 통해 “반공화국 압살정책의 전형적인 발로로서 우리의 평화적 우주이용 권리를 부정하고 자주권을 침해하려는 비열한 행위”라며 “과학연구와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위성발사는 특정 국가의 독점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 北 ‘광명성 3호’ 국제비난에 공세적 대응(3/18, 연합뉴스)
 - 북한이 장거리 로켓인 ‘광명성 3호 위성’ 발사 계획을 전격 발표한 이후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난이 쏟아지고 있지만 발사 방침을 굳히고 있고, 국제사회의 비난에는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위성 발사’라고 되받아치면서 ‘발사현장 공개’ 카드까지 꺼내는 등 공세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대내적으로는 ‘광명성 3호’ 발사를 ‘강성번영을 추동하는 쾌거’라고 띄우며 주민들에게 ‘강성대국’ 진입의 상징으로 대대적인 선전을 하고 있으며, ‘광명성 3호’가 ‘미사일 위협’ ‘유엔결의 위반’이라는 미국과 국제사회

의 비난에 북한은 주권국가의 평화적 목적의 ‘실용위성’ 발사를 비난하는 것은 대북적대정책의 연장이라고 반격했음.

- 조선중앙통신은 18일 논평을 통해 “‘광명성 3호’는 평화적 우주개발과 이용정책에 따라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이 나라의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실용위성들을 개발이용하기 위해 진행한 과학연구사업의 고귀한 결정체”라며 “우리는 국제적 규정과 절차에 따라 국제기구들에 필요한 자료들을 통보했으며 다른 나라들의 전문가와 기자들을 발사현장에 초청하려는 의사도 표시했다”고 밝혔음.

기타 (대내 군사)

- 육군 제1사단이 3.13~15일까지 파주 일대에서 지상합동훈련 실시(연합뉴스 인용) 공표 관련 “대결과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고 주장(3.12,중통·중방)
- 해군 2함대 방문 정승호 합참의장의 對北발언(절호의 기회, 복수, 백배 천배 응징 등)에 대해 “대결에 환장한 날강도적인 궤변”이라고 강력 비난(3.15,중통·노동신문·평방/절호의 기회는 자멸의 기회/우리민족끼리/괴뢰호전광의 분별없는 광기)

라. 사회·문화

● “북한TV 맞아?”…뉴스보도 봄맞이 새단장(3/13, 조선중앙TV; 연합뉴스)

- 북한 조선중앙TV가 봄을 맞아 뉴스 영상에 다양한 그래픽을 접목하고 젊은 여성 아나운서들이 자주 뉴스를 진행하는 등 메인뉴스 보도에 눈에 띄는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연합뉴스가 최근 중앙TV의 뉴스 화면을 분석한 결과 오후 8시 메인뉴스 배경화면이 지난 10일부터 갈색에서 하늘색으로 바뀌었으며 기존 배경화면이 다소 건조하고 우중충한 분위기였다면 새 배경화면은 밝은 분위기를 자아냄.
- 특히 봄의 길목에 30세 전후로 보이는 젊은 여성 아나운서들이 오후 8시 메인뉴스 앵커로 자주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끌며 종전에는 40대 이상으로 추정되는 여성, 남성 아나운서가 이 시간대 뉴스를 주로 진행했으며 뉴스를 진행하는 아나운서 왼쪽으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담은 작은 박스화면도 자주 등장함.

- **서유럽 최초 北식당 ‘해당화’ 홈페이지 개설(3/13, 연합뉴스)**
 - 지난달 네덜란드에 북한식당을 개설해 관심을 끈 조선평양해당화식품회사가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도 개설한 것으로 13일 연합뉴스가 확인함.
 - 연합뉴스가 북한 홍보사이트인 ‘내나라’ 홈페이지에 올라온 각종 광고배너를 확인한 결과 ‘평양해당화식품’ 배너가 최근 추가됐으며 이 배너를 클릭하면 평양해당화식품회사 홈페이지가 뜬.

- **공훈국가합창단 서해 군부대 공연(3/13, 노동신문)**
 - 공훈국가합창단이 지난 10일 서해 초도방어대와 인민군 해군 제123군부대에서 공연을 시작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3일 전함.

- **北산림 매년 평양 면적 사라져(3/14, 연합뉴스)**
 - FAO가 최근 발표한 ‘2011 세계 산림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북한의 산림 면적은 전체 국토의 47%인 566만 ha로 1990년 820만 ha에 비해 30.9% 줄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조선요리협회 홈페이지 개설(3/14, 조선중앙통신)**
 - 조선요리협회가 요리에 대한 상식과 이론, 기술 등을 소개하는 인터넷홈페이지 ‘조선요리’를 개설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보도함.
 - 조선중앙통신은 홈페이지 가입자들이 전자계시판과 전자우편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며 “조선요리협회 관계자에 의하면 이 홈페이지는 요리 전문가와 가정주부들의 친근한 길동무가 되고 있다”고 소개함.

- **北휴대폰업체 ‘고려링크’ 모회사 변경(3/15,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과 이집트의 합작 휴대전화 업체인 ‘고려링크’의 모회사가 올해부터 ‘오라스콤 텔레콤 홀딩(OTH)’에서 ‘오라스콤 텔레콤 미디어&테크놀러지(OTMT)’로 바뀌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5일 전함.
 - OTMT 마날 하미드 대변인은 “(고려링크의) 모회사만 달라졌을 뿐 바뀐 것은 없다”며 “지분도 변함없이 오라스콤 측이 75%, 고려링크가 25%를 보유하게 된다”고 말함.

- **北관현악단, 정명훈 지휘로 파리서 감동의 무대(3/15, 연합뉴스)**
 - 북한의 20대 젊은이들로 구성된 은하수 관현악단이 정명훈 서울시향 예술감독의 지휘와 함께 예술의 도시 프랑스 파리에서 프랑스 교향악단과 어울려 멋진 공연을 펼쳤다고 연합뉴스가 15일 전했다.

- **北, 김일성 100회 생일에 교복선물 계획(3/16,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 당국이 올해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4월15일)을 전후로 대학생들을 포함한 전역의 학생에게 교복을 선물할 계획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6일 보도함.
 - 양강도 소식통은 이 방송에 “혜산 옷 공장과 양복점들이 만가동(완전가동) 하고 있다”며 “4·15 선물교복 생산을 위해 여맹(여성동맹)에서도 재봉질하는 여성들을 따로 뽑아 동원하고 있다”고 전함.
 - 함경북도 소식통도 “4월15일을 맞으며 유치원생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교복을 선물한다”며 “이번 선물교복은 중국에서 비싼 천을 들여와 만드는 것으로 알려져 학생과 학부모들의 기대가 높다”고 전함.

- **조선중앙통신-AP 공동사진전 뉴욕서 개막(3/17,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 조선중앙통신사와 미국 AP통신사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사진전이 16일 미국 뉴욕에서 개막했다고 미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7일 전했다.
 - 작년 6월 조선중앙통신사와 AP통신 사이에 체결된 MOU(양해각서)에 따라 열린 이번 공동사진전은 ‘북한의 창’이란 주제로 다음달 13일(현지시간)까지 계속됨.
 - 이번 사진전이 열리는 뉴욕시의 ‘The 8th Floor’ 갤러리에는 두 통신사가 그동안 찍은 북한 주민의 일상, 북한 지도부의 현장시찰 모습, 자연경관, 도시 전경 등 북한 관련 사진 79점이 전시됐음.

- **라디오프랑스가 한국을 통일시켰다(3/18, 르몽드)**
 - 프랑스의 유력 일간지 르 몽드는 17일(현지시간) 정명훈 서울시향 예술감독의 지휘로 북한과 프랑스의 관현악단이 합동 연주회를 한 것과 관련, “라디오프랑스가 한국을 통일시켰다”고 평했음.

- 르 몽드는 이날 주말판 기사에서 “라디오프랑스의 초청으로 프랑스에 온 북한 은하수 관현악단과 라디오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합동 공연을 한 것은 남과 북으로 갈라진 한국인들을 함께 모이게 하려는 정 감독의 오랜 노력이 결실을 본 것”이라며 이렇게 전했다.

기타 (대내 사회 문화)

- 北, 지난 17년간 금수산태양궁전 지구에 230여종의 56만여 그루의 나무와 꽃관목, 꽃뿌리를 식수했다고 선전(3.12,중방)
- 대규모 살림집 건설 관련 약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工期 단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도(3.13,중방)
- 평양시내 모든 구역·군들에 ‘고기상점’ 신설 및 무산광산연합기업소의 새로운 ‘선광(線纜) 계통’ 설치 보도(3.14,중·평방)
- 北, 3~4월 위생월간에 즈음하여 생산·생활문화를 확립 사업 진행(3.15,중통)
- 조선중앙통신사-美 AP통신사 공동주최 사진전시회, 3.15 뉴욕 루빈미술관에서 개막 및 축하연회 진행(3.16,중통)
- 은하수관현악단의 프랑스 공연(3.14)은 ‘평양과 파리, 유럽과 동방의 문화가 음악으로 하나가 된 사변적 합동연주회로, 21세기 조선의 문명을 높은 연주실력으로 보여준 감동의 무대였다’고 관평 게재(3.16,노동신문)

2 대외

가. 일반

- **美대북인권특사, 탈북자논의 유엔회의 참석(종합)(3/12, 연합뉴스)**
 -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오는 12~13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인권이사회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10일(현지시간) 국무부가 밝힘.
 - 킹 특사는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문제 논의를 위한 19차 회의에 참석하며,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도 만나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 **日경찰 “평양정보센터에도 일제컴퓨터 불법수출”(3/12, 아사히신문)**
 - 북한에 일본제 중고 컴퓨터 수천대를 불법 수출한 혐의로 구속된 재일동포 사업가가 대량파괴무기 개발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기관에도 컴퓨터 1천여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고 아사히신문이 12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찰은 외환관리법 위반(무허가 수출) 혐의로 구속된 중고 컴퓨터판매사 사장 이모(49)씨가 2009년 봄부터 평양정보센터(PIC)의 수입 판매 담당자로 일했고, 이 기관에 1천800대 이상의 컴퓨터와 모니터를 무허가 수출한 것으로 보고 있음.

- **日, 북한과 북송 일본인 처 귀국 협의(3/15, 산케이신문)**
 - 일본의 산케이 신문이 이 신문은 북수의 정부 고위관계자를 인용해 민주당 중의원인 나카이 히로시(中井洽) 전 공안위원장이 이번 주말 북한 측과 1950~1980년대 재일동포와 함께 북한으로 건너간 이른바 ‘북송 일본인 처’의 귀국 문제를 협의한다고 15일에 전함.

- **佛하원서 북한 세미나…탈북자 문제 등 논의(3/16, 연합뉴스)**
 - 프랑스 하원은 15일 오후(현지시간) 집권당 대중운동연합(UMP) 소속 앙리 플라놀 하원의원 주최로 북한 관련 세미나를 열어 탈북자 북송 문제 등 북한 현안을 논의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북한 은하수 관현악단과 라디오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정명훈

서울시향 예술감독의 지휘로 역사적인 합동연주회를 개최한 지 하루 만에 열린 이 세미나는 지난 1월 하원 외교위원회 주최로 열린 북한정세 청문회의 후속행사로 기획됐으며, 프랑스 정·관계와 학계 인사 등 50여 명이 참석했음.

● **日 언론 “北 위성 발사는 미사일 실험”(3/16, 연합뉴스; 교도통신)**

- 북한이 16일 인공위성을 탑재한 로켓을 다음달 발사하겠다고 발표하자 일본이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전함.
-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에 의하면 일본 방위성과 외무성은 북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의 위성 발사 계획 발표 직후 일제히 정보 수집 등 경위 파악에 나섰다.

● **美, ‘광명성 3호’ 발사 계획 “매우 도발적” (종합)(3/16, 연합뉴스)**

- 미국은 16일 북한이 다음달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발표한데 대해 “매우 도발적인 계획”이라고 비난
- 미 국무부의 빅토리아 눌런드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러한 미사일 발사는 지역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것이며 또한 북한이 최근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삼가하겠다고 다짐한 것과는 모순된 태도”라고 말했음.
- 눌런드 대변인은 “유엔 결의 1718호와 1874호는 분명하고도 명백하게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로 활용할 수 있는 발사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음.

● **러 외무부, 北 로켓 발사 계획에 ‘심각한 우려’(3/17, 연합뉴스)**

- 러시아 외무부는 16일(현지시간) 북한이 다음 달 인공위성을 탑재한 로켓을 발사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음.
- 외무부는 홈페이지에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위성 발사 계획 발표는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는 것”이라며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음.

- **美 “北 로켓발사時 식량지원 어렵다”(종합2보)(3/17, 연합뉴스)**
 - 미국 정부는 16일(현지시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과 관련, “이를 강행하면 식량을 지원하는 일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빅토리아 눌런드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로켓 발사는 북한의 신의를 의심하게 만들고, 식량 선적을 추진할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을 해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 눌런드 대변인은 북측의 이날 발표가 지난달 29일 중국 베이징(北京) 고위급 회담 합의사안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 **潘총장, 북한 로켓발사 계획 취소 촉구(종합)(3/17, 연합뉴스)**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16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해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을 취소할 것을 촉구
 - 예정대로 다음달에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위배하는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음.
 - 반 총장은 이날 마틴 네시르키 대변인을 통해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자제하겠다는 최근의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위성발사 계획을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 **日, 북한 발사 위성 日 항할땐 요격 검토(3/17, 요미우리신문)**
 - 일본 정부가 북한이 다음 달 발사하는 인공위성이 일본을 항할 경우 미사일방어(MD) 시스템으로 요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7일 보도
 - 이 신문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북한의 위성을 MD 시스템으로 요격하기 위해 자위대법에 근거한 ‘파괴조치명령’을 발령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갔음.

- **EU, ‘광명성 3호’ 발사 발표에 “깊이 우려”(3/18, 연합뉴스)**
 - 캐서린 애슈턴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가 북한의 ‘광명성 3호’ 발표 계획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계획을 포기할 것을 촉구
 - 애슈턴 대표는 17일(현지 시간)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번 발사계획은 국제적 의무와 정반대되는 것이며, 특히 유엔(UN)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안(1874호)에 어긋난다”고 지적

● **‘광명성3’ 놓고 北-국제사회 ‘불꽃 공방전’(3/18, 연합뉴스)**

- 북한의 장거리 로켓인 ‘광명성 3호 위성’ 발사 계획을 둘러싼 외교적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북한의 이번 발사계획이 발표되자마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미사일 위협’ ‘유엔결의 위반’이라며 계획 취소를 촉구했고, 중국조차도 이례적으로 북한 대사를 초치해 ‘우려’를 표명했음.
- 빅토리아 놀런드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북한이 발사를 강행한다면 식량지원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밝혔음.
- 중국의 외교부 장즈쥘(張志軍) 부부장도 지난 16일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를 불러 “중국은 북한의 위성계획과 국제사회의 반응에 주의하고 있다”고 이례적으로 우려의 입장을 전달했음.

● **北, 日에 “북송 일본인 처 문제 우선 협의하자”(3/18, NHK방송; 교도통신)**

- 북한이 일본에 피랍자 문제를 유보하고 북송 일본인 처 문제를 우선 협의하자고 제안
- 18일 NHK방송과 교도통신에 의하면 북한의 송일호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담당 대사는 17일 몽골의 울란바토르에서 일본 측 관계자와 접촉한 뒤 기자회견에서 이런 견해를 밝혔음.
- 그는 일본이 강력하게 해결을 요구하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자 문제와 관련 “일본 측에서 해결을 외치는 사람 중에는 이 문제를 전면에 내세워 북일 관계를 악화시키려는 사람이 있다”고 주장했다.

● **北 6자회담 대표 리용호, 中방문(3/18, 연합뉴스)**

- 북한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리용호 외교부 부상이 17일 베이징을 방문했음.
- 지난 7-9일 미국 시라큐스대학교 행정대학원인 맥스웰스쿨과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이 공동주최하는 한반도 세미나 참석차 미국을 방문했던 리용호 부상은 귀국하는 길에 러시아에 이어 이날 중국을 찾았다고 베이징 외교 소식통이 전했다.
- 리용호 부상은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 특별대표 등을 만나 6자회담 재개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타 (대의 일반)

- 재일동포사업가의 컴퓨터 대북 불법수출 혐의로 日공안당국이 총련 산하 기관들을 압수 수색한 것은 ‘공화국의 권위를 훼손시키고 총련을 말살하려는 강패행위’라고 비난(3.12, 중통·노동신문·중방/불법무도한 강패행위)
- ‘조-리 경제적 및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 체결(3.17) 63주년 즈음 “전통적인 조로친선은 뿌리 깊으며 두 나라 인민들의 공동의 노력에 의해 더욱 강화발전 될 것” 강조(3.17, 중통·노동신문·중방/날로 두터워지는 조-로친선)

나. 6자회담(북핵)

● 北, 美에 연락사무소 설치 제안(3/12, 요미우리신문)

- 북한이 최근 미국 측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자고 요구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2일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리용호 외무성 부상은 지난 10일 뉴욕에서 열린 한 비공개 세미나에서 “올해 안에 양국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길 바란다. 이견 최상부(김정은을 지칭)의 뜻이다”라고 말했으며 또 지난달 북미 양국이 합의한 우라늄 농축 활동 정지 등과 관련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요원들이 “조만간 (북한에) 입국할 것”이라며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갈 것이고, 또 5월이나 6월에는 북한의 국립교향악단이나 태권도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덧붙임.

● 리용호 北 “핵사찰 가까운 시일 내 이뤄질 것”(3/12, 연합뉴스)

- 미국 뉴욕을 방문중인 북한의 리용호 외무성 부상은 12일(현지시간) 북한 핵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이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6자회담 북한측 대표인 리 부상은 이날 뉴욕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기 앞서 숙소인 밀레니엄 플라자 앞에서 잠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으며 리 부상은 IAEA 사찰 시기가 언제쯤 될지를 묻는 질문에 “가까운 앞날에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2월 있던 조미(북미)간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이 계속 취해지고 있다”고 답함.

3 대남

- **北, 모니터링 조건 남측 인도지원 거부방침(3/12, 연합뉴스)**
 - 최근 북한 측과 접촉한 대북지원단체 관계자는 12일 “북측 관계자가 순수한 인도적 지원만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며 “북측 관계자가 ‘순수한’이라는 표현을 매우 강조했다”고 밝힌 것을 연합뉴스가 전함.
 - 다른 단체 간부는 “북한이 올해 분배감시라는 꼬리표가 붙은 남측 민간의 지원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전함.

- **임태희, 베이징 다시 방문…北접촉 시도설(3/12, 연합뉴스)**
 -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이 이틀 일정으로 베이징(北京)을 방문했다가 12일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연합뉴스가 밝힘.
 -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이날 “임 전 실장의 베이징 방문은 확인됐지만 그의 베이징 일정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으며, 실장 측근은 “대한배구협회장으로서) 중국 측과의 관계 유지 차원에서 방중한 것”이라고 설명함.

- **유엔 인권이사회서 국회대표단-北대사 충돌(종합)(3/12, 연합뉴스)**
 -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유엔 인권이사회(UNHRC) 회의장에서 12일 (이하 현지시간) 탈북자 북송저지 운동을 위해 참석한 국회대표단과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대사 사이에 충돌이 빚어짐.
 - 충돌은 이날 오전 스위스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 인권이사회 회의실에서 마르주키 다루스만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어 서세평 북한대사가 짙막한 입장을 발표한 뒤 회의장을 떠나는 과정에서 발생함.
 -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탈북자 안전과 보호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의사에 반하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고 촉구했고, 서세평 대사는 “특별보고관의 보고는 조작된 정치적 책동에 불과하다”고 주장함.

- **北외무성, 南 ‘탈북자 국제쟁점화’ 비난(3/13, 조선중앙통신)**
 -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문답을 통해 “요즘 이명박 역적패당이 그 무슨 ‘탈북자’ 문제라는 것을 갖고 여기저기 돌아치며 소

란을 피우면서 유엔 인권이사회를 비롯한 국제무대에게까지 끌고가 동족대결을 국제화해보려는 어리석은 놀음을 벌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대변인은 이어 “천만군민이 영도자의 두리(주변)에 일심단결해 광명한 미래를 향해 힘차게 전진해나가는 우리 현실 앞에 저들이 것처럼 고아대던(떠들던) ‘급변사태’와 ‘불안정설’이 모두 풍지(풍비)박산나게 되자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격으로 마지막 몸부림을 치는 것”이라고 주장함.

● 北,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비난 강화(3/14, 노동신문: 우리민족끼리)

- 북한 노동당기관지인 노동신문은 14일 “얼마 전까지 괴뢰들은 이 회의에서 ‘북핵문제’를 정식으로 논의하는 것은 아니라고 발뺌해왔다. 그러던 자들이 드디어 정체를 드러내고 ‘북핵문제’니 ‘핵포기’니 하고 떠들고 있다”며 “우리를 모해하기 위한 마당으로 만들려 한다”고 비난함.
-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도 이날 논평에서 “김성환이 ‘핵안전 수뇌자회의’에서 ‘북핵문제가 다뤄질 수 있다’며 나발을 불어댔다”며 “역적패당이 떠든다고 스스로 핵을 포기할 우리가 아니며 남조선에 핵무기가 남아있고 우리를 반대하는 핵전쟁연습이 계속되는 한 우리의 핵억제력은 백배로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함.

● 北 ‘제네바 충돌’ 국회대표단 맹비난(3/14, 우리민족끼리)

-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14일 탈북자 강제송환 저지를 위해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 인권이사회 회의장에서 북측 외교관들과 충돌한 우리 국회 대표단을 맹비난함.
-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망신덩어리’라는 제목의 글에서 “12일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장에서 괴뢰 국회 대표단의 패쪽을 달고 초청하지도 않은 회의에 얼굴을 들이밀고 동족대결의 난동을 부리던 새누리당과 자유선진당 패거리들이 해당기구 경비성원들에 의해 저지, 감금당했다”고 전함.

● 남북관계 악화에도 1~2월 남북교역 36%↑ (3/16, 연합뉴스)

- 5·24 대북제재 조치 속에서도 올해 1~2월 남북교역 규모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에 연합뉴스가 전함.

- 16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2월 남북교역액은 3억2천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의 2억3천500만 달러보다 36%나 증가했으며 1~2월 남북교역을 항목별로 보면 대북 반출이 1억6천만 달러로 작년 동기간(1억800만 달러)보다 48%나 급증했고, 대북 반입도 전년 동기간(1억2천600만 달러)보다 25% 늘어난 1억6천만 달러에 달함.

● **국회대표단, 총리실내 탈북자 전담부서 설치 요구(3/16, 연합뉴스)**

- 탈북자 강제송환 저지 여론 확산을 위해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하고 귀국한 국회대표단(단장 김형오 전국회의장)은 16일 강제복송 저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위해 총리실내 탈북자 전담부서를 설치할 것을 요구
- 김형오 단장은 이날 인천공항에 도착한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탈북자는 외교통상부, 통일부 등 전 부처와 관련이 있는 만큼 총리실에 기구가 필요하다”며 “대표단이 김황식 총리를 방문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음.

● **정부 “北위성발사 중대한 도발적 행위될 것”(3/16, 연합뉴스)**

- 정부는 16일 북한이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을 맞아 ‘광명성 3호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적 행위가 될 것”이라고 밝혔음.
- 조병제 외교 통상부 대변인은 ‘북한 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 담화에 대한 논평’에서 “북한이 발표한 대로 실용위성을 발사한다면 이는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음.

■ **기타 (대남)**

- ‘최고존엄 모독’ 관련 ‘이○○역도와 군부호전광들을 비롯한 역적패거리들을 쓸어버리기 위한 전민항쟁을 벌리자’고 지속 선동(3.12,중통·노동신문·중방/정의의 보복성전은 반드시 승리한다)
- ‘전쟁의 근원을 송두리째 들어내야 한다’, ‘호전광들의 도전적 망동’ 題下로도 ‘보복 성전’ 지속 위협(3.12,중통·노동신문)
- ‘탈북자 문제는 보수패당이 北 사람들을 유인·납치해 생긴 문제로 인권과는 관련이 없는 문제’라고 강변하며, ‘反北 인권 및 탈북자 복송반대 소동’ 중단 재차 촉구(3.13,우리민족끼리/극악한 동족대결정책의 산물-탈북자복송반대 소동)
- 김문수 경기도 지사의 발언(北 인권법 국회 통과, 탈북자송환 중지 등)에 대해 ‘진실을 오도하는 기만극, 궤변’으로 폄하(3.13,우리민족끼리/추악한 인간퇴물의 입방아질, 인간추물의 광대극)

- [조선반핵평화촉] , 3.14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3.26~27)는 "핵전쟁을 합리화하는 핵전쟁 모의판이 될 것"이라고 비난 '백서' 발표(3.14,중통)
- 李대통령과 외교통상부 장관의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북핵문제 논의 가능' 등 발언 비난 및 '자위적 핵억제력 백배 강화' 대응 위협(3.14,중방·노동신문·우리민족끼리/옹납될 수 없는 반공화국 핵소동·무엇을 문제시하여야 하는가)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3.19-3.25

3월

4주차

1. 대내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군사
- 라. 사회·문화

2. 대외

- 가. 일반
-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1 대내

가. 정치

- **北, 김일성 생일 기념 평양서 친선예술축전(3/20,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태양절)을 맞아 평양에서 제28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을 개최한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함.
 - 중앙통신은 이번 축전에 세계 5대륙의 여러 국가에서 유명 국내외 콩쿠르 수상자와 배우로 구성된 예술단, 무용단, 교예단 및 해외동포예술단과 북측 예술인들이 참가한다고 전함.

- **청년동맹 1비서에 전용남…리용철 해임(3/22,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리용철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1비서를 해임하고 후임에 전용남을 기용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함.
 - 통신은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가 이날 평양에서 제47차 전원회의를 열어 “1비서 리용철을 연령상 관계로 해임소환하고 전용남을 새 1비서로 선거했다”고 전함.
 - 리용철은 리화선 전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의 아들로 2007년 12월 청년동맹 1비서가 됐으며 지난해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당시 국가장의위원회 위원에 포함됨.

- **北 4월13일 김정일 사후 첫 최고인민회의(종합)(3/24, 조선중앙통신)**
 -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22일 “최고인민회의 12기 5차회의를 내달 13일 평양에서 소집한다”는 결정(87호)을 채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전했다.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는 이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등록은 4월11일과 12일에 한다”는 ‘최고인민회의 소집에 대한 공시’도 발표했다.
 - 우리의 국회 격인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권한은 ▲헌법의 수정 및 보충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 수립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내각총리의 선거 또는 소환 등임.

- 특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국방위원장을 추대 또는 재추대할 수 있어 내달 열리는 12기 5차회의에서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국방위원장직 승계 여부가 주목됨.
- **北 당대표자회 절차 돌입…시·군당대표회 진행(3/2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4일 “조선로동당 대표자회를 앞두고 시, 군 당대표회들이 진행됐다”며 “대표회들에는 시(구역), 군의 기관, 기업소, 공장, 협동농장을 비롯한 각급 단위 당조직에서 선거된 대표자들이 참가했다”고 밝혔음.
 - 통신은 “대표회들에서는 노동당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에서 특출한 공로를 세운 일군과 당원들을 도 당대표회 대표자 후보자로 추천했다”며 “추천된 대표자 후보자들을 도(직할시) 당대표회 대표자들로 선거했다”고 전했다.
- **김정일 사망 100일…김정은 금수산궁전 참배(3/25,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100일째인 25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김 위원장의 ‘태양상’ 앞에서 묵상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조선중앙TV와 중앙방송, 평양방송도 이날 오전 9시부터 김 부위원장의 금수산태양궁전 방문을 실황중계했음.
 - 조선중앙TV는 “김정일 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은 장군님(김정일)의 서거 100일에 즈음해 경건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다”며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과 국가 무력기관의 책임일꾼들과 함께 김정일 동지의 태양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며 묵상하셨다”고 전했다.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영림 내각 총리, 리영호 인민군 총참모장,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김경희 노동당 경공업부장, 김정각 총정치국 1부국장, 김기남, 최태복, 박도춘, 태종수, 김영일, 김양건 노동당 비서 등이 동행
- **김정일 사망 100일…北 대규모 추모대회(종합2보)(3/25, 조선중앙방송)**
 - 지난해 12월17일 사망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추모하는 ‘100일 중앙추모대회’가 김 위원장 사망 100일째인 25일 오전 11시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렸음.

- 김일성광장 외에도 김일성경기장, 주체사상탑, 당창건기념탑, 4·25문화회관, 평양체육관 광장 등 평양시내의 주요 광장에는 수십만명이 운집해 조선중앙방송의 중앙추모대회 생중계를 청취했고 지방에서도 추모행사가 진행됐음.
- 중앙추모대회에는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영림 내각 총리, 리영호 인민군 총참모장,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오극렬 국방위 부위원장,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이 주석단에 자리했음.
- 강석주 내각 부총리, 김정각 총정치국 1부국장, 김기남, 최태복, 최룡해, 박도춘, 태종수, 김평해, 문경덕, 김영일, 김양건 당 비서, 주규창 당 기계공업부장,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장, 김창섭 국가안전보위부 정치국장 등 당·정·군 고위간부도 주석단에 함께했음.

● 北김정일 100일 애도 종료…3대세습 ‘굳히기’(3/25, 연합뉴스)

-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100일째를 맞은 25일 평양에서 대규모 추모대회를 치름으로써 김 위원장에 대한 100일 간의 공식 애도를 마무리했음.
-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 당·정·군의 고위간부와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한 데 이어 오전 11시부터 김일성광장에서 거행된 ‘100일 중앙추모대회’에 참석했음.
- 북한은 지난 100일 동안 김 위원장 추모를 위한 다양한 결정과 사업을 벌이면서 김 위원장 유훈을 앞세워 김정은 체제의 기반을 다져왔음.
- 이 기간에 김 위원장 추모를 위해 이뤄진 주요 결정과 사업으로는 ▲2월 16일(김정일 생일)을 ‘광명성절’로 제정 ▲금수산기념궁전을 ‘금수산태양궁전’으로 명명 ▲김 위원장에게 대원수 칭호 수여 ▲김정일훈장, 김정일상 등 제정 ▲김일성·김정일 기마동상 건립 등을 꼽을 수 있음.

■ 김정은동향

- 3/25 김정일 사망 100일 중앙추모대회, 3.25 김일성광장에서 진행(3.25,중·평방·중앙TV/실황중계)
- 김정은, 김영남, 최영림(추모사), 리영호, 김경희, 김영춘(추모연설), 전병호, 김국태, 김기남, 최태복, 양형섭, 강석주, 리용무, 장성택, 김정각, 오극렬, 김양건, 김영일, 박도춘, 최룡해, 태종수, 김평해, 문경덕, 주규창, 우동측, 김창섭 외/‘노수희’(『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 등 참석

기타 (대내 정치)

- 김정은 부위원장을 경제, 과학기술 등 비군사분야 지식도 체득한 '자식경제시대의 이상적인 영도자'라고 추켜세우고 '유훈을 단순히 관찰해 나갈 것'이라고 선전(3.19.조선신보/일심단결의 중심에서 최고사령관의 영도력 -4)
- 최영림 내각총리, 3.16~17 라남탄광기계연합기업소·청진제강소·수성천종합식료공장 등 咸北 청진시 여러부문사업 현지시찰(3.19,중통)
- 김영남, 3.19 독일 대통령에 선거된 '요아힘 가우크'에게 축전(3.21, 중통·평방)
- 김정일 위원장 사망 100일(3.25)을 맞으며 '장군님을 영생의 모습으로 모시기 위한 사업(금수산태양궁전, 영생탑 건립 등)과 유훈관철에 모든 것은 지향시켜 왔다'며 '김일성 주석 100돌 생일과 당대표자회를 대축전으로 맞이하기 위해 비약의 폭풍을 일으키자'고 독려(3.22,중통·노동신문/선군태양을 받드는 것은 우리 인민의 고결한 품모)
- 최영림 내각총리, 3.22 만수대지구 인민극장 건설정형 현지요해(3.22,중통)
- 최고인민회의 상임족 결정 제87호(3.22字), 4.13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 회의 소집(평양) 및 4.11·12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등록 고지(3.24, 중통·중·평방)
- 北, 조선노동당 대표자회를 앞두고 市(구역), 郡 당대표회를 진행(3.24,중통)
- 김정일 위원장 사망 100일을 맞으며 △주체혁명위업의 계승 완성, △당의 선군정치 구현, △중요대상공사 기일에 완공 등 '유훈 관철'을 강조하며 '올해를 강성부흥의 전성기로 만들기 위한 총진군' 독려(3.25, 중통·노동신문 사설/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주체혁명의 새 승리를 이룩해 나가자)

나. 경제

● 北, 투자환경 개선으로 외자유치에 성과(3/23,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투자환경 개선으로 외국기업과 북한 합영투자위원회(위원장 리광근) 간의 합영·합작 계약 건수가 계속 늘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
- 윤영석 합영투자위원회 부국장은 중앙통신에 “나라의 전반적인 투자환경이 유리하게 변화되는데 따라 합영·합작 계약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풍부한 희토류 광물자원과 철도, 도로, 발전소 등의 대규모 투자대상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는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 윤 부국장은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법을 새로 채택하고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을 전면적으로 수정·보충했다”며 “두 경제지대의 공동개발, 공동관리 사업은 세계적으로 있어보지 못한 새로운 협조형태이지만 조중(북중) 쌍방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 군사

- **북, 미사일 동체 동창리 운반 발사준비(종합2보)(3/25, 연합뉴스)**
 - 북한이 탄도미사일(장거리 로켓·광명성 3호)의 동체를 평안북도 철산군에 있는 동창리 기지로 운반해 발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25일 확인
 - 합참과 연합사는 이날 “한국군과 미군 당국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동체를 동창리로 운반해 건물 내에서 발사를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음.
 - 북한은 평양 산음동의 한 병기공장에서 특수 제작된 화물열차에 미사일 동체를 실어 24일까지 동창리 발사기지 인근 조립건물로 운반했으며 추진체와 동체 조립 등 발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임.

기타 (대내 군사)

- ‘광명성-3호’ 발사 계획 관련 반향
 - 대외문화연락처 부위원장, 과학기술위원회 국장 등이 ‘위성발사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목적이 있으며, 앞으로 우주강국으로 발전해나가기에 염원한다’고 표명(3.19,중통)
 - 한상복(내각부총리 겸 전자공업상), 조일광(국가과학원 지구환경정보연구소장) 등, ‘평화적 우주이용기술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는 중요 계기’ 언급(3.19,중방)
 - 김일성종합대 역학부 교수 태기훈, ‘광명성-3호 발사는 과학기술의 모든 분야가 세계적 수준에 도달한 것이며, 전문가와 기자를 초청한 것은 자신감의 발로’라고 주장(3.22, 조선신보)

라. 사회·문화

- **北 조선국립교향악단 美공연 재추진(3/22, AP통신)**
 - 북한 조선국립교향악단의 미국 공연이 재추진되고 있다고 AP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함.
 - 이에 따르면 미국 애틀랜타 소재 북한 구호단체인 비영리법인 글로벌리소스 서비스(GRS)의 로버트 스프링스 회장은 이날 조선국립교향악단이 미국을 방문, 애틀랜타 등지에서 공연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힘.
- **北주민 사망 원인 12%는 흡연<WHO>(3/22, 자유아시아방송(RFA))**
 - 유엔 세계보건기구(WHO)가 북한의 전체 사망자 가운데 12%가 흡연 때문에 사망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미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2일 전함.

- WHO는 최근 발표한 ‘담배로 인한 사망률 보고서’에서 북한의 30세 이상 사망자 중 12%는 사망 원인이 흡연이며 이는 세계평균치와 같은 수준이라고 밝혔으며 남성의 경우 30세 이상 사망 중 13%, 여성의 경우에는 11%가 흡연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고 WHO는 기관지암과 폐암 사망 중 71%가 흡연으로 인한 것이며, 나이가 들수록 흡연자들이 암으로 사망할 개연성이 크다고 전함.

● **北 평양시에도 하루 2시간만 전기 공급(3/22, 좋은벗들)**

- 북한이 올해 들어 평양시에 전기를 하루 평균 2시간 안팎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대북인권단체 (사)좋은벗들이 22일 전함.
- 이 단체가 운영하는 북한연구소는 소식지 ‘오늘의 북한소식’(447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오후 6시~10시 하루 평균 4시간씩 전기를 공급하다가 올해 들어 공급시간이 2시간으로 줄었음.
- 소식지는 중앙당의 한 간부가 “중국에 수출하던 석탄을 발전소에 돌리기로 하면서 한때 전력공급이 좋아지기도 했지만 대중 석탄 수출이 계속되면서 전력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중앙당에서도 전력공급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에 매우 곤혹스러운 처지”라고 말했다고 전함.

● **북한 기대수명, 남한의 1985년 수준(3/25, 연합뉴스)**

- 북한주민의 기대수명이 남한보다 10세 이상 낮아 남한의 1985년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25일 전함.
- 2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황나미 연구위원이 발표한 ‘남북한 건강수준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주민의 평균 기대수명은 69.3세(남 65.6세, 여 72.7세)에 그쳤음.
- 이번 연구는 북한이 지난 2008년 15년 만에 실시한 인구센서스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2008년 당시 남한의 평균 기대수명은 80.1세(남 76.5세, 여 83.3세)로 북한보다 10.8세 많음.

2 대외

가. 일반

● 北, ITU에 ‘인공위성’ 발사계획 신고(3/19, 연합뉴스)

- 북한이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다음달 중순 인공위성 ‘광명성 3호’를 발사하겠다는 계획을 신고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6일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ITU에 “자체 개발한 지구관측 위성인 ‘광명성 3호(Bright Star-3)’를 다음달 12~16일 사이에 발사할 것”이라고 통보했으며 이 인공위성의 운용 시한이 2년이라고 ITU에 신고했음.
- 북한은 또 국제해사기구(IMO)에 이 위성이 12~16일 사이 오전 7시에서 낮 12시 사이에 발사될 것이라고 통보했다고 IMO가 일본 정부에 알려음.

● 日 오사카부, 조총련계 학교에 보조금 유보(3/20, 교토통신)

- 일본 오사카부(大阪府)가 조선총련계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유보했다고 20일에 교토통신이 보도했음.
- 통신에 의하면 오사카부의 마쓰이 이치로(松井一郎) 지사는 지역 내 8개 조선학교에 대한 2011년도 보조금 8천100만 엔의 교부를 유보하겠다고 밝혔는데 북한을 추종하는 조선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과의 관계 단절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임.

● 美, 북한내 미군 유해발굴 중단(3/22, 연합뉴스)

-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강행 계획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21일(현지시간) 북한내 미군 유해발굴 작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미 국방부 조지 리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로켓 발사 계획을 포함한 북한의 최근 도발적인 행동들로 인해 유해발굴 작업을 중단한다”고 말했으며 “북한이 최근 적절하게 행동하지 않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유해발굴 노력을 중단했다”면서 “북한이 국제 사회가 요구하는 행동 규범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함.

- 유엔, 北·이란 인권보고관 임무 연장(3/22, 연합뉴스)
 - 유엔인권이사회(UNHRC)는 22일 북한과 이란의 인권실태 조사를 맡은 특별보고관의 임무를 1년 연장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북한은 결의안에 대해 “정치적 대결의 소산”이라며 “EU가 미국의 뿌리깊은 적대 정책을 쫓아가며,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난함.

- 美, 북미대화 구체적 협의 내용 밝히지 않겠다(3/23, 연합뉴스)
 - 미국은 22일(현지시간) 북한이 작년에 이미 위성 발사 계획을 미국에 통보했다는 보도와 관련, 북미대화의 구체적인 협의내용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빅토리아 눌런드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김정일 사망 이전에 북한이 위성을 발사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미국측에 했느냐는 질문에 “작년 8월부터 지난달 2.29 합의에 이르기까지 3차례에 걸친 북미대화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대답함.

- <핵안보 D-2> 美, 北로켓 저지 中·리에 협조 요청(3/24, 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막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 양국 정상에게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미국 백악관이 24일 밝혔음.
 - 게리 세이모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대량살상무기(WMD) 조정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핵안보정상회의 기간 이명박 대통령,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을 포함한 각국 수반들과 쌍방향으로 긴밀히 협업할 것”이라고 교도뉴스 등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음.

- <핵안보 D-1> 국제사회 ‘北로켓발사’ 우려 예고(3/25, 연합뉴스)
 - 6일 서울에서 개막하는 핵안보정상회의에서는 북한이 4월에 발사하겠다고 밝힌 로켓 문제에 관해 국제사회의 우려가 집중 제기될 전망이다.
 -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기본적으로 핵테러 방지를 논의하는 자리로, 북한과 이란의 핵문제 등은 의제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북의 로켓 발사문제가 국제사회의 긴급한 현안으로 부상했기 때문임.

- 북한은 특히 21일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북핵과 관련된 ‘성명’ 등이 나올 경우 이를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국제사회의가 이번 회의에서 북핵문제와 로켓발사 문제 등이 논의되지 못하도록 선제적인 차단공세에 나섰다.
- 북한의 강경입장은 핵안보정상회의를 활용해 북핵문제에 접근하려는 우리 정부와 미국, 일본 등 국제사회의 시도를 차단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됨.

● **한미 정상, ‘北 로켓’ 굳건한 동맹 재확인(종합)(3/25, 연합뉴스)**

-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25일 정상회담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 이후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양국간 공조를 재확인하는 자리였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 간 정상회담은 북한이 지난 16일 ‘광명성 3호’ 발사 계획을 발표한 지 열흘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서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됐음.
- 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후 한반도 정세의 유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두 나라 정상 간 첫 회담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나. 6자회담(북핵)

● **北, ITU에 ‘인공위성’ 발사계획 신고(3/19, 연합뉴스)**

- 북한이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다음달 중순 인공위성 ‘광명성 3호’를 발사하겠다는 계획을 신고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6일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ITU에 “자체 개발한 지구관측 위성인 ‘광명성 3호(Bright Star-3)’를 다음달 12~16일 사이에 발사할 것”이라고 통보했으며 이 인공위성의 운용 시한이 2년이라고 ITU에 신고했음.
- 북한은 또 국제해사기구(IMO)에 이 위성이 12~16일 사이 오전 7시에서 낮 12시 사이에 발사될 것이라고 통보했다고 IMO가 일본 정부에 알려음.

● 리용호 “IAEA에 사찰단 파견 요청”(3/19, 연합뉴스)

- 북한은 지난 2월 미국과의 합의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우라늄 농축프로그램(UEP) 중단을 감시할 사찰단을 파견해 주도록 요청했다고 리용호 북한 외무성 부상이 19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리 부상은 이날 베이징에서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 특별대표와 만난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는데, 4월로 예정된 인공위성 발사는 미국과의 양자합의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함.

● 美, 北 위성발사는 북미합의 위반(3/19, 연합뉴스)

- 빅토리아 놀런드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사찰단 파견을 요청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인공위성 발사는 유엔 결의 위반일 뿐 아니라 북한이 미국에 한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한 것을 연합뉴스가 전함.
- 놀런드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IAEA에 사찰단 파견을 요청했다는 보도에 대한 논평 요구를 요구받고 “북한으로부터 공식적인 초청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면서도 2월29일 합의에 대한 이행감시는 IAEA가 할 일이지만 사찰단 초청 여부가 “위성발사는 유엔 결의 위반이자 그들이 우리에게 한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바꿔 놓지는 못한다”고 강조함.

● 北 “광명성 3호 발사 북미합의에 저촉 안돼”(3/19,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9일 밤 내놓은 ‘위성발사, 조미 합의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단언컨대 우리의 위성발사는 조미(북미) 합의와 전혀 관련이 없다”며 “우리의 위성발사계획은 나라의 첨단과학기술을 더 높은 경지에 올려세워 사회주의강국 건설의 기둥을 굳건히 하고 민족과 인류 공동의 번영에 이바지하려는 일념에서 출발한 것으로 문제시될 것이 전혀 없다”고 강조함.
- 논평은 “우리는 이미 결실 있는 (북미) 회담이 진행되는 기간 핵시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영변 우라늄농축활동을 임시 중지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를 허용하기로 했다”며 “실용위성 발사와 장거리 미사일은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했으며 이어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모

든 나라의 합법적 권리에 기초해 발사계획을 공개하고 국제적 규정과 절차에 따라 국제기구들에 필요한 자료들을 통보했다”고 밝힘.

● 北 “위성발사는 김정일 유훈”(3/20, 연합뉴스)

- 북한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사망하기 전인 작년 12월에 이미 광명성3호 위성발사계획을 미국에 통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20일 연합뉴스가 전함.
- 당시 미국과 북한은 고 김일성 북한 주석 탄생 100주년 축하행사로 올 4월15일 전후에 인공위성을 발사한다는 북한의 계획을 놓고 트랙 2(민간 채널)를 통해 구체적인 협의까지 했던 것으로 전해짐.
- 워싱턴 소식통은 20일(현지시간) “김정일 사망 사흘 전인 작년 12월15일 북한 당국자가 위성발사계획을 미국에 통보했다”면서 당시 북한과의 협의에 나섰던 미국 측 트랙 2 관계자는 “내가 보기에 오바마 행정부는 위성발사를 유엔결의의 직접 위반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이런 사실을 미국 행정부 당국자에게도 전했다는 것으로 안다고 말함.

● 美 “北사찰단 파견문제 IAEA와 협의중”(3/21, 연합뉴스)

- 미국은 북한에 핵 사찰단을 파견하는 문제를 놓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의를 하고 있으며 IAEA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빅토리아 눌런드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20일(현지시간)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눌런드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IAEA가 북한의 초청 사실을 확인한 보도를 봤다면서 “올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 IAEA와 협의하고 있으며 IAEA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함.
- 그는 미국은 IAEA가 초청을 받아들여야 하는 질문에 “IAEA의 결정에 앞서 나가지 않겠다”면서 “우리의 우려는 이(북한) 정권의 신뢰도와 약속준수 여부이며 그들도 우리의 우려를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함.
- 눌런드 대변인은 클린턴 장관이 밝힌 한미일 3자회담은 언제 열리며 북한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냐는 질문에 “아직 날짜는 잡히지 않았으며 클린턴 장관은 늦은 봄 즈음에 커트 캠벨 국무부 차관보와 상대측이 만나기

를 원하는 것 같다”면서 북한도 주요 의제지만 회담의 목적은 역내 이익 증진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라고 덧붙임.

● 필리핀, 北로켓 추진체 자국 해역 추락 우려(3/21, ABS-CBN)

- 필리핀은 21일 자국 동부 해역에 북한 ‘광명성 3호’ 로켓 2차 추진체가 떨어질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함.
- 알베르트 델 로사리오 필리핀 외무장관은 이날 “우리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로 인해 이 지역에 불안감과 불확실성이 조성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으며 6자 회담이 열려 제반 문제점들이 다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고 필리핀 ABS-CBN방송이 전함.

● 中, 북-중 국경 마을에 탈북자 신고호출기 설치(종합)(3/23, 연합뉴스)

- 중국의 탈북자 강제복송 문제가 국제적 이슈로 부상한 이후 북-중 경계 지역에서 중국의 탈북자 단속과 체포활동이 더 강화됐다고 복수의 소식통이 23일 전함.
- 특히 중국 공안당국은 최근 북-중 경계지역 한 마을에 탈북자 접촉시 당국에 신고할 수 있는 장치인 신고호출기를 시범설치하고 이를 북-중 국경지역 전체로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IAEA 자체로는 북핵문제 해결 못해(3/23, 블룸버그 통신)

-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한 당국과 방북 문제를 논의하는 가운데 북한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책은 IAEA 영역 내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3일 보도함.
- 통신은 지난 2007년 북한과의 마지막 핵사찰 협상에 참여했던 올리 하이노넨 전 IAEA 사무차장의 말을 인용, IAEA는 단지 우라늄 농축 핵심 시설을 조사하는 쪽으로 북한과 타협해 다른 시설들에는 접근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힘.
- 하이노넨 전 차장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프로그램에 관련된 장소는 핵심 시설 이외에 최소 두 곳이 더 있을 것이며 북한에 대한 더욱 폭넓은 핵사찰 문제는 결국 6자회담에서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임.

3 대남

● 北 “북핵성명 발표뎐 선전포고 간주”(종합2보)(3/21, 조선중앙통신; 평양방송; 조선중앙방송)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1일 보도를 통해 “서울회의에서 북핵문제와 관련한 그 무슨 성명발표 따위의 도발이 있을 경우 그것은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유훈으로 남기신 백두산 위인들의 염원에 대한 극악무도한 모욕으로, 또 하나의 특대형 범죄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우리에 대한 그 어떤 도발도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힘.
- 통신은 “우리는 이명박 역적패당이 서울회의를 북침 핵전쟁도발의 전주곡으로 되게 하려는 데 대해 엄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어떠한 도발도 우리에게 대한 선전포고로 되며 그 결과는 조선반도 비핵화 논의에 커다란 장애가 될 것”이라고 경고함.
-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도 이날 조선중앙통신 보도내용을 전하며 “정의와 평화를 귀중히 여기는 나라들이 서울회의에 참가하는 것은 곧 수치와 모욕으로 된다”며 “누구든지 반공화국 대결에 환장한 남조선 괴뢰도당을 조금이라도 비호·두둔하려 든다면 반역의 무리를 매장하기 위한 우리의 무차별적인 타격권에 함께 들게 될 것”이라며 핵안보정상회담 참가국에까지 위협함.

● 천안함 2년…北 “南측 모략극” 비난공세(3/25, 연합뉴스; 우리민족끼리)

- 천안함 폭침 2주년(3월26일)을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의 ‘천안함 46 용사’ 참배 등 국내에서는 다양한 추모행사들이 열리고 있고, 이를 의식한 듯 북한 매체들은 매일같이 “천안호사건은 북침전쟁도발을 노린 역적패당의 특대형 모략극” “천안호 기념행사는 충선 역전용 북풍(北風)몰이”란 주장을 되풀이하며 대남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24일 “천안호 침몰사건은 우리와 하등의 상관도 없다”며 “(남한이 천안함 사건을 부각하는 목적은) 천안호 침몰사건을 북에 의한 것으로 기정사실화함으로써 저들의 반공화국 대결정책을 합리화하고 그것으로 보수패당에게 불리해진 다가오는 충선정세를 역전시켜보려는 데 있다”고 주장했음.

기타 (대남)

- '北 천안함 폭침' 2주년 관련 '이○○패당이 군사적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 외세와 야합하여 북침전쟁을 도발하기 위해 조작한 모략극'이라고 왜곡 주장(3.21, 노동신문·중방/거덜이 난 유치한 자작극)
- 北 『조평통』 대변인 '담화'(3.23), 남한의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북핵문제와 '광명성-3호' 발사를 거론한다면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가장 강력한 대응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위협(3.23, 중통)
- 핵안보정상회의 관련 '괴뢰패당이 美 상전과 야합하여 반공화국 모의판으로 만들 흥심을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하며 '세계최대의 핵화약고인 南에서 수뇌자회의가 열리는 것 자체가 내외여론에 대한 우롱이며, 평화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난(3.24, 우리민족끼리/국제적 망신을 불러오는 난동/반공화국 핵소동마당으로 만들려는 흥심)
- '北, 천안함 폭침' 2주년(3.26) 관련 '천안함 46용사 위령탑' 등은 '침몰사건을 北에 의한 것으로 기정사실화하여 대결정책을 합리화하고 보수패당에게 불리해진 총선정세를 역전시켜 보려는 데 있다'고 비난(3.24, 우리민족끼리/천안호 망령을 살려서 얻을 것은?)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3.26-3.31

3월

5주차

1. 대내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군사
- 라. 사회문화

2. 대외

- 가. 일반
-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1 대내

가. 정치

● 北, 김일성 100회 생일 맞아 교복 공급(3/26, 조선신보)

-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26일 “2012년 국내 방직 및 피복공업 앞에 나선 주요과업의 하나는 김일성 주석의 탄생 100돌을 맞는 태양절에 즈음해 전국의 모든 소학교, 중학교, 대학교 학생들에게 새 교복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현재 전국의 여러 피복공장에서 교복생산이 한창”이라고 전함.
- 교복생산에 박차를 가하는 평양 소재 창광옷공장을 소개하며 “이곳 공장에는 교복생산을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마다 조사한 학생들의 몸 치수에 맞게 하나하나 생산된다”며 “원자재는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서 생산된 천을 비롯한 국내산이 기본”이라고 밝힘.
- 신문은 “교복생산은 거의 마감단계로 들어섰다”며 “지난 3월5일부터는(옷 공장) 종업원 이외에도 가정부인과 집에서 연로보장을 받는(정년퇴직을 한) 노인들도 교복생산을 도와나서고 있다”고 전함.

● 北인민군, 김정은 당대표자회 대표로 추대(3/27,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열린 인민군 당대표회에서 노동당 대표자회 대표로 추대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전함.
-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노동당 조선인민군 대표회가 26일 4·25문화회관에서 진행됐다”며 “대표회에서는 전체 인민군 장병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염원을 반영하여 김정은 동지를 조선노동당대표자회 대표로 추대할 데 대한 결정서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밝힘.
- 이날 김정각 인민군 총정치국 1부국장은 추대사에서 “김일성 동지의 위업, 김정일 동지의 위업을 총대로 끝까지 완성하자는 것이 인민군대가 시대와 혁명 앞에 다지는 엄숙한 맹세”라며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 위업과 조국통일 위업의 승리를 위해 김정은 동지를 조선노동당대표자회 대표로 높이 추대할 것을 제의한다”고 전함.

● **北김정은, 김정일 애도 주민에 감사문(3/27,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에 애도를 표한 북한 주민에게 감사문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전함.
- 김 부위원장은 감사문에서 “나는 김정일 동지의 서거에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시하고 장군님(김정일)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유훈 관철에 용기백배해 떨쳐나선 전체 당원, 인민군 장병과 인민들, 해외동포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린다”고 밝힘.

● **北평안남도당, 김정은 당대표자회 대표 추대(3/28, 조선중앙통신)**

- 북한 평안남도 당대표회가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당대표자회 대표로 추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전함.
- 당대표자회 대표자 선거를 위한 평안남도 당대표회는 27일 평성시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는데 홍인범 평안남도당 책임비서는 추대사에서 “김정은 동지는 선군 조선의 운명이고 미래”라며 “평안남도의 당원과 인민들의 의사와 염원을 담아 김정은 동지를 조선노동당 대표자회 대표로 추대할 것을 제의한다”고 말함.

● **北평양시당, 김정은 당대표자회 대표 추대(3/28, 조선중앙통신)**

- 북한 노동당 평양시당은 28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평양시 당대표회를 열어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당대표자회 대표로 추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전함.

■ **김정은동향**

- 3/27 김정은 부위원장, 3.26 김정일 사망에 애도를 표한 전체 장병들과 인민들에게 「감사문」 전달(3.27,중앙·중통)
- 대표회에서는 집행부가 선거되었으며, 김정각(총정치국 제1부국장)의 '추대사'와 리영호·김원홍·정명도 등 토론 및 당대표자회에 보낼 대표자들을 선거했음.
- 3/29 김정은 부위원장, 새학년을 맞은 평양시 교육부문 단위들에 컴퓨터·수자식 촬영기·사진기 등 90종·수천점의 현대적인 교육설비·체육기자재들 전달(3.29,중통·노동신문)

기타 (대내 정치)

- 黨 조선인민군대표회, 3.26 4.25문화회관에서 김정은 부위원장을 '당대표자회 대표'로 추대(3.27, 중방·중통)
- 김정일 위원장 死後 100일간 '인민경제 선행·기초공업부문 등 성과' 선전(3.26, 중통/정신력이 안아온 중정의 100일)
- 평안남도대표회, 3.27 평성시에서 김정은 부위원장을 당대표자회 대표로 추대(3.28, 중통·중방·노동신문)
 - 김영남, 홍인범(평안남도 당책), 양홍주(道당 비서), 안극태(道인민위원장) 등 참가
- 평양시 당대표회, 3.28 인민문화궁전에서 김정은 부위원장을 당대표자회 대표로 추대(3.28, 중통·중방)
 - 문경덕(평양시당 책임비서), 리일환(평양시당 비서), 김정호(평양시 인민보안국장), 량만길(평양시 인민위원장), 성자립(김일성대 총장/고등교육상), 리군철(평양시 청년동맹 1비서) 등 참석
- 김정일 위원장 著作(주체사상에 대하여) 발표(3.31) 30돌 기념 중앙연구토론회, 3.29 김기남(黨 비서)·김용진(내각부총리) 등 참가下 진행(3.29, 중통·중방)

나. 경제

● 北, 작년 대 EU 교역서 최대흑자(3/27, 미국의소리(VOA))

- 북한이 지난해 유럽연합(EU)과 교역에서 사상 최대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7일 보도함.
- EU 집행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2011년 대북교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대(對)EU 수출은 1억2천180만 유로로 2010년(9천900만 유로)보다 23.3% 늘어난 반면 수입은 전년도(6천800만 유로)보다 40.3% 줄어든 4천60만 유로에 그쳐 8천120만 유로의 흑자를 기록함.
- 북한의 수출품 가운데 석유와 광물이 7천100만 유로로 전체의 약 60%를 차지했고, 의류 2천300만 유로, 기계류와 수송장비가 1천만 유로이고 북한이 가장 많이 수입한 품목은 기계류와 수송장비로 1천400만 유로이며, 기타 제조업 제품 1천100만 유로, 농산품이 700만 유로 등이었음.

기타 (대내 경제)

- 김일성 생일 100돌 관련 공로 있는 인민경제 선행부문·기초공업부문 일꾼·근로자들 표창식, 3.29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3.30, 중통)

다. 군사

● 北 “위성발사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3/27,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7일 “우리는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이고 경제발전의 필수적 요구인 평화적 위성발사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을 통해 “김일성 동지의 탄생 100돌을 맞으며 실용위성을 쏘아 올리는 것은 김정일 장군의 유훈이며 오래전부터 계획되고 추진돼온 정상적인 사업”이라며 “(미국은)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으려는 대결관념에서 벗어나 우리에게도 남들과 똑같이 위성발사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촉구함.
- 대변인은 “우리는 조미(북미)고위급회담들에서 평화적 위성 발사가 장거리미사일 발사 임시중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시종일관하게 주장했다”며 “그 결과 2·29 조미합의에는 ‘위성발사를 포함한 장거리미사일 발사’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가 아니라 ‘장거리미사일 발사 임시중지’로 명기된 것”이라고 주장함.
- 대변인은 “미 국가항공우주국에도 전문가들을 보내라고 초청했으므로 그들이 와서 우리 위성발사의 평화적 성격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이 우리의 위성발사에 대해 이중기준을 적용하는가 안 하는가 하는가에 따라 미국 최고당국자의 발언이 진심인가 위선인가를 판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함.

● 北 로켓 연료주입 시작…12~13일 발사(3/29, 도쿄신문)

- 일본의 도쿄신문은 북한이 위성 발사를 위해 로켓에 연료주입을 시작했으며, 오는 12~13쯤 발사할 것이라고 29일 보도
- 이 신문은 서울발 기사에서 북한 정권에 가까운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렇게 전했다. 북한이 발사 예정인 로켓에 액체 연료 주입을 시작했으며, 소식통이 “위성 발사가 임박해 있다. 다음달 12~13일에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고 보도

라. 사회·문화

- **대만 여행업계, 북-중-러 3국 관광사업 추진(3/28, 자유아시아방송(RFA))**
 - 대만 여행사들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잇는 동북아 3개국 관광사업을 추진하면서 중국 측에 참여를 타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8일 보도
 - RFA는 11개 대만 여행사 대표로 구성된 첫 관광팀이 지난주 북한, 중국, 러시아의 주요 국경도시를 둘러보는 3개국 순회 시범관광에 참여했고, 대만 관광업계가 3개국 순회관광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중국 훈춘시 웹사이트를 인용해 전함.

기타 (대내 사회·문화)

- 北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대변인, 4.1 남측 정부 당국의 '北 금강산국제관광 방해 해외공작 책동'을 주장하며 이는 "또 하나의 엄중한 도발"이라고 비난 및 금강산관광 선전 '담화' 발표 (4.1.중통 중·평방)

2 대외

가. 일반

- **北 “유엔 북한인권 결의 단호히 배격”(3/26,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외무성 대변인은 26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을 통해 “적대세력들은 유엔인권이사회 제19차 회의에서 해마다 벌이는 상투적인 반공화국 ‘결의’ 채택놀음을 되풀이했다”며 “적대세력들의 역겨운 광대놀음의 산물인 반공화국 결의를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으로 단호히 전면 배격한다”고 밝힘.
 - 대변인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 악용해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존엄높은 사회주의제도를 어찌보려는 시도는 가소로운 망상”이라며 “우리는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적대세력들의 온갖 도전과 모략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우리 인민이 선택한 자주적 길, 선군의 길을 따라 오직 곧바로 나갈 것”이라고 주장함.

- **北 이틀째 오바마 대통령 실명비난(3/27, 조선중앙통신; 우리민족끼리)**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7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을 통해 미국 최고 당국자가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평화적 과학기술 위성발사를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로 걸고 들었다며 ‘미국 최고당국자’란 표현으로 오바마 대통령을 겨냥함.
 - 대변인은 “미국이 우리에게 대한 적대적 의사가 없다고 말은 하지만 고질적인 대결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평화적 위성발사도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만 보이는 것”이라고 비난함.
 -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제 코나 씻으라’는 제목의 글에서는 “오바마가 미국의 병집은 뒤로 감추고 우리 공화국이 어떻다는 식으로 아닌보살한(시치미를 떼고 모른 척한) 걸 보면 그도 어지간히 낮가죽이 두껍다고 해야 할 것”이라고 비난함.

- **日 방위상, 자위대에 北로켓 요격 준비 지시(3/27, 연합뉴스)**
 - 다나카 나오키(田中直紀) 일본 방위상은 4월 중순 발사될 북한 로켓이 일본 영토에 떨어질 경우에 대비해 요격용 미사일을 배치하도록 27일 자위대에 지시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방위청 관리들은 이 지시에 따라 자위대가 지대공 패트리엇-3 미사일과 함대공 스탠더드 미사일-3를 탑재한 이지스 구축함 배치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힘.

- **北 ‘발사계획 취소’ 요구 潘총장 실명비난(3/28,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28일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장거리로켓인 ‘광명성 3호 위성’ 발사계획을 유엔결의 위반이라며 철회를 요구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실명비난함.
 -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유엔사무총장 반기문이 우리의 ‘광명성 3호’ 발사문제를 놓고 국제기구 수장의 격에 맞지 않는 발언들을 하고 있다”며 “동족으로서 우리의 평화적인 위성발사를 환영하고 좋게 보지는 못할망정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에 동조하는 것은 어느모로 보나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유엔의 체면을 깎아내리는 처사”라고 비난함.

- 논평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는 주권국가인 우리 공화국의 합법적인 위성발사 권리를 부정한 미국과 그에 추종한 이사회의 불법무도한 강권행위에 의해 산생된 추악한 음모의 산물”이라며 “유엔이 우리의 위성발사를 문제시하고 ‘결의’를 채택한 것은 명백히 우주의 개발과 이용에서의 이중기준”이라고 주장함.

● 日, 대북 제재 연장 방침(3/28, 교도통신)

- 28일 교도통신에 의하면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현안의 해결을 위한 북한의 구체적 행동이 보이지 않는다.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함.

● 北 “일본 북한인권 부각은 과거청산 회피 의도”(3/28,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8일 ‘너절하고 고약한 행위’란 제목의 논평에서 “일본이 국제무대에서 납치문제를 구실로 우리의 인권문제를 의도적으로 부각하려는 데는 조일 관계의 기본이 마치 납치문제인 것처럼 왜곡해 과거청산을 교묘하게 회피하려는 어리석은 기도가 깔려있다”고 주장함.
- 논평은 최근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데 대해 “저들이 심각한 인권문제들은 무시하고 그 누구의 인권에 대해 운운한 것은 언어도단이며 선택성, 이중기준의 극치”라며 “가관은 정치 난쟁이 일본이 해마다 반공화국 결의 채택의 고정 돌격대로 나서서 악랄하게 책동하는 것”이라고 일본을 비난함.
- 논평은 일제강점기 일본의 조선인 강제연행과 위안부 문제 등을 거론하며 “일본의 인권 타령은 저들의 불미한 과거와 현재의 인권유린행위를 가리기 위한 연막”이라고 주장함.

● 美하원 외교위, 북한인권법 5년 연장(3/28, 연합뉴스)

-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28일(현지시간) 북한인권법을 오는 2017년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을 가결 처리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법안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인한 김정은 체제로의 권력승계에 도 불구하고 북한내 인권 및 인도주의적 상황은 여전히 참담한 상태”라

면서 “탈북자들의 상황도 취약한 상태”라고 지적했으며 특히 법안은 최근 국제사회 이슈로 부각한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문제도 언급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함.

● 美 “로켓발사時 대북정책 전면 재검토”(종합)(3/29, 연합뉴스)

- 제임스 밀러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 지명자는 29일(현지시간)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계획과 관련, “강행한다면 향후 (대북)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밀러 지명자는 이날 상원 군사위에서 열린 인준청문회에서 존 매케인(공화. 애리조나) 상원의원의 대북 식량(영양)지원 관련 질의에 “로켓 실험을 강행할 경우 이런 지원과 앞으로 취할 예정이었던 다른 (대북) 조치들을 중단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며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한다면 식량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매케인 의원의 거듭된 질문에 “내 생각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함.

● 韓中日 외무, 4월7~8일 中서 北로켓 등 논의(3/29, 연합뉴스)

- 한국과 중국, 일본 외무장관은 오는 4월 7~8일 이틀간 저장(浙江)성 닝보(寧波)에서 만나 북한이 발사를 예고한 광명성 3호 문제 등 지역과 국제 관심사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베이징의 중국과 일본 관리들이 29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이날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와 회담한 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힘.

● 美 “재미한인-北이산가족 상봉 계속 추진”(3/29, 연합뉴스)

- 미국은 29일(현지시간)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계획과 관련, 재미 한국인의 북한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은 이와 별개로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이날 북한 로켓발사와 재미 한국인 이산가족 상봉 사업의 연관성에 대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이는 인도주의적 사안으로, 우리는 이 문제를 이슈화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다”고 답함.

- 국무부는 “미국적십자사(ARC)는 인도주의 사업의 일환으로 전세계 이산가족 상봉을 돕고 있다”면서 “미국은 한국전 이후 한국계 미국인들의 북한내 가족 재회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강조함.

● **美, 北광명3호 발사대비 이동 레이더 배치(3/30, CNN)**

- 미국이 다음달 중순으로 예상되는 북한의 광명성 3호 로켓 발사 계획에 대비해 첨단 이동식 레이더를 태평양 지역으로 파견했다고 전함.
- CNN 인터넷판은 미군이 첨단 이동식 레이더인 SBX(Sea Based X-Band Rader)-1을 지난 23일 하와이 진주만에서 출항시켰다고 30일 보도
- 미군이 출항시킨 SBX-1 레이더는 바다에 뜨는 구조물에 설치돼 있고, 목표물을 찾거나 추적할 수 있으며 알래스카 기지와 캘리포니아 공군기지의 요격 미사일과 교신할 수 있음.

● **北 “美 식량지원 중단은 2·29 조미합의 위반”(3/31,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이 대북 식량지원 중단을 선언한 미국을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1일 전했다.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인도주의적 문제는 정치와 연관시키지 않는다고 표방하던 미국이 우리의 위성(광명성 3호) 발사에 대항해 식량지원 공약의 이행을 중지한다고 발표했다”며 “이것은 2·29 조미합의의 핵심사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조미 합의를 통째로 깨버리는 유감 천만 한 행위로 될 것”이라고 비난했음.
- 대변인은 “미국이 우리의 위성 발사를 한사코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몰아붙이려는 데는 나름대로 추구하고 있는 정치군사적 목적이 있다”며 “미국은 우리의 ‘장거리 미사일 능력’이 ‘미국본토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고 떠들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모든 나라가 다 반대하는 저들의 미사일 방위체계 수립을 정당화하는 구실로 써먹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 기타 (대외 일반)

- 北 ‘외무성’ 대변인, 3.26 유엔 인권이사회의 ‘對北 인권결의’ 채택(3.22, 제네바) 관련 “반공화국 결의”라고 비난(3.26,중통)
- [北외무성 대변인 중통기자 질의답변] 美 오바마 대통령의 장거리 로켓 관련 발언(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에 대해 ‘미국은 평화적 위성발사에 대해 이중기준을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주장(3.27,중통)

- 南이 ‘광명성-3호 발사를 증대한 도발행위(핵무기 운반수단 개발, 장거리 로켓 발사 등)로 왜곡하고 있다’며 ‘김일성민족의 새 100년대를 축복하며 창공높이 치솟아 반공화국 궤변들을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라고 주장(3.28,우리민족끼리/민족의 경사에 칼질해 보려는 어리석은 궤변)
- 조선우주공간기술위 우주개발국 부국장, 3.28 ‘광명성-3호’ 발사 관련 「중통」 기자와 회견(3.28, 중통)
 - △지구관측위성으로 산림자원분포와 자연재해 정도, 기상예보 등 수집, △위성 질량은 100kg, 고도 500km 궤도를 따라 돌며 수명은 2년, △외국 전문가·기자들은 서해 발사장에서 실물 위성, 평양 위성관제종합지휘소, 발사상황 참관 예정
- 외무성 대변인 「중통」 기자회견, 3.31 미국의 대북식량지원 중단 발표를 ‘2.29 조·미합의 핵심사항 위반’이라고 비난하며 ‘이제라도 주권국가의 평화적 위성발사를 인정하고, 적대외사가 없다고 한 말을 행동으로 증명해 보일 것’ 주장(3.31, 중통)
- 美·日 등 주변국들의 분별없는 망동(‘광명성-3호’ 발사를 미사일 발사로 왜곡, 이지스함 배치 등)이 ‘조선반도 비핵화 과정에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침략세력과 비타협적인 투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3.31, 중통·노동신문/조선반도의 평화보장은 초미의 과제)

나. 6자회담(북핵)

● 美 “6자회담국과 北로켓 후속조치 협의중”(3/30, 연합뉴스)

- 미국 정부는 30일(현지시간)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계획과 관련, “동맹국 및 6자회담 참가국들과 ‘후속 조치(next steps)’에 대해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이미 북한에 강경한 입장을 거듭 밝혔으며, 중국 등 다른 나라도 역시 이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표시했다”고 전한 뒤 이같이 설명했다.
- 이는 미 정부가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유엔 안보리 논의 등을 포함한 제재 방안에 대해 이미 한국 등과 구체적인 협의에 나섰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됨.

● 6자회담 당사국들, 北로켓 관련 다각 접촉(3/31, 연합뉴스)

-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방침을 굽히지 않음에 따라 북핵 6자회담 당사국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고 31일 연합뉴스가 전함.
- 미국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과 관련,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과 외교채널을 통해 긴밀하게 공조대책을 협의하고 있음.

-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30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이미 북한에 강경한 입장을 거듭 밝혔으며, 중국 등 다른 나라도 역시 이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표시했다”면서 “동맹국 및 6자회담 참가국들과 ‘후속 조치(next steps)’에 대해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타 (6자회담(북핵))

-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의제에도 없는 북핵-미사일발사 문제 거론, 反北 압살 공공이판, 명분 잃은 국제회의였다’고 혹평(3.28,우리민족끼리/반공화국 대결판으로 전략된 회의, 명분잃은 국제회의 등)

3 대남

● 北 “반공화국·총선용 핵소동”(3/26, 우리민족끼리; 평양방송)

-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26일 ‘국제적 망신을 부르는 전쟁소동’이란 논평을 통해 “괴뢰들이 핵안전수뇌자회의를 계기로 북침전쟁소동을 극대화하는 목적은 정세를 최대로 격화시키고 그 책임을 우리에게 몰아붙여 국제적인 반공화국 핵 공조를 이루어보자는 것”이라고 주장함.
- 이어 “북침 핵 공격 위협으로 되는 군사적 광란 속에서 ‘핵 안전’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국제사회에 대한 엄중한 모독이며 수치”라고 맹비난했으며 이번 행사가 ‘총선용’이라는 주장도 되풀이함.
- 우리민족끼리는 ‘통하지 않는 상투적 수법’이란 논평에서 “괴뢰패당이 총선을 앞두고 북남관계를 파탄과 대결상태로 몰아간 죄악을 가리고 남조선 각계층의 반감을 녹젓혀보기(누르기) 위해... 서울 핵안전수뇌자회의니 ‘천안’호사건 2주년이니 하며 반공화국 대결 캠페니아(캠페인)를 미친 듯이 벌려놓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격에 어울리지 않는 잡소리로 세상 사람들을 웃기지 말고 남조선 인민들이 우려하는 원자력발전소 안전문제부터 풀어야 할 것”이라고 역공함.
- 방송은 “이번 서울 핵안전수뇌자회의의 주요 의제는 핵물질의 사용 최소화와 안전관리 및 불법거래 방지”라며 “우리는 이와 관련한 원칙적 입장을 천명했고 핵물질 보유 및 관리에서 국제적 규범이 철저히 준수되고

있음을 명백히 밝혀 북핵문제라는 것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고 회의에 상정될 아무 명분도 없다”고 목청을 높임.

● 北조평통 ‘광명성 3호’ 발사강행 거둬 밝혀(3/30,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30일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장거리 로켓인 ‘광명성 3호 위성’ 발사 중지를 위한 분위기 조성엔 나선 우리 정부를 비난하고 발사 강행 의지를 거듭 밝혔다
-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과 문답을 통해 “이번 회의기간 이명박 역적패당은 의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우리의 핵억제력과 ‘광명성 3호’ 발사계획을 악랄하게 걸고들며 반공화국 모략소동에 미쳐 날뛰는 추태를 부렸다”며 “이명박패당이 국제회의를 동족대결의 모의판으로 만들려고 광분한 것은 우리에게 대한 극악한 도발이고 민족의 수치”라고 비난했음.

● 류우익 “北 미사일 발사땀 필요한 조치 취한다”(3/30, 아사히신문)

- 류우익 통일부장관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고 아사히신문이 31일 보도
- 이 신문에 의하면 류우익 통일부장관은 인터뷰에서 북한이 미사일 실험으로 보이는 위성을 발사할 경우 “국제사회의 협력을 얻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 그는 ‘필요한 조치’와 관련 “모든 가능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다”고 밝혔지만,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문제를 제기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음.

● 北조평통 “南총선서 이명박 심판해야”(3/31, 조선중앙통신)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31일 “남조선 인민들은 온갖 불행과 재앙의 화근인 이명박 역적무리를 단호히 심판해야 할 것”이란 내용의 보도를 발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 조평통은 서기국 보도를 통해 “지금 남조선에서 국회의원 선거가 박두해 오면서 민주개혁세력과 보수세력 사이의 대결이 더욱 격렬해지고 있다”며 “역적패당은 저들에게 불리한 선거국면을 역전시켜 추악한 잔명을 부지하기 위해 비열한 북풍조작 책동에 매달리고 있다”고 비난

기타 (대남)

-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개막에 대해 “국제적인 반공화국 핵공조”라고 지속 선동 비난(3.26, 우리민족끼리/국제적 망신을 부르는 전쟁소동)
- 통일부 장관의 對北발언(실패한 사회주의 독재국가)에 대해 “북남관계를 완전히 결판낸 자의 파렴치한 낫두리” 등으로 비난(3.29,우리민족끼리/본성을 더욱 명백히 드러낸 대결광)
- ‘北 장거리미사일’ 발사 지적(도발이자 위협 등)에 대해서도 “민족의 감정을 떠난 로봇인간”이라고 南 인터넷 글 인용 비난(3.29,우리민족끼리/새로 붙은 별명 인간 로봇)

4.01-4.08

4월
1주차

1. 대내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군사
- 라. 사회문화

2. 대외

- 가. 일반
-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1 대내

가. 정치

● 北 시·도 당대표회 행사 마무리(4/1, 조선중앙통신)

- 북한 노동당이 자강도, 황해남도, 평안북도, 강원도, 나선시 당대표회를 열어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당대표자회 대표로 추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전했다.
- 이로써 북한은 특별시를 포함한 모든 시·도에서 당대표회를 열어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당대표자회 대표 선출을 마쳤으며, 김 부위원장은 이미 평양시를 비롯한 주요 시·도의 당대표자회 대표로 추대돼 있음.
- 노동당 규약에는 당 대표자회에 참가할 대표자를 차하급 당 조직의 대표회에서 선출하도록 돼 있음.

● 김일성 100회 생일기념 ‘국제축전’ 11일 개막(4/1,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을 기념하는 ‘국제축전’이 백두산과 평양에서 11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
- 통신은 “축전기간 만경대 고향집 방문 및 기념식수, 백두산 밀영고향집 방문, 김일성 주석 탄생 100돌 기념 국제연환대회, 백두산 3대장군 위대성도서·흙모작품전시회 및 국제문예작품 현상모집 시상식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벌어지게 된다”고 밝혔다.
- 통신은 이 축전에 국제준비위원회와 지역별, 나라별 준비위원회 대표, 김일성과 김정일 접견자와 그 후손, 세계 여러 나라의 명망가 등 수백명의 외국대표가 참가한다고 전했다.

● 北 당대표자회 11일 평양서 열린다(종합)(4/2, 조선중앙통신)

- 북한 노동당이 제4차 당대표자회를 우리의 총선 당일인 11일 평양에서 열기로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전함.
- 북한은 지난 1일까지 특별시를 포함한 모든 시·도에서 당대표회를 열어 김 부위원장을 당대표자회 대표로 추대하는 등 지역·일꾼 대표 선출을 마쳤는데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노동당 제4차 대표자회 대표자선거를 위

한 조선인민군, 도(정치국), 시(구역), 군 당대표회들이 성과적으로 진행됐다”며 “조선인민군, 도 당대표회들에서는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를 4차 당대표자회 대표로 높이 추대했다”고 밝힘.

● 北 공작책임자, 조총련 청년조직 지도(4/2, 산케이신문)

- 북한의 대외공작 기관 책임자가 재일 조선총련의 청년 정치조직에 김정은에게 충성하도록 직접 지시했다고 산케이신문이 2일 보도함.
- 이 신문에 의하면 조선총련 산하 정치조직인 ‘재일본조선청년동맹’의 간부 등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탄생 70주년을 맞아 지난 2월 평양을 방문했을 때 북한 노동당의 대외공작기관인 225국(구 대외연락부)의 강주일 부장이 “정은 동지의 위대성을 강연이 아닌 일대일로 개별적으로 교육하라”고 지시함.

● 김정은, 스위스 학교 시절 결석 잦고 적응못해(4/2, 르 마탱)

-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990년대 스위스에서 2년 동안 다닌 국제학교에서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스위스 일간지 ‘르 마탱’이 2일 보도함.
- 이 신문은 지난 1일자 일요판에서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 김정은이 스위스 베른 국제학교 시절 첫 해에 75일, 두 번째 해엔 105일을 결석했다면서 이같이 전함.

● 올해 ‘4월축전’도 예년보다 대규모(4/3, 연합뉴스)

- 북한이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15일)을 맞아 여는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이 예년보다 배 이상 규모로 진행될 것이라고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3일 전함.
- 조선신보는 “제28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이 11일부터 19일까지 평양에서 열린다”며 “김 주석 탄생 100돌을 맞는 해에 진행되는 이번 봄 축전은 규모와 내용에서 종전과 많이 차이 난다”고 소개함.

● 北, 청명(淸明)을 공휴일로 정한 듯(4/4, 연합뉴스)

- 북한이 24절기 중 하나인 청명(淸明)을 공휴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4일 연합뉴스가 전함.

- 청명인 4일 북한 조선중앙TV는 오전 9시부터 방송을 시작했는데 조선중앙TV는 평일에는 오후 5시부터, 가끔 낮 12시 또는 오후 3시부터 방송을 하지만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오전 9시 방송을 시작하였고, 조선중앙통신도 이날 오전 9시 현재까지 기사를 한 건도 타전하지 않고 있음.

● **김정은, 美 ‘푸에블로’호 나포 해군부대 시찰(4/6,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5일 인민군 해군 155군 부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전함.
- 조선중앙통신은 “이곳 군부대는 김일성 동지께서 27차례, 김정일 장군님께서 29차례 다녀가신 부대”라며 “(김 부위원장은) 조국해방전쟁(6·25전쟁)시기 주문진해전에서 단 4척의 어뢰정으로 미제의 중순양함 ‘볼티모’호를 격침하고 평화시기 우리의 영해에 침범한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를 나포해 세상을 놀래운 군부대의 자랑스런 공공을 평가했다”고 소개함.
- 김 부위원장의 해군부대 시찰에는 김원홍 인민군 총정치국 조직부국장, 현철해 대장, 리두성, 리종무 중장 등이 수행

● **北 ‘강성국가’ 상징 자강도 희천발전소 완공(4/6,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강성국가 건설의 상징’으로 강조해온 자강도 희천발전소(수력발전소)를 완공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보도
- 통신은 “희천1호발전소와 희천2호발전소 준공식이 5일에 각각 진행됐다”며 “건설자들은 10년 이상 걸려야 한다던 발전소 건설을 단 3년 동안에 끝냈다”고 밝혔다.
- 청천강 상류에 있는 이 발전소는 유역변경식 발전소로, 발전용량은 30만 kW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2001년 3월 착공됐지만 2009년 3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건설현장을 처음 찾아 ‘강성대국 원년인 2012년까지 완공하라’고 지시한 이후 공사속도가 빨라졌음.
- 북한은 김 위원장 사망 이후에는 ‘유훈사업’으로 간주해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4월15일) 이전 완공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에 매진해왔음.
- 준공식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영림 내각 총리,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최태복, 태종수 노동당 비서 등이 참석

● 김일성 100회 생일맞아 北곳곳서 준공식(종합)(4/8,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 “그이(김정일)의 최대의 목표는 수령님(김일성) 탄생 100돌이 되는 2012년에 기어이 사회주의 강성국가의 대문을 열어제끼는 것이었다”
-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 2월12일자에 실린 글이다. 김일성 주석의 100회 생일(4월15일)을 맞아 ‘강성국가의 대문’을 여는 것이 북한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인 셈임.
- 북한은 ‘강성국가 선포’를 위해 장거리 로켓인 ‘광명성 3호 위성’ 발사와 함께 전역에서 발전소, 주택, 공장 등 대규모 건설공사의 완공을 서둘러왔음.
- 북한은 또 개성시 박연폭포 주변 천연바위에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 동지, 수령님 탄생 100돌 기념, 2012년 4월15일’이라는 대형문구를 새겨 넣었다. 한 글자의 높이가 4~5m이고 총 길이는 37m에 달하는 이 ‘기념 글밭’ 준공식도 5일에 열렸음.
- 노동신문은 8일 “평양시 일꾼들이 수령님 탄생 100돌을 맞으며 만경대혁명사적지를 더욱 훌륭히 꾸렸다”며 “(만경대 생가 주변의) 남리부락이 더욱 현대적으로 꾸러졌으며 만경대유회장도 봉사준비를 끝냈다”고 전했다. 김 주석 생가 주변 리모델링이 사실상 완공됐음을 뜻함.
- 전날 조선중앙통신은 “(평안북도) 대계도간석지 내부망공사가 성과적으로 끝났다”며 “이 공사가 완공됨으로써 한 개 군 면적과 맞먹는 부침 땅에서 농사를 안전하게 짓고 양어와 양식도 할 수 있는 담보가 마련됐다”고 소개
- 또 조선중앙방송은 5일 “수도(평양)의 중심부에 있는 바닷물 공급소로부터 시 안의 각 수원지와 중앙동물원 수족관, 능라도에 일떠서는 곱등어(돌고래)관까지 바닷물 수송관을 모두 연결하는 자랑찬 성과가 이룩됐다”고 소개
- 그 전날 노동신문은 “618시멘트공장이 3일 준공됐다”며 “김일성 동지의 탄생 100돌과 4차 당대표자회에 드리는 자랑찬 노력적 선물”이라고 소개

● 北지도부 만경대 김일성 생가 방문(4/8,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일성 주석의 100회 생일(4월15일)을 앞두고 고위간부들이 8일 김 주석 생가를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통신은 “김일성 동지 탄생 100돌에 즈음해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영림(내각 총리), 리영호(인민군 총참모장)를 비롯한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꾼과 당, 근로단체, 성기관 일꾼들이 8일 만경대(김 주석 생가)를 방문했다”며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꾼들은 만경대 옛집 방문을 기념해 사진을 찍었다”고 전했다.

김정은동향

- 4/2, 김정은 부위원장, 자강도 전천군상업관리소 소장 정춘실에게 70회 생일상(4.2,중통)
- 4/4, 김정은 부위원장, 동해안전방초소 려도방어대 시찰(4.4,중·평방·중통)
 - 김원홍·현철해(대장)·리두성·리종무(중장) 등 동행
- 4/6, 김정은 부위원장, 조선인민군 해군 제155군부대 시찰(4.6,중통·중방)
 - 김원홍·현철해(대장들), 이두성·이조우(중장들) 동행

기타 (대내 정치)

- 자강도·황해남도·평안북도·강원도·라선시 당대표회, 김정은 부위원장을 당대표자회 대표로 추대(4.1,중통)
- 김일성 생일 100돌 기념 국제축전(국제준비촉·조선준비촉 공동), 4.11~16 백두산과 평양에서 진행(만경대고향집 방문 등) 예정(4.1,중통·중방)
- 김일성 주석 생일 100돌을 △유훈 관철, △제4차 黨대표자회(4.11)를 계기로 김정은 영도체계 확립, △‘광명성-3호’의 성과적 발사, △대상공사 완공으로 ‘강성부흥의 전성기를 펼쳐나가는 민족사적 대경사로 맞이하자’고 독려(4.3,중통·노동신문/사설, 아버지 수령님의 탄생 100돌을 민족사적 대경사로 맞이하자)
- ‘제4차 당 대표자회는 혁명과 건설의 일대 전성기를 펼쳐나가는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며 ‘김정은 동지의 힘찬 발걸음에 전진의 보폭을 맞추며 대표자회를 뜻깊게 맞이하자’고 선동(4.5,중통·노동신문·중방/조선노동당 제4차 대표자회를 높은 정치적 열의 속에 뜻깊게 맞이하자)
-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4.9) 19돌 관련 동정
 - 직맹 일꾼들과 직맹원들의 연구토론회, 4.5 중앙노동자회관에서 진행(4.5,중통)
 - 농업근로자들의 웅변모임, 4.5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에서 진행(4.5,중통·중방)
 - 청년학생들의 웅변모임, 4.5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4.5,중통·중방)
- 北, 4.5 ‘세계보건의 날’ 행사 평양에서 진행(4.5,중통·평방)
- 김일성 주석 생일(4.15) 관련 동정
 - 지식인들에 대한 국가학위학직 수여식, 4.3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4.3,중통)
 - 김일성 주석 생일 100돌 기념 국제축전 선전화 제작(4.3,중통)
 - 김정일 저작(인민대학습당은 위대한 수령님의 고귀한 유산이며 전민학습의 대전당이다) 발표 5돌 기념 연구토론회, 4.3 평양에서 진행(4.3,중통)
 - 北, 주체사상세계대회 선전화들 제작(4.5,중통·평방)
 - 인민소비품전시회, 4.5 평양에서 개막(4.5,중통)
 - 중화유상연합회 중화유상총상회, 김정은 부위원장에게 선물(4.5,중통·평방)
- 희천1호, 2호발전소 준공식, 4.5 최영림(내각총리/준공사) 참가하 촉촉 진행(4.6,중통·중방)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4.1), △ 희천발전소 설계에 김일성상 수여 △ 완공에 기여한 5만 7,872명의 군인, 건설자, 일꾼들, 설계가들에게 표창 △ 건설자 7만 8,339명에게 희천발전소건설기념메달 수여(4.6,중통·중방)
- 김일성 주석 생일(4.15) 100돌 관련 동정
 -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 발표일(1993.4.7) 즈음 조국통일 업적 선전(4.6,중통)
 - 김일성의 영화촬영거리 현지지도 30돌 기념보고회, 4.5 진행(4.6,중방)
 - 전국 태권도축전 개막식, 4.6 김경호(조선태권도위원회 위원장) 등 참가하 태권도전당에서 진행(4.6, 중통)
 - 영화상영순간 개막식, 4.6 김기남 등 참가하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4.6,중통)
 - 국가우표발행국, 김 주석 생일 기념 우표 발행(4.6,중통)
 - 도서 ‘불세출의 위인 김일성 동지’ 전5권 출판(4.6,중통)
 - 김영남·최영림·이영호를 비롯한 당·국가·군대의 책임일꾼들 등, 4.8 만경대 방문(4.8,중통)
 - 제28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선전화들 출판(4.8,중통)
- ‘광명성-3호’ 발사 등 “우리는 새로운 주체 100년대의 문을 연다”며 김정은의 “조선의 전진속도는 천리마에 우주를 더한 광명성속도로 될 것”이라고 강조(4.7,중방·노동신문/정론, 이 조선 무궁강대하라)
- 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3.29 김정일 위원장에게 ‘김일성훈장’(정령 제2290호)과‘김일성상’(정령 제2291호)을 수여(4.9,중통·중방)

나. 경제

● 美대북지원 절반 이상 식량..약 8억달러어치<CRS>(4/2, 연합뉴스)

- 1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대북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제네바 합의’가 체결된 이듬해인 1995년부터 미국이 북한에 지원한 식량, 에너지, 의약품 등은 금액으로 따져 총 13억1천375만달러(약 1조4천870억원)로 집계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미국의 대북지원은 제1차 핵실험이 있었던 지난 2006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지속적으로 이뤄졌으며, 지난해에도 홍수피해 복구 차원에서 비정부기구(NGO) 등을 통해 90만달러의 의약품 등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됨.
- 항목별로는 식량지원이 총 7억815만달러(225만8천164t)로 전체의 53.9%를 차지, 가장 많았으나 지난 2009년 3월 북한이 구호단체에 대해 떠날 것을 요구한 이후에는 3년째 전면 중단된 상태이며 6자회담 합의에 따라 1억4천600만달러 상당의 증유가 지원됐고, 북한의 경수로 발전소 건설을 위해 설립됐던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관련 비용으로 4억370만달러, 의약품 등 각종 생필품 지원에 1천90만달러가 각각 투입됨.

● EU, 북한 고려항공 유럽 운항제한 조치 유지(4/3, 연합뉴스)

- EU 집행위는 3일 발표한 '유럽 항공사 안전 명단' 19차 개정판에서 고려항공을 '부칙(附則) B' 등급에 해당하는 항공사 명단에 종전처럼 포함시켰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EU는 유럽을 운항하는 항공사의 항공기 안전 관리·감독 실태를 평가해 전면적으로 취항을 금지하는 '부칙 A' 등급과 엄격한 조건 하에서 제한적으로 허가하는 '부칙 B' 등급 항공사로 각각 나눠 규제하고 있는데 고려항공은 지난 2006년 3월 EU가 취항 규제 항공사 명단을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줄곧 '부칙 A등급'을 받아 오다 지난 2010년 3월 처음으로 '부칙 B 등급'을 받음.
- 이번 개정에서도 '부칙 B등급'을 받음에 따라 고려항공의 항공기 가운데 러시아제 TU-204 항공기 2대를 제외한 나머지는 계속 EU 회원국 취항이 금지됨.

● 日, 대북 제재 1년 연장...수출입 금지(4/3, 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3일 오전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 주재로 열린 내각회의에서 오는 13일로 만료되는 북한에 대한 제재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이에 따라 북한에 대한 수출입이 전면 금지되며, 북한 선적의 모든 선박 입출항도 금지됨.

● WFP, 대북 긴급식량지원 석달 연장(4/4, 자유아시아방송(RFA))

-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은 올해 3월 만료 예정이던 대북 긴급식량지원 사업을 3개월 더 연장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4일 전함.
- WFP의 나나 스카우 북한 지원 담당관은 "7월부터 새로운 대북식량지원 사업이 시작된다"며 "신규 지원사업을 도입하는 데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기간에 지난해부터 진행하던 긴급지원 사업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힘.

● 北 이상저온으로 농업생산 차질 우려(4/8, 조선중앙통신)

- 지난 2일 오전 3시부터 3일 오후 3시까지 강원도와 함경남도, 자강도, 양강도에 눈이 많이 내려 적설량이 16~24cm에 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전했다.

- 통신은 지난 6일 “최근 조선의 전반적 지방에서 때아닌 눈이 내리고 센 바람까지 불면서 기온이 평년보다 낮아지는 등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났다”며 “앞으로 저온현상이 지속되면 올해 농업생산에 후과가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음.

다. 군사

● 北, 오는 15일 군사퍼레이드 예정(4/3, 교도통신)

- 북한은 로켓 발사와 일정을 맞추기 위해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당초 계획했던 북한군 창설 80주년 기념일인 4월 25일에서 앞당겨 15일 개최할 예정이라고 일본 교도(共同)통신이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3일 보도
- 이 통신은 “한 국방 무관이 4월 25일로 예정된 군사 퍼레이드를 참관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평양 당국으로부터 일정이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 통신은 북한이 군사 퍼레이드 일정을 바꾼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는데 유럽 및 여타 국가 외교관과 국방 무관들은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지지 표시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보고 군사 퍼레이드 불참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힘.

● 北 미사일, 주말 발사대 설치 완료(4/6, 아사히TV)

- 북한이 이번 주말까지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발사대 설치를 완료할 것이라고 일본의 아사히TV가 6일 보도
- 이 방송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이미 미사일을 발사대에 설치하기 위한 준비를 끝냈다”고 전했으며, 방송은 “주말에 미사일을 발사대에 설치하는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내주 초부터 본격적인 발사 준비를 시작할 전망”이라고 보도
- 니혼TV는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부르는 사실상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3단 로켓 가운데 1단을 발사대에 이미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 이 방송은 위성 분석을 통해 일본 정부가 이런 사실을 확인했으며, 정부 관계자는 “이달 12일 이후의 발사를 위해 북한이 순조롭게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

- 北, 장거리로켓 3단계 장착 모두 완료(종합2보)(4/8, 연합뉴스)
 - 북한이 평북 철산군 동창리 기지에서 장거리 로켓인 ‘광명성 3호’의 1~3 단계 추진체와 탑재물 장착을 모두 완료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 북한은 이와 함께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하기 위한 준비작업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됨.
 - 정부 당국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오늘 1~3단계 추진체는 물론이고 추진체 위에 올릴 탑재물까지 장착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현재 추진체 결합부에 대한 고정 여부를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 이에 따라 북한이 이르면 9일부터 연료 주입에 들어갈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으며, 연료 주입이 2~3일 가량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는 12~13일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음.

라. 사회·문화

- 北 “4월에 금강산 찾는 모든 관광객 환영”(4/1, 조선중앙통신)
 - 북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은 1일 4월에 금강산을 찾아오는 모든 관광객을 환영하며 그들이 관광을 즐기도록 성의와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은 이날 대변인 담화를 통해 “세계의 많은 관광객과 관광업체들이 금강산 국제관광에 적극 참여하려는 의향을 표시하면서 관광신청과 관광계약, 관광시설운영, 투자 등을 제기해 오고 있다”며 “우리의 해당 단위들에서는 관광객의 출입국과 운수수단, 편의보장을 비롯한 모든 준비를 성과적으로 갖춰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 김일성 생일 전후 중국인 평양관광 잠정중단(4/3, 미국의소리(VOA))
 - 북한에서 중요 행사들이 잇따라 열리는 4월15일(김일성 생일) 전후로 중국인의 평양 단체관광이 잠정 중단된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3일 전함.
 - 중국 단둥(丹東)의 금항선국제여행사 등 중국의 북한전문 여행사들은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달 7일부터 20일까지 3박4일 일정의 북한 단체관광이 중단된다고 밝힘.

- 홍콩의 인권단체인 중국인권민주주의정보센터도 지난달 31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북한이 이 기간 중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금지했다고 전함.
- **北 황해남도서 식량부족으로 아사자 속출(4/4, 좋은벗들)**
 - 북한의 황해남도에서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대북인권단체 (사)좋은벗들이 4일 전함.
 - 이 단체 북한연구소의 소식지 ‘오늘의 북한소식’(449호)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 폭우로 홍수피해를 본 황해남도는 농작물 수확량이 전년보다 급감한 상황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급사에 따른 100일 애도기간에 경제활동이 거의 중단되다시피 해 아사자가 나오고 있음.
 - 소식지는 황해남도 도당 책임비서 등이 중앙당에 긴급구호를 요청하는 등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식량 구하기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는데 황해남도의 한 당 간부는 “해외에 나가 있는 대표들에게 ‘먹고 죽지 않을 정도의 식품이면 다 된다’고 긴급지원을 요청했다”며 급박한 식량 상황을 알림.
- **北 김일성 100회 생일 기념우표 발행(4/6,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국가우표발행국이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을 맞아 기념 우표를 발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전했다.
 - 기념우표는 묶음전지 1종, 소형전지 1종, 개별우표 1종으로 이뤄졌으며, 묶음전지는 김주석의 초상화와 부인 김정숙과 함께 한 모습을 형상화한 미술작품을 편집했고, 소형전지는 만경대 고향집을 배경으로 김 주석 부부를 담았음.
- **학생 달랑 한명…북한의 ‘초미니학교’(4/6, 조선중앙통신)**
 - 북한에 학생이 한 명인 학교가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전했으며, 통신이 소개한 학교는 평안북도 앞바다의 수운도분교(分校)로 학생 수가 달랑 한 명, 인근의 랫도분교도 학생 수가 두 명뿐임.
 - 통신은 “신의주로부터 뱃길로 멀리 가야 하는 이곳 두 섬에는 등대원과 그의 자녀가 살고 있다”며 “나라에서는 수운도에 있는 한 명의 학생과 랫도에 있는 두 명의 학생을 위해 독립적인 학교의 기능을 수행하는 분교들을 두고 있다”고 소개했음.

- 통신은 “교구비품과 직관물, 동식물표본 등 교수교양수단들을 잘 갖춘 소학교 분교들에서는 물에서와 똑같이 개학모임과 졸업식이 진행돼 온 나라 인민의 심금을 울려주고 있다”며 새 학기(4월)를 맞아 북한의 교육 정책을 자랑했음.

기타 (대내 사회 문화)

- 김정일 위원장 국방위원장 추대(4.9) 19돌 즈음 기록영화 ‘선군혁명영도로 전환을 마련하시어’, 4.7 김영남·최영림 등 관람下 인민문화궁전에서 상영(4.7,중통·중방)

2 대외

가. 일반

● 北, 美와 비공식 협의서 미사일 발사 고수(4/2, NHK)

- 일본의 NHK방송은 북한과 미국이 독일에서 접촉했지만 북한이 미사일 발사 계획을 굽히지 않았다고 2일 보도함.
- 이 방송은 미국과 북한의 접촉이 독일 동부의 한 도시에서 열린 미국의 싱크탱크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비공식으로 이뤄졌으며 북한에서는 리근 외무성 북미국장이, 미국에서는 토머스 피커링 전 국무차관이 참석했다고 전함.
- 방송에 의하면 이번 접촉은 지난달 31일부터 이틀에 걸쳐 진행됐으며 양측은 북한의 핵 문제와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보이는 인공위성 발사 계획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 美, 北에 ‘위성발사 中·러에 의뢰’ 제안(종합)(4/2, 아사히TV)

- 북한이 ‘광명성 3호’ 발사를 중국이나 러시아에 맡기는 게 어떻겠느냐는 미국의 제안을 거부했다고 일본의 아사히TV가 2일 보도함.
- 이 방송에 의하면 독일에서 북한 측과 비공식 접촉한 미국 측이 다음 달 12~16일 사이 발사가 예고된 위성에 대해 “북한이 어디까지나 위성이라고 주장한다면 발사를 중국이나 러시아에 의뢰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했으나 북한은 이를 거부함.

- 미국 측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는 경우 6자 회담 재개와 식량지원이 불가능하다고 경고했지만, 북한은 이를 수용하지 않음.
- **아세안 정상회의 3일 개막…北로켓 등 논의(종합)(4/3, AP통신)**
 -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가 3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이를 일점으로 개막되어 싱가포르와 베트남 등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이 참여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2015년까지 인구 6억명을 거느린 ‘아시아판 유럽연합(EU)’ 출범을 위한 제반 현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AP통신이 전함.
 - 수린 피츠완 아세안 사무총장은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2일 AP통신에 일부 정상들이 이달로 예정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계획에 우려를 표명할 것이라고 말해 북한 로켓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임을 시사함.
- **日, 대북 제재 1년 연장…수출입 금지(4/3, 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3일 오전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 주재로 열린 내각회의에서 오는 13일로 만료되는 북한에 대한 제재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이에 따라 북한에 대한 수출입이 전면 금지되며, 북한 선적의 모든 선박 입출항도 금지됨.
- **日, 北 위성발사 참관 요청 거부(4/3, 교도통신)**
 -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이 3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에 인공위성 발사 참관 초청장을 보낸 것과 관련 “참석이 적절치 않다는 뜻을 JAXA에 전달했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전함.
 - 그는 “(북한에) 인공위성을 발사하지 말도록 자제를 요구하고 있고, (국민에게) 북한 입국의 자숙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함.
- **比, 北로켓 발사 대비 루손섬 일대 ‘비행금지’(4/3, 연합뉴스)**
 - 필리핀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이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루손섬 동부해역에 이달 12일부터 16일까지 선박과 항공기 운항을 금지키로 했다고 베니토 라모스 민방위청장이 3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日, 北 위성발사편 유엔에 추가제재 요청 검토(4/4, 니혼게이자이신문)**
 - 일본 정부는 북한이 사실상의 미사일 실험인 인공위성을 발사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추가 제재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4일 보도함.
 - 이 신문에 의하면 일본은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할 경우 독자 제재도 검토하고 있지만 이미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안이 마땅치 않다고 보고 유엔 안보리 의장국인 미국과 공조해 북한에 대한 외교 포위망을 강화하기로 함.

- **아세안 정상들, 北로켓 당사국 자제 촉구(종합3보)(4/4, AFP)**
 -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들이 4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제20차 아세안 정상회의를 마치면서 낸 공동성명을 통해 “우리는 모든 당사국이 자제심을 발휘해 한반도의 긴장 고조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AFP통신 등 외신이 전함.
 - 성명은 또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안정을 위해 6자 회담을 조기에 개최할 것을 요구했으며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 중지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와 탄도미사일 기술 관련 발사행위를 금지하는 유엔 결의 1874호를 준수할 것을 촉구함.

- **美 “국제사회에 北위성발사 참관거부 촉구”(4/5, 연합뉴스)**
 - 미국 정부는 4일(현지시간)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계획과 관련, “국제사회에 참관단 파견 등 어떤 대응도 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익명을 요구한 미 국무부 관계자는 이날 북한의 ‘광명성 3호 위성’ 참관 초청과 관련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우리는 어떤 참관단도 북한에 보내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함.

- **北조평통 “평양타격맨 비참한 파멸 안길 것”(4/5, 연합뉴스)**
 -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5일 우리 군의 ‘평양 보복타격’과 ‘광명성 3호 위성’ 요격 발언과 관련, “무모한 군사적 도발시 무자비하고 섬멸적인 타격으로 단호히 징벌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조평통 대변인은 이날 담화를 통해 “최근 남조선은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3호 발사를 걸고 요격이니 뭐니 하며 새로운 군사적 도발을 일으키려는 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괴뢰군부호전광들은 그 누구의 ‘기습공격’과 ‘도발 가능성’을 운운하며 ‘상응포적 타격계획’이라는 것을 세워놓고 ‘평양타격’ 폭언을 쫓아대고 있다”고 비난함.

● 美 “北 미사일 발사 태세 면밀 감시중”(4/6, 연합뉴스)

- 미국 정부는 5일(현지시간)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계획에 대해 “면밀하게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조지 리틀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북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매우 면밀하게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으며 특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 계획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함.

● 재일민단, 北 위성발사 중단 요구 시위(4/6, 연합뉴스)

-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이하 ‘재일민단’)이 6일 오전 북한의 위성 발사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으며, 재일민단과 산하 부인회, 청년회의 간부 약 40여 명은 이날 오전 11시 도쿄 시내에 있는 조선총련 중앙본부 앞에서 북한이 예고한 인공위성 광명성 3호의 발사 중단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음.
- 재일민단은 “북한의 이번 위성 발사는 사실상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여서 재일 한국인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적 행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日 “北 핵·미사일 개발 국제사회에 위협”(4/6, 연합뉴스)

- 일본이 올해 외교청서(한국의 외교백서에 해당)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국제사회 전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일본 정부는 6일 오전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 주재로 내각회의를 열어 외교 활동과 방향을 담은 올해 외교청서를 확정해 발표했다.
- 외교청서는 북한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반해 우라늄 농축활동을 포함한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해왔다”면서 “핵·미사일 개발은 지역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
- 북한의 국내 정세에 대해서는 “경제면에서 여전히 어렵고, 도발 행위에

의해 불안정한 정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분석했으며,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후 김정은 체제에 대해 “예단을 불허한다”면서 “향후 주시해 나가겠다”고 했음.

● 北 “광명성 3호 취재차 외신기자들 방북”(4/7,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장거리로켓인 ‘광명성 3호 위성’ 발사를 참관, 취재하려고 여러 나라의 방송, 통신, 신문기자들이 6~7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 통신은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초청으로 미국의 AP통신과 CNN, NBC, 일본 교토통신과 NHK, 프랑스 AFP통신, 영국 로이터통신과 BBC, 독일 ARD, 스웨덴 STV방송, 스위스 RTS방송, 베트남 중앙TV방송, 남아프리카의 ETV방송 등의 기자들이 평양을 찾았다고 밝혔다.
- 북한은 지난달 17일 ‘광명성 3호 위성’ 발사 시 전문가와 기자들을 초청한다고 밝혔지만 미국, 일본, 러시아 등은 정부 차원의 전문가 파견을 거부했음.

● 日방위성, 北미사일 낙하뎀 80% 이상 요격 확신(4/8, NHK방송)

- 일본 방위성이 북한의 미사일이 자국 영토에 떨어질 경우 요격 명중률 80% 이상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 8일 NHK방송 등 현지 언론에 의하면 일본 방위성의 와타나베 슈(渡邊 周) 부대신(차관)은 7일 방문지인 오키나와(沖縄)에서 기자들에게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낙하할 경우의 요격 태세와 관련 “명중률 80%를 넘는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일본은 북한이 예고한 장거리 탄도미사일인 위성 발사에 대비해 오키나와 일대와 수도권의 7곳에 패트리엇 미사일을 배치하는 한편 동중국해와 한국의 동해 쪽 등 3개 해역에 SM3 미사일을 탑재한 이지스함을 파견했음.

● 北, 작년 여름부터 인공위성 발사 주장(4/8, 아사히신문)

- 미국의 에번스 리비어 전 국무부 부차관보가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작년 여름부터 주장했다고 아사히신문이 8일 보도
- 이 신문에 의하면 리비어 전 국무부 부차관보는 인터뷰에서 미국과 북한이 핵 문제 등과 관련한 협의를 본격화한 작년 여름부터 북한은 ‘국가의

권리'로서 인공위성 발사를 일관되게 주장해왔다고 밝혔음.

- 리버어 전 국무부 부차관보는 국무부에서 퇴직한 뒤에도 북한 외무성 고위 당국자가 참여하는 국제회의의 운영에 관여하는 등 비공식적으로 북한과 접촉을 계속해왔음.

● 日 “北, 납치자 송환뎀 책임 안물겠다”(4/8, 아사히신문)

- 일본 정부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직후 중국에 일본인 피랍자를 송환할 경우 김정은 체제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을 북한에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아사히신문이 8일 보도
- 이 신문에 의하면 일본 외무성의 야마구치 쓰요시(山口壯) 부대신(차관)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직후인 작년 12월 하순 베이징을 방문해 우다웨이 6자회담 중국 수석대표와 회담하면서 이런 의사를 표명했음.

● 日, 北 미사일 발미 ‘은근슬쩍’ 무장 강화(4/8, 연합뉴스)

-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을 빌미로 은근슬쩍 무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예외적으로 오키나와(沖縄)에 자위대를 배치하는 등 동중국해 쪽의 군사력을 보강했다고 연합뉴스가 8일 전함.
- 이는 중국의 해양 진출을 견제하기 위해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제도가 있는 동중국해의 방위력을 자연스럽게 강화하려는 저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

● 中, 北 미사일 안보리 결의위반 인식 불투명(4/8, NHK방송)

- 일본 언론은 중국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인식을 명확히 하지 않고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는 점에 주목했음.
- NHK방송은 8일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일본 외교장관은 모두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발사를 강행할 경우 상임 이사국인 중국도 각국과 보조를 함께 해 북한에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음.

기타 (대의 일반)

- '한국전은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았기에 계속 진행중이고 北은 힘으로 미제의 전쟁도발을 억제하며 평화협정(美北교섭, 6자회담)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 및 '한반도 비핵화와 美北관계 정상화, 통일을 위한 평화체제 구축이 목표'라고 강조(4.2,조선신보/조선전쟁은 계속중)
- '광명성-3호' 발사 발표 후 '미국의 도전적 행동(결의 위반, 이지스함 출동 등)으로 조선반도 정세가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며 '모든 것이 미국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엄포(4.6,중통·노동신문/새전쟁 도발을 노린 무모한 망동)
- '광명성-3호' 발사 참관·취재를 위한 미국 AP통신과 CNN·NBC방송 및 일본 교도통신·NHK방송 등 외신기자들, 4.6-7 평양 도착 보도(4.7,중통·중·평방)
- 日 '2012외교청서'에 수록된 '독도영유권' 주장 책등은 '南보수집권세력의 친인매국행위와 對日 저자세외교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며 총선에서의 단호한 심판 촉구(4.8,우리민족끼리/각성을 촉구하는 독도강탈책등)
- 여러 나라 우주과학기술부문 전문가들과 기자들, 4.8 서해 위성발사장 참관(4.8,중통·평방)

나. 6자회담(북핵)

● IAEA “北에 핵사찰 추가정보 요청”(4/3, 연합뉴스)

-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2일(현지시간) 북한의 최근 핵사찰 초청과 관련, 방북 이전에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북측에 전달한 것을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그레그 웹 IAEA 대변인은 이날 “IAEA는 지난달 30일 북한에 (초청에 대한) 답변을 보냈다”면서 이같이 설명했으며 방북 시기와 방북단의 구성 및 격(格), 기술적인 문제 등이 방북 이전에 북한 당국과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함.
- 웹 대변인은 최근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계획이 핵사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피한 채 “무조건 비행기에 올라타서 갈 수는 없는 문제”라면서 “적절한 준비작업에 필요한 기술적인 요인이 많이 있다”고 말함.

● 日 6자대표 “北로켓 대응 비상조치 논의”(4/3, 연합뉴스)

-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2일(현지시간) “북한이 계획하고 있는 장거리로켓 발사가 현실화됐을 경우에 단행할 ‘비상조치(contingency measures)’에 대해 미국측과 논의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북핵 6자회담 일본측 대표인 스기야마 국장은 이날 미국 국무부에서 글

린 데이비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회담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로켓을 발사할 경우 유엔 안보리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냐’는 연합뉴스의 질문에 이같이 밝혀 사실상 이에 대한 양국간 공감대가 있었음을 시사했으나 이와 관련한 미 당국자들과의 구체적인 논의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음.

● 北 ‘광명성 발사’ 제재시 3차 핵실험 시사(4/4, 조선신보)

-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4일 ‘도발에는 강력한 대응조치’란 제목의 기사에서 “광명성 3호 발사를 시비질하는 미국의 언동은 시계바늘이 (2009년) ‘4월 이후’로 옮겨지도록 상황을 유도하는 것이나 같다”며 “2009년 5월에는 조선(북한)이 유엔 안보리 제재에 대한 자위적 조치로서 두 번째의 핵실험을 단행했었다”고 강조함.
- 조선신보는 “조선은 식량지원이 2·29(북미) 합의에 포함된 이상 그것을 취소한다는 것은 합의의 핵심사항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명백히 지적하고 있다”며 “조미 합의가 깨지면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우리농 농축활동을 임시중지하기로 한 조선 측의 공약도 취소될 수 있다”고 위협함.

● 北, 로켓 발사 뒤 3차 핵실험 강행 움직임(4/8, 연합뉴스)

- 북한이 오는 12~16일 장거리 로켓 발사를 한 뒤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8일 알려졌다.
- 정보당국의 한 관계자는 이날 “북한이 과거 2차례 핵실험을 실시한 함북 길주군 풍계리에서 제3차 핵실험을 은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음.
- 이 관계자는 “최근 촬영된 상업위성영상을 근거로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내 기존 2개의 핵실험 갱도 외 새로운 갱도를 굴착하고 있으며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음.
- 실제로 지난 1일 촬영된 美 상업위성인 ‘퀵버드’ 촬영 영상을 보면 풍계리 갱도 입구에서 토사더미가 식별됐으며, 이 토사는 다른 지역에서 반입된 것으로 지난달부터 그 양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

● 日방위성 차관 “北 미사일 발사 뒤 핵실험 가능성”(4/8, 후지TV; 마이니치신문)

- 일본의 와타나베 슈(渡邊周) 방위성 부대신(차관)이 8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후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음.
- 후지TV에 의하면 와타나베 부대신은 이날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해 “과거의 예를 보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후 핵실험도 실시했다”면서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음.
- 그는 북한의 의도와 관련 “인공위성이 아니라 핵탄두라면 어떤 것이냐를 보여줌으로써 체제 유지를 주변국이 인정토록 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음.
- 미사일을 발사한 경우 북한에 대한 제재와 관련 “유엔에서 일본이 이니셔티브를 잡고 대응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편, 마이니치신문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예고한 첫날인 오는 12일 위성을 발사하는 경우 일본 정부는 주요 8개국(G8) 외교장관 회의에서 긴급 비난 성명 채택을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 기타 (6자회담(북핵))

- “광명성-3호’ 발사계획을 철회하는 일은 없다”며 韓美日 등 유관국들의 발사 문제제기時(식량지원 중단, 요격 등) ‘핵실험 등 강경대응 불사’ 표명(4.4,조선신보/광명성-3호, 초점은 발사 후 유관국들의 행동)
- 조미합의(*식량지원 등)가 깨지면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발사, 우라늄농축활동을 임시중지하기로 한 조선측의 공약도 취소될 수 있음.

3 대남

● 北민화협 “박근혜패당 총선서 심판해야”(4/6, 조선중앙통신)

- 북한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는 6일 “남조선 각계층은 박근혜와 그 패거리에 속지 말아야 하며 이번 선거를 통해 보수 역적패당을 기어이 심판해야 한다”고 선동했음.
-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민화협 대변인은 이날 담화를 통해 “박근혜는 지난 2002년 평양을 방문해 제 입으로 6·15공동선언을 지지한다고 했다. 화해, 협력을 운운하며 마치 북남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할 듯이 수선을 떨고 자기를 도와달라고 간청까지 했다”며 박근혜 새누리당 중앙선대위원장의 방북 당시 발언을 전했다.

● 李대통령, 美 공화당 정보특위의원단 접견(4/6, 연합뉴스)

- 이명박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미국 상·하원 정보특위 공화당 의원단을 접견하고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이 대통령과 미 의원단은 북한이 로켓을 발사할 경우 영변의 우라늄 농축 시설 가동 중단과 미국의 대북 영양지원을 골자로 한 ‘북·미 2·29 합의’를 훼손한 것으로 규정하고, 한미 공조를 기반으로 국제사회에서 공동 대처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 이 대통령은 미 의회가 한미 동맹 발전과 한반도 안보 유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을 적극 지원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음.

기타 (대남)

- ‘2012 핵안보정상회의’ 준비 및 ‘북 천안함 폭침’ 2주년 행사(안보태세 점검·추모식 등)를 “북풍을 조작하여 총선에 써먹기 위한 술책”이라고 지속 비난 선동(4.1, 평방·노동신문/대가를 치르게 될 너절한 모략소동)
- 「조평통」 서기국 백서(4.2), ‘이○○패당이 남북관계 파탄과 정세악화의 책임을 넘겨씌우고 대결 정책을 정당화하려고 있다’고 비난하며 ‘최고존엄까지 모독한 역적패당과 상대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4.2, 중통)
 - ‘북남관계를 최악으로 몰아넣은 대결집단’ 題下로도 지난 4년간의 남북관계의 장애가 조성된 데 대한 책임 전가(4.2, 우리민족끼리)

- 우리 정부의 '北 위성 발사는 합의 위반'(중대 도발, 미사일 발사설 등) 언급을 '남북대결을 최악의 상태로 몰아가 「총선」 정세를 역전시키려는 행위'라고 비난 지속(4.3,중통·노동신문/본전도 찾지 못할 양탈질)
- 「조평통」 대변인 담화, 4.5 국방부장관의 '서울이 공격받으면 평양을 보복타격', '광명성-3호 요격' 발언에 대해 '위성발사체 잔해물에 대한 요격과 회수놀음을 벌린다면 즉시 무자비하고 섬멸적인 타격으로 징벌할 것'이라고 위협(4.5,중통·평방)
- 조선적십자회 중앙위, 4.6 '남북간 인도주의 사업 파탄 책임 전가' 상보 발표(4.6,중통)
- 현인택 前 통일부장관의 '北 장거리 로켓 발사는 계산된 전술' 발언을 비난하며 '아무리 反北 적대세력들이 모지름을 써도 우리의 위성은 우주를 치뚫게 될 것'이라고 엄포(4.6,우리민족끼리/쥐굴에 숨어있는 산 송장의 비명소리)
- 北 '조국통일연구원', 4.7 언론들과 인터넷상의 우리 정부 여당의 정치·경제문제와 외교 및 對北 정책 등 비판 글 등을 발췌 "남조선민심백서"라고 발표 선동(4.7,중통)

4.09-4.15

4월

2주차

1. 대내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군사
- 라. 사회문화

2. 대외

- 가. 일반
-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1 대내

가. 정치

- 北 ‘태양절(4월15일)’ 앞두고 김정일에 김일성훈장(4/9, 조선중앙통신)
 -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정령을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김일성훈장’을 수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
 - 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는 주체혁명 위업을 즐기차게 전진시켜 태양민족 100년사를 승리와 영광으로 빛내주시고 선군 조선의 강성변영을 위한 만년토대를 마련해주신 김정일 동지께 수령님(김일성) 탄생 100돌을 맞으며 김일성훈장을 수여한다”고 전했다.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는 같은 날 김 위원장에게 ‘김일성상’도 수여함.

- 평양에 김일성·김정일 대형 모자이크벽화(4/10,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영정을 형상화한 모자이크 벽화가 평양 장대재 언덕에 건립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함.
 - 준공식에는 최영림 내각총리, 김기남 노동당 선전비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문경덕 평양시당 책임비서 등 간부와 시민 6만여 명이 참석

- 北김정은, 인민극장·미술전시회장 시찰(4/10, 연합뉴스)
 -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완공을 앞둔 인민극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함.
 - 통신은 김 부위원장이 극장을 둘러보고 “아버이 장군님(김정일)께서 10여 년 전부터 구상해 왔고 생의 마지막 시기에도 특별한 관심을 가졌던 극장이 훌륭히 일떠섬으로써 장군님의 유혼을 관철할 수 있게 됐다”며 극장을 건설한 군인건설자들의 공로를 평가했다고 전함.
 - 통신은 이날 김 부위원장이 새로 건설된 ‘국가산업미술중심’에서 진행될 김 주석 100회 생일 기념 국가산업미술전시회장도 둘러봤다고 전했으며 시찰에는 리재일, 박봉주 당 제1부부장 등이 수행함.

- **北 당대표자회서 김정일 ‘영원한 총비서’ 추대(4/11, 조선중앙통신)**
 - 북한 노동당이 11일 평양에서 제4차 당대표자회를 열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영원한 당 총비서로 추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北, 김정은 노동당 1비서 추대…당대표자회(종합2보)(4/11, 조선중앙통신)**
 - 북한 노동당이 11일 평양에서 제4차 당대표자회를 열어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당 제1비서로 추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노동당 제4차 대표자회는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김정은 동지를 노동당 제1비서로 높이 추대하기로 결정했다”며 “김정은 동지를 노동당 제1비서로 추대한 것은 전체 당원과 인민군 장병, 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의 표시”라고 밝힘.

- **김정은, 당대표자회 마치고 금수산궁전 참배(4/11, 조선중앙TV)**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11일 4차 당대표자회 참가자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함.
 - 김 부위원장의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에는 고모인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 외에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영림 내각총리, 최룡해 인민군 차수, 리영호 인민군 총참모장 등 당과 군대의 고위간부들이 함께함.

- **北김정은 당군사위원장·정치국상무위원 겸임(4/11, 조선중앙통신)**
 - 북한 노동당이 11일 평양에서 열린 제4차 당대표자회에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를 당 정치국 상무위원,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전함.
 - 통신은 “노동당 규약과 노동당 최고지도기관 선거세칙에 따라 노동당 제1비서 김정은 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정치국 상무위원,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되셨음을 선포했다”고 밝힘.
 - 통신은 당대표자회에서 당규약 개정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는데 개정된 당규약에 따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영원한 총비서’이고, 노동당은 ‘김일성·김정일의 당’이며, 제1비서직을 신설하되 1비서는 당의 수반으로 당을 대표함.

● **김정일, 核·미사일·생화학무기 개발 유언(4/12, 연합뉴스)**

- 작년 12월 급사한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마지막 유언으로 남겼다고 일본 주간지 슈칸분순(週刊文春)이 고위 탈북자의 말을 인용해 12일 보도했다고 연합뉴스가 12일에 전함.
- 잡지는 이날 최신힌을 통해 김정일이 유훈에서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생화학무기를 계속 개발하고 확충하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절대로 방심하지 마라”고 지시했다고 전함.
- 잡지에 따르면 김정일의 유훈은 “우리는 미국과 심리적 대결에서 승리해야 한다. 정당한 핵보유국으로 당당히 일어섬으로써 우리는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경제발전을 위한 외부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제재를 해제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함.
- 또한 유훈에서 김정일은 최대 맹방인 중국에 대해 “지금 우리와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지만 장래에는 가장 경계할 필요가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며 “역사적으로 중국이 우리나라에 어려움을 강제해온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주의하라... 중국에 이용당하는 것을 피하라”고 당부하기도 함.
- 아울러 김정일은 후계자인 아들 김정은을 떠받칠 간부로서 “노동당에선 김경희와 장성택, 최룡해, 김경옥을, 군에선 김정각과 리영호, 경제 분야에서는 최영림과 김창룡 등”을 거론했고 “당 군 보위사령부를 비롯한 중추기관이 김정은의 안전과 안녕을 목숨을 바쳐 지킬 것”을 명령함.

● **평양 만수대에 김정일 대형동상 제막(4/13, 조선중앙TV)**

- 북한 평양 만수대 언덕에서 13일 오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대형 동상 제막식이 열렸다고 조선중앙TV가 생중계함.
- 김 위원장의 동상은 김일성 주석의 동상과 나란히 만수대 언덕에 세워졌으며, 동상 제막식에는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영림 내각총리,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리영호 총참모장 등 당·정·군의 고위간부와 수십만명의 평양시민이 참석

● **北,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 신설추대(종합)(4/13,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13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5차회의를 열어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를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추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최고인민회의는 지난해 12월17일 사망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추대
- 통신은 “최고인민회의 12기 5차회의에서는 김정은 동지를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했다”며 “김정은 동지를 공화국의 최고 수위에 높이 모신 역사적인 이 시각 최고인민회의 전체 참가자들은 김정은 동지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렸다”고 전했다.
- ‘공화국의 최고 수위’라는 표현은 국방위 1위원장이 사실상 북한의 최고 지도자임을 밝힌 것으로 해석되며, 이로써 북한의 3대 세습은 완성됐고 당·정·군을 아우르는 ‘김정은 1기 체제’가 공식 출범했음.
- 앞서 노동당은 11일 제4차 당대표자회를 열어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최고사령관직만 갖고 있던 김 1비서를 당 제1비서, 중앙군사위원장으로 추대했음.

● 北 최룡해·김원홍 국방위에도 진출(4/14, 조선중앙통신)

- 13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 12기 5차회의에서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이 새로 국방위원회 위원에 선출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전했다.
- 최근 국가안전보위부장(우리의 국가정보원장)에 임명된 김원홍과 리명수 인민보안부장 등 공안기관의 수장들도 국방위 위원으로 선출됐음.
-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동지의 제의에 의해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최룡해, 김원홍, 리명수 대의원을 보선했다”고 밝혔다.
-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고모부인 장성택, 김일성 주석의 4촌 매제인 리용무 차수, 오극렬 대장, 김영춘 당 부장(전 인민무력부장) 등은 국방위 부위원장직을 유지했으며, 김원홍에 국가보위부 수장 자리를 내준 우동측 국가보위부 1부부장은 국방위 위원에서 물러난 것으로 확인됐음.
-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발표된 국방위 위원은 박도춘 당 비서(군수 담당), 김정각 인민무력부장, 주규창 당 기계공업부(전 군수공업부) 부장, 백세봉 2경제위원회(군수경제) 위원장, 최룡해, 김원홍, 리명수 등 7명임.

● **김정은 첫 대규모 軍인사...70명에 별(4/14, 노동신문)**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4월15일)을 맞으며 13일 최고사령관 명령으로 70명의 군 장교들을 장성으로 진급시켰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4일 보도
- ‘최고사령관 명령’에 따라 박순환이 중장에 진급했고, 김용화, 장근필, 윤득수 등 70명이 소장으로 진급했으며, 앞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는 공동결정으로 김 주석 100회 생일을 1주일 앞둔 7일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과 현철해 인민무력부 1부부장에게 인민군 차수 칭호를 수여한 바 있음.
- 이번 대규모 군 장성 인사는 김정은 체제 출범 후 처음 이뤄진 것으로, 군부 내에서 세대교체가 시작된 것으로 보임.

● **北, 김일성 100회 생일 대규모 중앙보고대회(4/14, 조선중앙TV)**

- 북한은 14일 평양 김일성경기장에서 김일성 주석의 100회 생일(4월15일)을 하루 앞두고 중앙보고대회를 열었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
- 조선중앙TV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김 주석 100회 생일 경축 중앙보고대회를 녹화방송했음.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중앙보고대회 보고에서 “김일성 동지의 탄생은 주체의 태양이 솟아오른 민족의 대통운이었으며 우리 인민의 앞길에 자주시대의 여명이 밝아온 일대 사변”이라며 “김일성 동지는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라고 강조
- 중앙보고대회 주석단 중앙에는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외에 최영림 내각총리,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리영호 총참모장, 김정각 인민무력부장, 김경희 당 비서 등이 자리했음.

● **北김정은, 인민군 무장장비관 시찰(4/15,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14일 김일석 주석 100회 생일을 맞아 개관한 조선인민군 무장장비관 개관식에 참석해 전시장을 둘러봤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
- 시찰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영림 내각총리,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리영호 총참모장 등이 수행

● 北김정은, 군 열병식서 첫 공개연설(종합)(4/15, 연합뉴스)

- 15일 북한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을 맞아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인민군 열병식에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연설을 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김 1비서의 육성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그의 연설은 20분 정도 이어졌으며, 연설 중간마다 청중의 박수가 수차례 이어졌음.
- 김 1비서는 “김일성 민족의 백년사는 파란 많은 수난의 역사에 영원한 종지를 찍고 우리 조국과 인민의 존엄을 민족사상 최고의 경지에 올려세웠다”며 “어제날의 약소국이 당당한 정치군사 강국으로 전변됐으며 우리 인민은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자주적 인민으로 존엄 떨치고 있다”고 말했음.

● 北, 김일성생일 대규모 군열병식으로 ‘자축’(종합)(4/15, 조선중앙TV)

- 북한은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태양절)을 맞은 15일 오전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인민군 육해공군과 노농적위군, 붉은청년근위대의 열병식을 벌였음.
- 북한이 인민군 창건 80돌(25일)이 아닌 김 주석 생일에 대규모 군 열병식을 진행한 데는 ‘김정은 시대’의 개막을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임.
- 인민군 열병식에 노농적위군과 붉은청년근위대가 참가한 것은 2010년 10월 노동당 창건 65돌 경축행사에 이어 1년 6개월 만임.
- 2시간가량 진행된 열병식에는 김 1위원장 외에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영림 내각총리,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리영호 총참모장, 김정각 인민무력부장, 김경희 당 비서, 김원홍 국가보위부장, 현철해 인민무력부 1부부장, 오극렬 국방위 부위원장, 김영춘 국방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

● 김정은, 김일성 생일 맞아 금수산궁전 참배(4/15,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김일성 주석의 100회 생일(태양절)인 15일 당·정·군 고위간부들을 대동하고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태양절에 즈음하여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꾼들과 함께 15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고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께 송고한 경의를 표시했다”고 전했다.

- 김 1위원장의 참배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영림 내각총리,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리영호 총참모장, 김정각 인민무력부장, 김원홍 국가보위부장, 김경희 당 비서 등 고위 인사들이 함께했음.

● 北선 미사일 실패 아닌 ‘자폭’이라 표현(4/15, 요미우리신문)

- “북한에서는 누구도 미사일 발사를 ‘실패’라고 말하지 않았다”며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당시 평양에 머물렀던 수카르노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미망인인 데비 수카르노 여사가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분위기를 이같이 전했다.
- 데비 여사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패 사실을 안 것은 당일인 13일 저녁이었으며, 여성 통역에게 (미사일 발사에 대해) 질문을 했더니 “자폭(自爆)했기 때문에 우주 전문가가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대답했음.
- 데비 여사는 “평양에서는 아무도 ‘실패’라는 말을 입에 담지 않았다”고 말했다.

● 北 김일성 100회 생일 기념 평양서 불꽃놀이(4/15,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을 기념해 평양에서 15일 밤 8시부터 축포 야회 ‘태양조선은 무궁번영하리라’를 벌였음.
-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김일성장군의 노래’가 울려 퍼지면서 주체사상탑에서 솟구친 축포의 불줄기들이 수도의 밤하늘을 밝게 비치고 있다”고 전했다.

■ 김정은동향

- 4/10, 김정은 부위원장, 완공을 앞둔 인민극장 현지지도 및 국가산업미술전시회장 시찰(4.10, 중·평방·중통)
- 건설에 참가한 군부대 지휘관들 현지영접(인민극장) 및 리재일·박봉주(黨 제1부부장) 등 동행
- 4/11, 김정은 부위원장, 黨 제4차 대표자회 참가자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 참배(4.11, 중통·중·평방)
- 4/13 김일성·김정일 동상 만수대언덕에 건립 제막식, 4.13 김정은 참석(4.13, 중·평방·중통)
- 김기남(사회)·김영남(제막사)·최룡해·최태복·최영림·리영호·장성택 등 동상 제막

기타 (대내 경제)

-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93.4.9) 19돌 기념 중앙보고대회, 4.9 4.25문화회관에서 진행(4.9,중통)
 - 김영남, 리영호(보고), 최영림, 김영춘, 김국태, 김기남, 최태복, 양형섭, 최룡해, 이응무, 김정각, 오극렬, 현철해, 문경덕(사회) 등 참석
- 김정일 위원장에게 '김일성훈장'(1972년 제정) 수여(4.10,중통)
 - ※ 김정일, 1978·1982·1992년에 이어'김일성훈장'수여 받음.
 -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4.9) 관련 '군력강화 업적' 칭송(4.10,중통/군력강화에 쌓으신 위대한 업적)
- 최룡해·현철해에게 '軍 차수 칭호' 수여, 黨 군사총·국방총 공동결정(4.7) 발표(4.10,중통·중방)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추대,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 회의(4.13,중통·중·평방)
 -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직제 새로 규정 및 김정일을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 '헌법 수정 보충 및 최고인민회의 법령' 채택
-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 회의, 4.13 김정은 국방총 제1위원장 참석下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 (4.13,중통·중방)
 - ① 헌법 수정보충, ② 김정은, 최고수위 추대, ③ 내각의 2011년 사업정형과 2012년 과업, ④ 2011년 국가예산집행 결산과 2012년 국가예산, ⑤ 조직문제 의안 결정
 - 주석단 : 김영남·최영림·최룡해·리영호·김경희·김정각·장성택·박도춘·김영춘·김국태·양형섭·강석주·리응무·현철해·김원홍·리명수·오극렬·김양건·김영일·태중수·김평해·문경덕·곽범기·김창섭·로두철·리병삼·조연준·변영림·김영대·류미영 및 최태복 개·폐회사(4.14,중방)
- 김정은 국방총 제1위원장, 4.13 인민군 지휘성원들 승진 인사 '명령 제009호' 하달(4.14,중통·중방)
 - 박순환 중장, 김용화 소령 등 70명 소장
- 北, 4.13 로켓(광명성-3호) 발사 강행(07시38분55초, 평북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 및 "궤도진입 실패" 발표(4.13,중통·중·평방·중앙TV·조선신보)
- 조선인민군 '무장장비관' 개관식, 4.14 김정은 제1위원장 참가下 평양에서 진행(4.15,중통·중·평방)
 - 김영남, 최영림, 최룡해, 최용해, 이영호(개관사), 김경희, 김정각, 장성택, 박도춘, 김영춘, 김국태, 김기남, 이응무, 김원홍, 오극렬을 비롯한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꾼들 등 참가 및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과 무관단을 초대
- 김일성 주석 생일(4.15) 100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4.14 김일성경기장에서 진행(4.14,중통·중·평방·조중TV)
 - 김정은, 김영남(보고), 최영림, 최용해, 이영호, 김경희, 김정각, 장성택, 박도춘, 김영춘, 김국태, 김기남(사회), 최태복, 양형섭, 강석주, 이응무, 현철해, 김원홍, 이명수, 오극렬, 김양건, 김영일, 태중수, 김평해, 문경덕, 곽범기, 김창섭, 노두철, 이병삼, 조연준, 김영대(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장), 류미영(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장), 내각, 근로단체, 무력기관 일꾼들, 남승우(총련중앙 상임위 부의장), 최은복(재중조선인총연합회 의장) 등 참가
- 김일성 주석 생일(4.15) 100돌 관련 동정
 - 김일성 父子 '태양상 모자이크벽화'(총길이 51m, 높이 16.6m) 준공식, 4.9 최영림·김기남·양형섭·문경덕 등 참가下 평양 장대재 언덕에서 진행(4.9,중방)
 - '국제축전, 4.11~16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될 예정/60여개국 350여명 참가/만경대·백두산밀영 고향집 방문 및 기념식수, 국제연환대회 등(4.9,중통)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3.29 은하수관현악단·평양피복공장 등과 119명 군인들에게 '김일성 훈장' 수여(4.10,중통)
 - 백두산3대장군 모자이크벽화, 4.13 신의주시(평북)에 건립(4.13,중통)

- 김일성 생일 복측 준비족, 4.13 양형섭(위원장)·김영일(黨 비서)·김정숙(부위원장) 및 국제준비족 공동위원장 등 초청下 인민문화궁전에서 연회 개최(4.14,중통)
- 제14차 김일성화축전, 4.13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관앞에서 개막(4.13,중·평방·중통)
- 노동신문 사설, '승리와 영광의 지난 100년사를 돌이켜보고 김정은 제1위원장의 영도따라 김일성·김정일조선의 찬란한 미래를 위해 힘차게 싸워 나가자'며 '강성국가 건설을 위한 대고조진군' 독려(4.15,노동신문/위대한 주체의 태양의 역사는 천만년 흐를 것이다)
- 당·정·군 및 각계층 인민들, 4.15 만수대언덕과 만수대창작사 김일성 父子 동상에 헌화(4.15,중통)
- 중국주재 北 대사관에서 4.13 中 공산당 중앙위 등 초청下 연회 개최(4.15,중방)
- 김일성 생일 100돌 기념 열병식, 4.15 김일성광장에서 진행(4.15,중·평방·중앙TV, 실황중계)
- 김정은, 김영남, 최룡해, 최영림, 리영호, 김경희, 김국태, 최태복, 김기남, 김정각, 장성택, 김원홍, 현철해, 오극렬, 김영춘, 양형섭 등 참석
- 김일성 생일 100돌 경축 축포야회 '태양조선은 무궁번영하리라', 김정은 등 참가下 대동강변에서 진행(4.15,중·평방·중앙TV, 실황중계)
- 北은 '△'광명성-3호' 발사는 우주개발 5개년 계획의 첫단계 사업, △5년간 정지위성 개발에 착수, △은하-3호보다 더 큰 대형운반로켓 개발 시작' 보도(4.14,조선신보/조선의 우주계획은 계속 추진된다)

나. 경제

- 北, 중국인 금강산 유람선관광도 잠정중단(4/10, 자유아시아방송(RFA))
 -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14일 시작 예정이던 북한의 금강산 유람선 관광이 잠정중단됐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0일 보도함.
 - RFA에 따르면 중국 지린성의 관영 인터넷매체인 '지린망'은 북한의 금강산국제관광특구 지도국이 지난 8일 오후 금강산 관광의 총대리권을 가진 연변천우국제여행사 측에 관광 연기를 전격 통보했다고 9일 전함.
 - 여행사 측은 북한이 25일까지 금강산 유람선 관광이 진행될 수 없다고 통보했다며 첫 출항 날짜는 북측과 협의를 거쳐 25일 이후 다시 확정될 것이라고 밝힘.

다. 군사

- 北 “위성 발사 모든 준비 완료”(종합3보)(4/10, 연합뉴스)
 - 북한은 10일 '광명성 3호'를 발사하기 위한 모든 조립과 준비가 완료됐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광명성 3호 발사를 담당하는 북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의 류금철 부소장은 이날 평양에서 외신 기자들과 기자회견을 갖고 광명성 3호가 미사일 실험을 숨기기 위한 의도라는 서방의 시각을 부인하며 이같이 말함.
- 류 부소장은 예정대로 12~16일 사이에 김일성 100회 생일을 기념하는 행사의 일환으로 위성 발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확인했으며 그는 광명성 3호는 지구를 관측하기 위한 평화적 위성이며, 위성을 실은 1,2단계 추진 로켓은 예정된 궤도에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함.
- 류 부소장은 이어 “위성 발사는 북한의 우주 탐사 프로그램을 평화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 의미가 있다”면서 “위성 발사는 지역과 이웃 국가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함.
- 그는 1단 로켓이 필리핀 육지로부터 160km, 2단 로켓은 190km 거리에 있는 해상에 떨어질 것이라며 “탄도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로켓은 스스로 폭발하도록 설계돼 있다”고 말했으며 특히 “위성 발사가 미사일 실험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난은 말도 안된다”고 덧붙임.

● 北 “장거리 로켓에 연료 주입 중”(2보)(4/11, 연합뉴스)

- 북한은 11일 장거리 로켓에 연료를 주입하기 시작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위성통제센터 백창호 소장은 이날 북한을 방문 중인 외국 기자들에게 “우리가 말했던 대로 연료를 주입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또 “연료 주입이 적절한 때에 완료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으나 연료 주입이 언제 완료될지는 언급하지 않음.

● 北 “광명성 3호 궤도진입 실패” 시인(2보)(4/13,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13일 장거리 로켓인 ‘광명성 3호 위성’이 발사됐지만 궤도 진입에 실패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낮 12시3분에 ‘지구관측위성 광명성 3호가 궤도진입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국영문 기사를 통해 “조선에서의 첫 실용위성 ‘광명성 3호’ 발사가 13일 오전 7시38분 55초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 발사장에서 진행됐다”며 “지구관측위성의 궤도 진입은 성공하지 못했다”고 밝혔으며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들이 현재 실패의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고 전함.

- 조선중앙TV도 이날 낮 12시11분께 주체사상 세계대회를 녹화방영하다 긴급보도 형식으로 ‘광명성 3호의 궤도진입 실패’라는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내용을 전함.
- 北 “로켓이 아니라 인공위성”(4/13, 연합뉴스)
 - 미국 뉴욕에 있는 북한 유엔대표부는 12일(현지시간) 북한이 발사한 것은 로켓이 아니라 인공위성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북한 유엔대표부 관계자는 미국 동부시간으로 이날 밤 9시10분께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날 발사한 것은 “로켓이 아니라 인공위성”이라는 답변만 한 뒤 전화를 끊음.
- 北로켓 발사 1~2분후 공중서 산산조각(종합3보)(4/13, 연합뉴스)
 - 북한이 13일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난속에 발사한 장거리 로켓이 발사 1~2분만에 공중에서 폭발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북한은 이례적으로 위성 궤도 진입 실패를 인정했지만 유엔 안보리가 긴급 소집돼 북한에 대한 규탄과 제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고 북한은 이에 반발해 3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한반도 정세는 한치 앞도 모를 불안정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음.
 - 신원식 국방부 정책기획관(소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철산군 발사장 에서 오전 7시39분 발사된 장거리 미사일 한 발은 1~2분 정도 비행하다 공중 폭발했다”면서 “미사일 시험 발사는 실패했다”고 발표
 -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 외교안보장관회의가 끝난 뒤 정부 공식 성명을 통해 “북한이 소위 실용위성이라고 주장하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북한의 로켓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의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행위”라고 규정했음.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날 밤 11시(한국시간) 긴급 회의를 소집해 북한 로켓 발사에 대한 규탄과 추가제재 등 대응 방안을 논의
- 北 신형 미사일 공개 ‘로켓 실패 만회용?’(4/15, 연합뉴스)
 - 북한이 15일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태양절)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처음으로 공개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전문가들은 이 미사일이 지난 13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서 발사한 장거리 로켓 실패 이후 공개된 것으로 미뤄 이를 만회하기 위한 대내외 심리전 성격이 강하다고 분석하고 있음.
- 북한이 이날 열병식을 실황 중계한 조선중앙TV를 통해 공개한 신형 장거리 탄도미사일은 직경 2m, 길이 18m 이상으로 사거리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으로 추정되고 있음.

● 北 신형 탄도미사일 공개..ICBM은 아닌듯(4/15, 교도통신)

- 북한은 15일 군사 퍼레이드에서 신형 탄도 미사일을 선보였으나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은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고 교도통신이 전함.
- 평양에서 이날 펼쳐진 북한군 열병 행사에선 북한이 개발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ICBM은 등장하지 않았고, 양쪽 바퀴 8개가 달린 대형차량에 거치한 위장된 대형 미사일은 ‘무수단’ 중거리 탄도 미사일 다음으로 퍼레이드 말미에 모습을 나타냈으며, 이 신형 미사일은 추정 사정이 2천500km에서 4천km인 무수단 미사일보다 커 보였음.
- 이와 관련해 연합뉴스는 익명의 한국군 관계자를 인용, 이 미사일이 미국 알래스카에 도달할 수 있는 최대 사정 6천km로 추정되는 ICBM이라고 전한 바 있음.

라. 사회·문화

● 북한 인구 2050년까지 2천600만명 돌파(4/10, 미국의소리(VOA))

- 유엔 경제사회국(DESA)은 2050년까지 북한 인구가 2천6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0일 전함.
- DESA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 ‘세계 도시화 전망 2011년 개정판’에서 2010년 북한 인구를 2천434만6천 명으로 추산하고 2050년에는 이보다 8% 정도 증가해 2천638만2천 명이 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DESA의 보고서는 북한의 전체 인구 중 도시인구 비율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함.
- 2010년 북한의 도시 거주 인구는 1천465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60.2%인데 비해 2050년에는 약 1천900만 명으로 도시인구 비율이 72%에 달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함.

● 北정치수용소 유아살해, 강제낙태 등 자행(4/10, 연합뉴스)

-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는 현재 15만명 이상이 감금돼 있으며, 상상하기 힘든 끔찍한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10일(현지시간) 제기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미국의 비정부기구(NGO)인 북한인권위원회(HRNK)는 이날 발간한 ‘숨겨진 강제노동수용소(Hidden Gulag)’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전 수감자 및 경비대원 60명과 인터뷰에서 이런 실상이 드러났다고 밝힘.
- 총 200여 페이지 분량의 이 보고서는 수용소에는 정치범의 자녀와 부모들까지 수감되는 것은 물론 중국으로 탈출해서 임신한 여성에 대해서는 강제로 낙태시키고, 유아를 살해하는 등의 범죄가 저질러지고 있다고 주장함.
- 아울러 북한 정치수용소는 지난 1950년대 소련의 강제노동수용소인 ‘굴라그(Gulag)’를 모델로 하고 있으며, 현재 15만~20만명이 감금돼 있다면서 이를 촬영한 위성사진도 공개함.

● 北 인터넷망 추가…김일성 생일행사 홍보용?(4/11,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최근 미국의 통신회사를 통해 외국의 인터넷에 접속하기 시작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1일 보도함.
- 북한 관련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정보통신 전문가 마틴 윌리엄스(Martyn Williams)는 북한이 미국에 기반을 둔 위성통신회사 ‘Intelsat’의 인터넷 망도 이용하기 시작한 것을 지난 5일 알게 됐다고 밝힘.
- 북한의 웹사이트를 관리하는 회사인 ‘스타 조인트 벤처’(Star Joint Venture)는 그동안 홍콩에 기반을 둔 중국 내 주요 통신업체인 ‘차이나유니콤’(China Unicom)을 통해서만 외국과 접속해옴.
- 윌리엄스는 “외국에서 북한의 조선중앙통신 웹사이트에 연결하려고 할 경우 대부분 차이나유니콤의 인터넷망에 연결되지만 지난 5일부터 Intelsat을 통해서도 접속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함.
- RFA는 일본과 중국에 있는 서버를 빌려 ‘조선중앙통신’ 등의 웹사이트를 운영해 오던 북한이 2010년 10월 노동당 창건 65돌을 맞아 북한 내 서버를 통해 전 세계 인터넷망에 직접 연결했다고 전함.

- **北인권문제는 미·한·중 공동책임(4/13, 연합뉴스; 워싱턴포스트)**
 -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서방의 무관심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이튿날인 13일(현지시간) 미국의 유력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게재한 첫번째 사설은 도발을 감행한 북한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북한 인권문제에 등을 돌리고 있는 미국 등에 대한 질타였음.
 - WP는 “최근 모든 관심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집중된 가운데서도 수백명의 미국인, 한국인, 일본인 등은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삶의 다른 부분을 조명하기 위해 모였다”면서 최근 미 북한인권위원회(HRNK)가 개최한 북한 정치범수용소 세미나를 소개

- **北, 김일성 생일 맞아 학생들에 교복 공급(4/14, 조선중앙통신)**
 - 김일성 주석의 100회 생일(4월15일)을 맞아 대학생을 포함한 북한 전역의 학생들에게 교복이 공급되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전했다.
 - 통신은 “김일성 동지 탄생 100돌을 맞으며 조선의 모든 소학교, 중학교, 대학, 전문학교 학생들에게 교복이 공급되고 있다”며 “수도 평양으로부터 북방의 두메산골과 분계연선마을, 외진 섬에 이르기까지 온 나라의 각급 학교와 분교들, 상점들은 김정일 동지의 유훈과 김정은 동지의 뜨거운 사랑이 깃든 새 교복을 받아 안은 학생들과 학부모들, 교육자들과 상업봉사자들의 감격과 기쁨으로 끝없이 설레고 있다”고 소개

- **北김정은, 재일교포 자녀 위해 교육비 지원(4/14,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김일성 주석의 100회 생일을 맞아 재일교포 자녀들에게 1억6천560만 엔(한화 약 23억2천만 원)의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전했다.
 - 통신은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 김정은 동지께서 재일동포 자녀를 위해 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에 보내주신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은 지금까지 158차에 걸쳐 469억2천505만 엔(한화 약 6천579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2 대외

가. 일반

- **北, 미사일 발사장 촬영제한 없었다(4/9, 교도통신)**
 -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실험으로 보이는 인공위성 발사와 관련, 외국 언론의 발사장 촬영에 대한 제한이 거의 없었다고 교도통신이 9일 보도함.
 - 이 통신은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보이는 로켓 ‘은하 3호’ 본체가 설치된 발사대 뿐 아니라 모니터링 시설인 관제시설 내부까지 공개했으며 사진 촬영도 거의 제한이 없었다고 전했으며 발사장의 총책임자인 장명진(46)이 “미국과 중국도 이 정도까지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보도함.
- **日항공사, 北 로켓 발사에 9편 항로 변경(4/9, 교도통신)**
 - 일본의 항공사들이 북한의 로켓 발사가 종료될 때까지 필리핀 해역 상공을 지나는 국제선 9편의 항로(航路)를 변경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9일 보도함.
- **필리핀항공, 北로켓 대비 12편 항로 조정(4/9, 연합뉴스)**
 - 필리핀항공(PAL)은 12~16일로 예정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비, 일부 국제선 항공편의 항로를 변경할 것이라고 9일 발표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北, 함북 무수단리서도 위성발사 계획(4/9, 교도통신)**
 - 북한이 동창리뿐 아니라 무수단리 발사장에서도 위성을 발사할 구체적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9일 보도함.
 - 이 통신은 평양발 기사에서 동창리에 있는 ‘서해위성발사장’의 장명진 총책임자가 ‘우주개발’과 관련 이번에 위성을 발사하는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발사장뿐 아니라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의 발사장에서도 위성을 발사할 구체적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고 전함.
 - 통신에 의하면 장 총책임자는 “무수단리에서 위성을 발사할 경우 로켓 1단의 낙하지점이 육지가 될 수 있어 남쪽으로 발사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해, 동쪽으로 발사할 계획임을 시사함.

● 美 “中에 北로켓 저지 압박 촉구”(종합)(4/10, 연합뉴스)

- 미국 정부는 9일(현지시간) 중국 등 6자회담 참가국들을 상대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저지를 위해 압력을 행사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빅토리아 놀런드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6자회담 참가국들이 북한에 대해 같은 태도를 취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다”고 말함.
- 놀런드 대변인은 특히 “중국에 대해 가능한 모든 일을 다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면서 “그들이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에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발휘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으며 또 “우리의 입장은 ‘하지 말라(Don't do it)’는 것”이라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매우 도발적이고, 역내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난한 뒤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라고 거듭 주장함.

● 北, 4·15 행사에 일본 인사 100명 초청(4/10, NHK)

- 북한이 고(故)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 행사를 맞아 일본에 초청 공세를 폈다고 NHK방송이 10일 보도함.
- 10일 이 방송에 의하면 북한은 오는 15일 열리는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 행사에 일본의 전 국회의원과 교류단체 대표, 국제관계 연구자 등 100명 정도를 초청하며 시미즈 스미코(清水澄子) 전 참의원 의원을 단장으로 한 방북단 10명은 9일 하네다공항을 통해 출국했으며 베이징 북한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고 평양으로 들어갈 예정임.

● 佛, 북한 로켓 발사 포기 거듭 촉구(4/10, 연합뉴스)

- 프랑스는 10일(현지시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의 위반이라며 정치적 목적의 로켓 발사를 포기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베르나르 발레로 외교부 대변인은 논평에서 “우리는 북한이 로켓발사 계획을 발표한 지난달 16일 이래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북한에 대해 국제적 의무 준수와 발사 계획 취소를 요구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으며 그는 “북한의 위성 발사 계획은 안보리 결의안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프랑스는 이에 대한 깊은 우려를 다시 한번 반복한다”고 덧붙였다.

● 클린턴 “北미사일, 적절한 조치 취할 것”(4/10, 연합뉴스)

-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10일(현지시간) 북한이 장거리로켓 발사 계획을 강행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클린턴 장관은 이날 국무부에서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일본 외무상과 회담하고 나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주민들의 평화롭고 더 나은 미래를 원한다면 역내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추가적인 발사를 강행하지 않아야 한다”고 계획 중단을 촉구함.

● 日, 北 미사일 발사 대비 비상태세 돌입(4/11, 연합뉴스)

-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11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위성이라고 부르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오후부터 총리 관저 위기 관리센터에 대책실을 설치한다고 발표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北 “외신기자들 평양 위성관제지휘소 참관”(4/11,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장거리 로켓인 ‘광명성 3호 위성’ 발사 참관을 위해 방북한 외신 기자들이 11일 평양 ‘위성관제종합지휘소’를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통신은 “위성관제종합지휘소는 지구 관측과 통신을 비롯한 인민경제 발전에 필수적인 과학연구를 진행하는 거점”이라며 “지휘소에는 위성 발사와 관측 계산 및 정보 보장을 원만히 실현할 수 있는 지휘통신체계, 컴퓨터망 체계가 구축돼 있으며 위성 관제에 필요한 모든 설비가 갖춰져 있다”고 소개함.

● 北김계관 ‘이른 시일내 만나자’ 美에 서신(4/13,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지난달 장거리 로켓인 ‘광명성 3호 위성’ 발사계획 발표 직후에 서신을 통해 미국 측에 이른 시일 내 만남을 제안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3일 보도함.
- 복수의 미 외교 소식통은 RFA에 김 부상이 지난달 20일 글린 데이비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에게 편지를 보내 “위성 발사 이후의 상황을 수습하는 방안을 서로 논의하자”며 이같이 제안했다고 전함.
- 김 부상은 편지에서 북한이 이미 지난해 북미 고위급회담이 시작될 때부터 위성 발사 계획을 미측에 통보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광명성 3호’

발사 이후에도 미국과 대화를 이어가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방송은 전함.

- 그러나 미 국무부 관계자는 12일 RFA에 김 부상의 서신에 대해 ‘개인적인 서신(private correspondence)’으로 평가절하하면서 “언급할 게 없다고 말함.

● 美·日 “北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패”(종합)(4/13, 연합뉴스; ABC 방송; CNN 방송)

- 북한의 장거리 로켓이 발사 직후 몇조각으로 파괴돼 바다로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언론들이 익명의 관리들 말을 인용, 12일(현지시간) 잇따라 보도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일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이 1분 이상 날다가 바다에 떨어졌다고 발사 실패 사실을 확인함.
- ABC 방송은 이날 익명의 관계자들 말을 인용, 북한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발사를 강행한 미사일이 바다로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긴급 보도함.
- CNN 방송도 북한의 장거리 로켓이 발사 직후 얼마 되지 않아 파괴돼 추락한 것 같다고 전함.

● 美백악관 “北미사일 실패..도발행위”(종합)(4/13, 연합뉴스)

- 미국 백악관은 12일(현지시간)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와 관련, “미사일 발사 시도가 실패했으나 이번 도발행위는 지역안보를 위협하고 국제 법규와 자신들의 약속을 위배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백악관은 이날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이같이 비난한 뒤 “북한이 보여온 공격적 행태의 패턴을 감안하면 이번 사태는 놀라운 것이 아니다”며 “북한의 어떤 미사일 관련 행동도 국제사회의 우려사항”이라고 지적했으며 “미국은 북한의 도발을 감시할 것이며, 역내 동맹의 안보에 충실하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함.

● <北로켓실패> EU “위험한 행위 심각하게 우려”(4/13, 연합뉴스)

- 유럽연합(EU)은 13일 북한의 실패한 로켓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을 위반한 ‘위험스럽고 안정을 해치는’ 행동이라고 비판

- 캐서린 애슈턴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이날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련해 낸 성명에서 “북한이 오늘 실행한 위협스럽고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 애슈턴 고위 대표는 “북한이 밝힌 (발사) 목적이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 시도한 로켓 발사는 무엇보다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에 명시된, 북한의 국제사회에 대한 의무를 분명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

● <北로켓실패> 러 “새로운 대북 제재 반대”(4/13, 연합뉴스)

- 러시아 정부가 13일(현지시간) 로켓 발사에 실패한 북한에 새로운 제재를 가하는 것에 반대한다면서 관련국들에 자제를 촉구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부 장관은 이날 모스크바에서 가진 러시아·중국·인도 3자 외교장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3국은 새로운 제재가 상황을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북한의 이번 도발에 관련국들은 오직 외교·정치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못박았음.

● 美, 대북 식량지원 중단(종합)(4/14, 연합뉴스)

- 미국은 로켓 발사를 강행한 북한에 대해 식량지원을 중단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13일(현지시간)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벨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은 이날 플로리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에서 동승한 기자들에게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자신들의 약속을 지킬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에 지원하겠다는 합의를 진척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음.
- 로즈 부보좌관은 또 북한이 또다시 도발 행위를 감행해 국제사회에 다시 도전한다면 추가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

● 美·中 외교장관, 전화로 북한 로켓 대책 논의(4/14, 연합뉴스)

-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과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은 13일(현지시간) 전화를 통해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논의했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음.

-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클린턴 장관이 어제 김성환 한국 외교통상부 장관과 통화한 데 이어 오늘 오전 양 부장과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 그러면서 “클린턴 장관은 (전화 통화에서) 6자회담 참가국들과 긴밀하게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아울러 (북한의) 이번 행동에 대한 규탄을 위해 신중하고 통일된 방식으로 함께 행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 토너 부대변인은 또 “우리는 중국에 대해 ‘북한과 관계를 활용해 우리의 우려를 북한에 전달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日, 조선총련 간부 재입국 금지 확대 방침(4/14, 산케이신문)**

- 일본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로 조선총련 간부 가운데 재입국 금지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산케이신문이 14일 보도
- 이 신문에 의하면 북한을 방문할 경우 일본으로의 귀국을 금지하는 대상자를 현재의 허종만 책임부의장 등 간부 6명에서 다른 간부들에게까지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했음.

● **오바마, 대선前 對北대화 보류할듯(4/14, 워싱턴포스트(WP))**

-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강행으로 미국 정부는 당분간 대북 강경책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4일(현지시간) 보도
- WP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이후 대화·개입 전략(engagement strategy)의 일환으로 북한과의 협상을 꾸준히 진행했으나 이번 ‘도발’로 최소한 올연말 대선까지 추가 대화를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음.
- 특히 지난 2월말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제3차 북·미 고위급회담의 합의가 몇주일만에 파기된 것과 관련해 공화당이 적극적인 비판공세에 나서면서 정치적으로 이슈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재선에 도전하는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부담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 **김성환, 中외교부장과 ‘北 로켓’ 전화 회담(종합)(4/15, 연합뉴스)**

-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4일 오후 중국의 양제츠 외교부장과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에 따른 한반도 긴장 상황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연합뉴스가 15일 전함.

- 양 부장은 통화에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 위성을 발사하지 말도록 설득했지만 북한 측이 발사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유엔 안보리에서 모종의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대해 공감한다”고 말했다고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다.
- 양 부장은 이어 “한반도 정세가 악화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지금 한중 양국은 모든 문제에 대해 다 얘기를 하고 있으니 계속 긴밀하게 소통해나가자”고 제안했다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 日-中 외교부장, 北 로켓발사 대책 협의(4/15, 연합뉴스)

-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일본 외무상은 14일 밤 중국의 양제츠(楊潔志<兼대신虎들어간簾>) 외교부장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에 따른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고 일본 외교부가 발표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겐바 외무상은 25분간 진행된 전화접촉에서 중국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일본 외교부 관리는 전했다.
- 겐바 외무상은 양 부장과 통화에서 “일본은 (북한의)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국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 日,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 강화 검토(4/15, 요미우리신문)

- 일본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반발로 대북 송금 상한액 인하 등의 금융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5일 보도
- 이 신문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 방안으로 송금 규제와 북한 방문시 현금 소지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을 검토하고 있음.
- 일본은 현재 보고 없이 북한에 송금할 수 있는 상한액을 300만 엔으로 규정하고 있고, 북한 방문 시 10만엔 이상의 현금을 소지할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음.

나. 6자회담(북핵)

● 백악관 “北핵실험 강행時 도발 간주”(4/10, 연합뉴스)

- 미국 백악관은 9일(현지시간) 북한이 장거리로켓 발사에 이어 제3차 핵 실험을 강행할 경우 ‘도발행위(provocative action)’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로켓 발사를 실행에 옮길 경우 이는 도발이자 국제의무 위반이며, 추가적인 지하 (핵)실험도 도발 행위”라고 경고함.

● G8, 北로켓 발사 계획 중단 촉구(종합2보)(4/12, 연합뉴스)

- 주요 8개국(G8) 외교장관들은 12일(현지시간) 북한은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을 백지화하고 핵무기도 즉시 철폐할 것을 촉구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 등 참석 장관들은 이날 워싱턴 DC에서 있는 회동 직후 공동 성명을 통해 “북한은 로켓 발사를 중지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으며 “북한은 완전하고, 확증할 수 있으면서도 반복할 수 없는 방식으로 기존의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문함.

● 美·日 비난·中 자제 촉구(종합2보)(4/13, 연합뉴스)

-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주요국가들은 13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일제히 비난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백악관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미사일 발사 시도가 실패했으나 이번 도발행위는 지역안보를 위협하고 국제 법규와 자신들의 약속을 어겼다”고 밝혔으며 “북한이 보여온 공격적 행태의 패턴을 감안하면 이번 사태는 놀라운 것이 아니다”라며 “북한의 어떤 미사일 관련 행동도 국제 사회의 우려사항”이라고 지적함.
-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도발을 감시할 것이며, 역내 동맹의 안보에 충실하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며 “북한은 도발행위로 인해 고립을 심화시켰고, 주민들이 굶주리는 동안에도 무기와 선전용 과시를 위해 돈을 낭비했다”면서 “북한의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은 자체의 안보를 담보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함.

- 일본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북한이 탄도 미사일 발사에 실패한 직후 열린 중의원 본회의에 출석해 “용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엄중히 항의하며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으며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비록 로켓발사가 실패했더라도 우리나라와 관련국들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라며 “우리는 외교 경로를 통해 엄중하게 항의했다”고 말함.
- 중국 외교부의 류웨이민 대변인은 이날 로켓이 발사되고 수 시간이 지난 후 외교부 사이트에 올린 기자와의 문답 형식의 발표문을 통해 “중국은 북한의 위성발사 상황과 유관 각 당사자의 반응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으며 “우리는 유관 각 당사자가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고, 한반도와 지역 평화 및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말고, 접촉과 대화를 유지해 공동으로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안정을 유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함.
- 영국의 윌리엄 헤이그 외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그러한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것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에 대한 분명한 위반”이라고 강조함.
- 헤이그 장관은 또 영국정부가 13일(현지시간) 오후 영국주재 북한대사를 불러 북한이 미사일과 핵 보유 능력(nuclear capabilities) 개발을 계속할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강력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경고할 것이라고 밝힘.
- 줄리아 길라드 호주 총리는 밥 카 외무장관과 공동 명의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북한의 로켓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유엔 안보리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으며 “북한의 로켓 발사는 도발적이고 위험한 행위”라며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결의문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인 만큼 유엔 안보리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3 대남

● 국회 국방위, 北로켓발사 규탄 결의안 채택(4/13, 연합뉴스)

- 국회 국방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결의안은 먼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안보와 국제평화 질서를 파괴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행위라고 규탄함.

●李大통령, 北로켓발사 대응 키워드는 ‘절제’(4/14, 연합뉴스)

-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강행 이후 ‘로-키(low-key)’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고 14일 연합뉴스가 전함.
-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기민하게 대응하되, 필요 이상으로 과민 반응하지 않고 냉철한 기초를 유지하고 있음.
-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소식이 전해지자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소집, 부처별 조치 계획을 점검하고 한반도 주변국과의 협력 문제를 논의한 뒤 정부 차원의 성명을 내는 것으로 초동 대응을 마무리했음.

●北, 南총선 결과 뒤늦게 소개(4/15, 평양방송)

- 북한 매체가 15일 우리의 총선결과를 전하면서 12월에 있을 대통령선거에서 ‘보수패당’에 참패를 안겨야 한다고 선동
- 북한의 대외용 라디오방송인 평양방송은 이날 “11일 남조선에서 국회의원 선거가 진행됐다”며 “이번 선거에서 민주개혁 세력이 기대했던 의석수를 다 차지하지 못했지만, 이명박 보수패당에게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고 전했다.
- 방송은 “서울과 광주, 경기도, 전라남북도 등 지역에서 민주개혁 세력이 새누리당을 압도한 것은 역적패당에 대한 남조선 인민들의 원성이 얼마나 높은가를 여실히 입증해주었다”고 주장

● 북한기독교총연합회 21일 창립총회 열어(4/15, 연합뉴스)

- 북한기독교총연합회(이하 북기총)가 오는 21일 오후 3시 종로구 한국기독교백주년기념관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한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북기총은 탈북민목회자연합회, 한국탈북민교회연합회, 탈북민선교단체 등 새터민 기독교단체 세 곳이 모여 구성한 연합체임.

4.16-4.22

4월

3주차

1. 대내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군사
- 라. 사회문화

2. 대외

- 가. 일반
-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1 대내

가. 정치

- **北노동당, 김일성 100회 생일 경축 연회(4/16, 조선중앙통신)**
 -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15일 평양의 목란관에서 김일성 주석의 100회 생일 경축 연회를 마련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전함.
 - 연회에는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들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영림 내각총리,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리영호 총참모장 등 당·정·군 고위간부들이 참석했으며 중앙기관, 군 간부들과 근로자, 재외동포와 외국손님 등이 초대됐으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연회에 참석하지 않음.

- **우동측 北보위부 1부부장 행방묘연…‘경질설’(4/17, 연합뉴스)**
 - 한 대북소식통은 17일 “김정은이 그동안 우동측을 장성택 견제 카드로, 후계구축을 위한 ‘사냥개’로 활용해왔다”며 “하지만 김정은은 당·정·군을 완전히 장악하고 나서 그동안 북한 간부들의 원성의 대상이던 우동측을 숙청한 것으로 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그는 그동안 ‘나는 새도 떨어트린다’는 무소불위의 보위부를 통솔하며 김 1위원장의 최측근으로 승승장구해왔으나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4월15일)을 앞두고 지난달 하순부터 갑자기 공식석상에서 자취를 감춤.
 - 김 위원장 사망 100일째인 지난달 25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한 김 1위원장 수행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을 마지막으로 우동측의 이름은 북한 매체에서 사라졌으며 우동측의 이름이 놓이던 그 자리엔 김원홍 당시 군 총정치국 조직부국장의 이름이 대신 들어감.

- **북한 金씨 일가 ‘기념사진 정치’도 3대 세습(4/18, 조선중앙통신)**
 - 북한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TV 등 북한 매체들은 17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제4차 당대표자회 참가자들과 금수산태양궁전 광장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일제히 보도함.

- 북한 매체들은 이날 김 1위원장이 금수산태양궁전 군무자(군무원)들과 기념사진을 찍었으며 지난 10일에는 새로 건설된 인민극장 건설에 참가한 군인건설자, 설계일꾼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전함.

● <북한단신> 김정은, 열병식 참가자와 기념촬영(4/20,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평양 금수산태양궁전 광장에서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 경축 열병식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전했다.
- 김 1위원장의 기념촬영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영림 내각총리,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리영호 총참모장, 김정각 인민무력부장,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김영춘 국방위 부위원장, 김기남, 박도춘 당 비서, 현철해 인민무력부 1부부장, 주규창, 오일정 당 부장과 군 장성들인 최부일, 손철주, 박재경, 김영철, 조경철, 윤동현, 심상대, 박정천 등이 참석했다.

● 北, 김정은 첫 ‘노작’ 대대적 선전(4/22, 노동신문)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첫 담화를 ‘노작(勞作)’으로 규정한 북한이 이에 대한 각계 고위간부의 각오와 반응을 전하며 대대적인 ‘노작 선전’을 벌이고 있음.
- 리경식 농업상은 22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올린 글에서 “김정은 동지의 역사적인 노작을 받아 안은 우리 농업부문 일꾼과 근로자들은 알곡증산으로 당의 영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나갈 맹세로 심장을 끓이고 있다”고 전했다.
- 지난 19일 노동신문에 공개된 김 1위원장의 담화 내용 가운데 “우리는 인민들의 먹는 문제, 식량문제를 원만히 해결해야 한다”는 ‘김정은의 말씀’에 대한 일종의 충성맹세인 셈임.
- 김 1위원장은 제4차 당대표자회(11일)를 앞둔 6일 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꾼들을 상대로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 위업을 빛나게 완성해 나가자’란 제목으로 담화했다.
- 담화에는 외교 및 대남정책을 제외한 정치, 경제, 국토관리, 문화, 교육사업 등 전 부문에 대한 김정은 체제의 정책 방향이 담겨 있음.

- 북한은 이 담화를 김 1위원장의 첫 ‘노작’으로 규정했으며, 최태복 노동당 비서는 20일 노동신문에 올린 글에서 이 담화를 ‘김정은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이라고 표현했음.

김정은동향

- 4/17 김정은 제1위원장, 당 제4차 대표자회 참가자들 및 김일성 주석 생일경축대표들과 기념사진 촬영(4.17,중통·중·평방)
 - 김영남, 최영림, 최룡해, 리영호, 김경희, 김정각, 장성택, 김영춘, 박도춘, 김국태, 김기남, 최태복, 양형섭, 리우무, 강석주, 현철해, 김원홍, 리명수, 리을설·황순희·김철만(항일의 老투사들)
 - 인민극장 건설에서 위훈을 세운 군인건설자들, 설계일꾼들과 기념사진(4.17,중통·중·평방)
 - 최룡해, 장성택, 현철해, 김원홍 참가
 - 금수산태양궁전 군무자들과 기념사진(4.17,중통·중·평방)
 - 최룡해, 리영호, 김정각, 장성택, 현철해, 김원홍 참가
- 4/17 김정은 제1위원장(4.15), 김영남(4.16), 시리아 대통령에게 독립 66돌 관련 축전(4.17,중통·평방)
- 4/19 김정은 국방총 제1위원장, 만수대창작사 일꾼·창작가·종업원들과 기념 촬영(4.19,중·평방·중통)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위원장)·최영림(내각 총리)·최룡해(軍 총정치국장)·장성택(국방총 부위원장)·김기남(黨 비서)·리재일(黨 제1부부장)·권혁봉(黨 부부장) 동행
 - 김정은 국방총 제1위원장, 4.12 ‘618건설돌격대 인민보안부사단 군인건설자’ 등 여러 단위들의 편지에 친필 답전(4.19,중통·중방)
- 4/19 김정은 국방총 제1위원장 연설(김일성 생일 100돌 열병식)은 “일심단결과 불패의 군력을 끊임없이 공고히 하면서 지식경제형 경제강국 건설에 천만군민을 불러주시는 힘찬 진군가”라고 선전(4.19,평방/일심단결 불패의 군력 더하기 새 세기 산업혁명 사회주의 강성국가)
 - “우리(北)의 일심단결은 김정은 동지에 의해서 대를 이어 계속 강화발전 되고 있다”며 ‘김정은 두리에 일심단결 강화’ 강조(4.19,평방/우리의 일심단결의 위력)
- 4/20 김정은 당제1비서, 김일성주석 생일 100돌경축 열병식 참가자들과 기념사진(4.20,중통·중·평방)
 - 김영남, 최영림, 최룡해, 리영호, 김정각, 장성택, 김영춘, 김기남, 박도춘, 현철해, 주규창, 오일정, 최부일, 손철주, 박재경, 김영철, 조경철, 윤동현, 심상대, 박정천 참가

기타 (대내 정치)

- ‘인민극장’, 4.17 은하수관현악단의 개관공연(잊지 말자 혁명에 다진 그 맹세) 진행(4.17,중통)
- 김정일 위원장 저작(‘은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 발표 14돌 즈음 ‘민족대단결5대방침 관철, 남북간 연대·연합 강화를 위한 조국통일운동’ 등 선동(4.18,우리민족끼리/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의 진로를 밝힌 불멸의 가치)
- 김일성 주석 생일(4.15) 100돌 경축행사 등 동향
 - 평성·신의주·해주·청진·원산·개성시와 장자강·성천강변 일대 및 함경남도·자강도 등 각 도·시, 4.15 축포야외 진행(4.16,중방)
 - 국제축전 참가자들과의 친선연환모임, 4.16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진행(4.16,중통)

- 北 외무성, 4.16 박의춘(외무상) 등 참가下 駐北 외교·국제기구대표들을 위한 연회 개최(4.17, 중통·중방)
- 인민군 열병식 및 평양과 각 지방에서 축포야회·예술공연과 집단체조 진행 등 “김일성 생일 100돌을 성대히 경축했다”고 자축(4.16, 중통)
- 駐北 무관단, 4.16 제14차 김일성화축전장 참관(4.16, 중통·중방)
- 주체사상 세계대회 참가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지역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연구협회 국제연합대표단, 김일성·김정숙에게 선물과 김정일에게 ‘러시아잠수함대 100돌 훈장’ 전달(4.16, 중통)
- 평양시, 4.20 對南 규탄 군민대회 김일성광장에서 진행(4.20, 중통·중·평방·조중TV)
 - 최영림, 최룡해, 리영호, 김정각, 박도춘, 김영춘, 김기남, 최태복, 양형섭, 강석주, 김원홍, 리명수, 김양건, 문경덕, 곽범기, 로두철, 김영대(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장) 등 참가
- 김일성 주석 생일 100돌 경축 공연(수령님 모시고 천년만년 살아가리), 평양체육관에서 진행(4.20, 중통)
 - 黨, 무력, 정권기관,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꾼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등 관람
- 태권도성지 중심(청춘거리), 4.20 준공식 진행(4.20, 중통)
 - 최영림(내각총리), 리영수(黨 부장), 박명철(체육상), 장웅(국제태권도연맹 총재), 김경호(조선태권도위원장) 등 참가
- 대남규탄 평안남도·함경남도 군민대회, 4.21 진행(4.21, 중통)
- 對南규탄 평안북도·강원도 군민대회, 4.22 개최(4.22, 중통·중방)
-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 연설(4.15)을 “세계 1만2,000여개 각종 출판보도물들이 특대소식으로 전하고 5대륙의 수억 명이 시청했다”고 선전(4.22, 중통·중방)

나. 경제

- 北, 개성~신의주 외자고속도로 신설 추진(4/17,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중국 등의 외국 자본 유치를 통해 개성~신의주 고속도로 신설을 계획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7일 보도함.
 - 이 방송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 당국이 계획하는 신규 고속도로는 총 길이 387.1km에 왕복 6차로로 개성과 평양, 신의주를 잇는 현대식 고속도로로 건설되며 이와 별도로 신의주에서 평안북도 향산을 잇는 총 길이 80km 이상의 왕복 4차로 지선도로 건설도 추진됨.
 - 이들 도로 구간에는 휴게소 12곳, 톨게이트 19곳, 인터체인지 18곳, 교차로 1곳이 예정돼 있으며 총 건설비가 65억달러이며, 미국의 설계용역 회사가 고속도로의 설계를 맡은 것으로 돼 있다고 방송은 전함.

● 北 황해남도서 최근 4개월 2만명 아사 정보(4/21, 도쿄신문)

- 북한의 황해남도에서 최악의 기근이 발생해 작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최근까지 2만명이 굶어 죽었다는 정보가 있다고 도쿄신문이 21일 보도
- 이 신문은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김정은 제1비서가 보고를 받고 군용으로 비축해둔 쌀을 풀어 배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음.
- 신문에 의하면 특히 기아가 심각한 지역은 서해 쪽의 백천, 연안, 청단 등 3개 군이며, 이들 지역에서는 올 들어 천명 이상이 굶어 죽는 날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음.

다. 군사

● ‘광명성3호’는 北 우주개발 5개년계획 첫단계(4/16, 조선신보)

- 북한이 지난 13일 강행한 장거리 로켓 ‘광명성 3호 위성’ 발사가 2012년부터 시작된 북한 ‘우주개발 5개년계획’의 첫 단계 사업이었다고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16일 보도함.
- 신문은 북한이 이번에 발사된 운반로켓보다 더 큰 대형로켓과 정지위성 개발에도 곧 착수할 것이라고 전했는데 ‘조선의 우주계획은 계속 추진된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조선(북한)은 2012년부터 나라의 경제적 발전을 위한 우주개발 5개년계획을 실시하고 있다”며 “‘광명성 3호’의 발사는 5개년계획의 첫 단계 사업이었다”고 밝힘.
- 신문은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앞으로) 5년간 지구관측위성의 다음 과제인 정지위성의 개발에 착수한다”며 “또 ‘광명성 3호’를 탑재한 ‘은하 3호’보다 더 큰 대형운반로켓의 개발이 시작된다”고 전함.

● 北 신형미사일 발사대 차량, 중국산 가능성(4/17, 교도통신)

- 북한이 최근 열병식에서 선보인 신형 이동식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발사대 차량이 중국산일 가능성이 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함.

- 이 통신에 의하면 서방의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난 15일 열병식에서 선보인 신형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발사대 차량이 중국이 수출한 특수차량을 토대로 하고 있다는 분석에서 전문가들은 “미사일 발사대 차량이 중국 제로 확인되면 북한에 무기와 관련 물자의 제공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 된다”고 지적하고 있어 중국에 비판이 몰릴 가능성이 있음.
- 북한의 미사일 발사대 차량은 한쪽의 바퀴가 8개로 디자인과 구조가 중국의 군수관련 대기업인 ‘중국우주비행과학기술그룹(中國航天科技集團)’이 개발한 특수차량과 일치하는 것으로 전해짐.

● 北 “종합적 우주개발계획 있어”(4/19,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는 19일 “우리에게는 우주개발기구들을 최첨단 요구에 맞게 확대강화하고 실용위성들을 계속 쏘아 올리는 것을 포함한 종합적인 국가우주개발계획이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밝힘.
-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는 이날 대변인 담화를 통해 “지금 미국이 몇 푼어치의 식량 지원 보따리를 흔들면서 우리의 우주개발권리를 빼앗으려 획책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대변인은 또 13일 발사한 장거리 로켓 ‘광명성 3호 위성’의 실패와 관련,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은 이미 ‘광명성 3호’가 궤도에 오르지 못한 원인에 대해 구체적이며 과학적인 해명을 끝낸 상태에 있다”고 밝힘.

라. 사회·문화

● 北노동신문 “‘태양절’에 백두산서 첫 봄우뢰”(4/17, 노동신문)

- 북한 김일성 주석의 100회 생일(태양절)인 지난 15일 백두산에서 올해 들어 첫 봄우뢰(우레의 북한어)가 울렸다고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이 17일 보도함.
- 신문은 ‘백두산에서 첫 봄우뢰가 울렸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15일 새벽 5시37분 백두산에서 장쾌한 해돋이가 시작됐고 오전 10시 백두산 상공에서 첫 봄우뢰가 장엄하게 울렸다”며 “군단포의 포성과도 같이 연방 터지는 요란한 우뢰 소리는 천지를 들었다 놓았다”고 전함.

- 백두산에서 봄우리는 보통 4월18일께 나타나는데 여느해보다 며칠 앞당겨 4월15일에 올린 것은 기상관측 이래 처음이라고 신문은 밝혔음.

● **北인민극장 개관…은하수악단 개관공연(종합)(4/17, 연합뉴스)**

- 북한이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태양절.4월15일)을 기념해 평양에 건설한 인민극장을 17일 개관, 개관공연으로 은하수 관현악단이 ‘잊지말자 혁명에 다진 그 맹세’를 무대에 올렸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만수대지구에 자리잡은 인민극장은 연건축면적 5만여㎡, 총건평 1만1천 500여㎡로, 지하 2층, 지상 6층에 1천500석의 원형생음극장과 500석의 지하극장을 갖췄는데 김정일 국방위원장 지시로 건설됐으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완공을 앞둔 지난 10일 현장을 찾아 개관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함.
- 이날 공연은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김정각 인민무력부장, 리영호 총참모장, 리용무, 김영춘 국방위 부위원장, 김경희, 박도춘, 최태복, 김기남, 김국태 당비서 등 고위인사들이 관람했으며 장성택, 리영호, 최룡해, 박도춘, 김영춘, 김정각, 리용무 등은 지난 15일 열병식 때처럼 흰색 군복(예복)차림이었음.

● **북한 공식 홈페이지는 15달러짜리(?) (4/19, 美 폭스뉴스 인터넷판)**

- 美 남부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웹디자이너 로버트 웨스트모어는 북한 정권의 새 홈페이지를 자신이 디자인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고 전함.
- 美 폭스뉴스 인터넷판이 19일 보도한바에 따르면 그는 인터뷰를 통해 “정말 몰랐으며, 솔직히 난 북한에 웹사이트가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다”고 말했음.
- 악명높은 전체주의 국가인 북한은 실패한 로켓 발사에는 수억달러를 쓰면서 다른 분야, 특히 웹 디자인에는 인색하기 그지없다고 통신은 전함.

● **美프로농구단 6월 첫 방북 추진(4/21,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 미국 출신 프로선수들로 구성된 농구단이 사상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1일 보도

- 한국 프로농구팀에서 선수생활을 한 루크 엘리씨는 미 프로농구선수들이 6월 방북해 평양에서 시범경기를 하는 문제를 북한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RFA에 밝혔음.
- 엘리씨는 방북에 나설 미 선수단이 주로 아시아에서 활동한 선수들로 구성되며, 감독은 30여 개국에서 선수들을 지도한 선교농구단 감독 출신인 그레그 헤이즈씨라고 소개
- 그러나 선수단 구성과 북한 측의 초청까지 순조롭게 추진되던 미 농구단의 방북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인 ‘광명성 3호 위성’ 발사에 따른 북미관계 악화로 성사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RFA는 전했다.

● 北, 평양 청춘거리에 ‘태권도성지’ 준공(4/21, 노동신문)

- 북한의 평양시 청춘거리에 ‘태권도성지중심’이 완공돼 20일 준공식을 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1일 보도
- 조선식 합각지붕에 연건축면적인 1만수천㎡인 태권도성지중심은 태권도 역사관, 지식보급실, 훈련관, 국제회의실, 편의봉사시설 등을 갖췄다고 신문은 소개
- 준공식에는 최영립 내각총리, 리영수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박명철 체육상, 장웅 국제태권도연맹(ITF) 총재, 김경호 조선태권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

2 대외

가. 일반

- 안보리 北로켓 ‘강력 규탄’ 의장성명 채택(종합)(4/16, 연합뉴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미 동부 시간으로 16일 오전 10시(한국시간 16일 오후 11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strongly condemn) 의장성명을 채택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안보리는 의장 성명에서 “비록 위성 발사나 우주발사체로 그 성격을 규정 하더라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와 마찬가지로 이번 위성 발사도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의 ‘심각한 위반’(serious violation)임을 강조한다”고 밝혔으며 “이러한 발사가 역내에 ‘중대한 안보 우려’(grave security concerns)를 초래했음을 ‘개탄한다’(deplore)”고 말함.
 - 이어 “안보리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추가적인 발사도 진행하지 말 것과 탄도미사일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함으로써 결의 1718호와 1874호를 준수하고,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엄에 대한 기존의 약속을 재확인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 美 “독자 대북제재 강화…대화계획 없다”(4/16, 연합뉴스)
 - 미국 정부는 16일(현지시간)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강행과 관련, 독자적인 대북(對北) 제재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이는 유엔을 통한 다자적인 제재와 (북·미간) 양자적인 제재를 포함한다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기존에 제재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그 이행을 강화하는 방법도 언제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우리가 검토하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설명함.
 - 이어 토너 부대변인은 북·미 추가 대화 전망에 대해 “이번 발사로 북한은 고립심화라는 구덩이에 스스로 몸을 던졌다”면서 “추가적인 대화가 진행될 것이라는 징후가 없고, 현재 계획된 것은 확실히 없다”고 강조했다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건설적인 대화를 할 의지가 있으면

응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북한이 그렇게 할 것이라는 조짐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면서 “이들이 기존의 행태를 이어가는 한 추가 대화의 문은 계속 닫힐 것이고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함.

● **클린턴 “北지도부, 기존정책 재평가해야”(종합)(4/17, 연합뉴스)**

-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16일(현지시간) “북한의 새 지도부가 자신들의 정책을 재평가해야 하며 핵보유국이 되려 하기 전에 자국민을 부양하고 교육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브라질을 방문 중인 클린턴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지난주 북한의 실패한 로켓 발사 문제에 관해 질문을 받고 “북한의 젊은 새 지도부는 이제 명확한 선택을 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자신들 정책을 면밀하게 살피고, 도발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함.

● **北 “안보리 의장성명 전면배격”(4/17, 연합뉴스)**

- 북한은 17일 장거리 로켓인 ‘광명성 3호 위성’ 발사에 따른 대북 추가제재 내용 등을 담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을 전면 배격하고 우주이용 권리를 계속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북한 외무성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또다시 유엔안보장이사회를 도용해 우리의 위성발사 권리를 유린하는 적대행위를 감행했다”며 “우리 공화국의 합법적인 위성발사 권리를 짓밟으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부당천만한 처사를 단호히 전면배격한다”고 밝힘.
- 외무성은 또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보다 훨씬 더 우위를 차지하는 보편적인 국제법들에 의해 공인된 자주적인 우주이용권리를 계속 행사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는 국가우주개발계획에 따라 우주개발기관을 확대강화하고 정지위성을 포함해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각종 실용위성들을 계속 쏘올릴 것”이라고 다짐함.
- 외무성은 “미국은 행동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존중하며 적대의사가 없다’는 약속을 뒤집어엮음으로써 2·29 조미합의를 완전히 깨버렸다”며 “미국이 노골적인 적대행위로 깨버린 2·29 조미합의에 우리도 더이상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우리는 조미합의에서 벗어나 필요한 대응 조치들을 마음대로 취할 수 있게 됐으며 그로부터 산생되는 모든 후과는

미국이 전적으로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밝혀 추가 핵실험이나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불허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음을 내비침.

● **美 “2·29 합의 어긴 것은 北”(4/17, 연합뉴스)**

- 마크 토너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17일(현지시각) 정례브리핑에서 “2·29 합의는 북한이 한 약속이고, 이에 따라 우리는 영양지원을 검토했던 것”이라면서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해 그들이 한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측 약속(영양지원)을 중단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그는 특히 “오늘 성명은 최근 북한의 행태를 고려하면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평가절하했으며 북한의 제3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정보사항을 밝힐 수 없다”면서 “솔직하게 말하면 북한은 아주 불투명한 체제이기 때문에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으며 “우리는 그들의 공식 발언에 대해 분석하고 있으며, 과거에 나쁜 행동의 패턴을 보여왔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덧붙임.

● **중국, 탈북자 강제 복송 중단(4/18, 요미우리신문)**

- 중국이 한국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탈북자의 북한 강제 송환을 중단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8일 보도함.
- 이 신문은 복수의 중국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언제부터인지 시기는 명확치 않지만 탈북자의 송환을 중단했다고 전했으며 라오닝성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작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이후 중국은 거의 매일 많게는 30명까지 탈북자를 북한으로 강제 송환했으나 이를 중단했다고 보도함.

● **北, 4.15행사 中 前외교부장 참석 제안 거부(4/18, 아사히신문)**

-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자제하라는 중국의 요구에 반발해 김일성 주석 생일 100주년 행사 때 리자오싱(李肇星) 전 외교부장의 참석 제안을 거부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8일 보도함.
- 이 신문에 의하면 지난 4월 15일의 김일성 주석 생일 100주년 행사 때 중국은 리 전 외교부장의 참석을 타진했으나 북한이 거부함.

- 소식통은 한·미·일이 북한의 위성이 실제로는 미사일 발사 실험이라며 북한을 비난하고 국제사회에 동참을 강력하게 요구하자, 중국 정부가 현지 각료나 당 간부가 아닌 리 전부장의 파견을 북한에 타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함.
- **유엔기구, 대북 제재 와중에 北에 컴퓨터 제공(4/18, 연합뉴스)**
 - 유엔산하기구인 유엔지적재산권기구(WIPO)가 수개월전 미 휴렛팩커드(HP)사 제품인 컴퓨터와 서버를 은밀하게 북한에 제공했다고 미 폭스뉴스가 인터넷판을 통해 17일 보도함.
 -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WIPO는 중국의 무역업체를 통해 북한에 컴퓨터와 관련 장비를 제공했으며 대금 5만2천638달러를 송금하려 했으나 3월초 유엔의 중국내 거래 은행인뱅크오프아메리카가 미 재무부 규정위반을 내세워 거부하는 바람에 이뤄지지 못했다고 폭스뉴스는 전함.
 - HP는 WIPO가 북한에 제공한 컴퓨터와 서버 등이 자사 제품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성명을 통해 “거래처와 재판매업자의 계약 위반이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힘.
- **美, 안보리에 北 17개 기관 자산 동결 요구(4/18, 연합뉴스)**
 -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위원회에 북한의 17개 기관단체에 대한 자산 동결을 요구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8일 보도함.
 - 이 신문에 의하면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의 무역회사와 금융기관 등 17개 기관단체를 안보리 제재위가 자산 동결 대상에 포함하도록 요구함.
 - 이는 현재 자산이 동결된 8개 기관단체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에 소극적인 중국의 대응이 주목되는데 미국이 안보리 제재위에 제시한 추가 제재 리스트에 17개 기관단체를 명기했으며, 모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곳인 것으로 전해짐.
- **北 송일호 “납치문제로 일본과 4차례 회담”(4/18, 연합뉴스)**
 - 북한의 송일호 북일 교섭담당 대사가 납치 문제와 관련, 일본과 과거 4차례 회담했다고 밝혔다고 18일 연합뉴스가 전함.

- 일본 언론에 의하면 송 대사는 최근 북한을 방문한 복수의 매체에 일본의 나카이 히로시(中井洽) 중의원 예산위원장(전 공안위원장 겸 납치문제담당상)과 일본인 피랍자 문제와 관련 4차례 회담했다고 말함.
- 송 대사는 “일본으로부터 요청이 있어 만났다”면서 “만나고 싶다는 사람이 있으면 어느 당의 누구와도 만나겠다”고 말함.

● **미국방부 “北, 우주항공기술 진전 없다”(4/18, 연합뉴스)**

- 미국 국방부는 18일(현지시간)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와 관련, “이번 실패는 북한이 우주항공 프로그램에서 거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국방부 미사일방어국(MDA) 국장인 패트릭 오라일리 중장은 이날 상원 세출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북한의 시험 발사는 다시 한 번 (미사일) 비행 초기에 실패했다”면서 이같이 강조함.

● **北김정은, ‘영향력 큰 100인’에 선정(4/18, 연합뉴스)**

- 북한의 새 지도자 김정은이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올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됐다고 18일 연합뉴스가 전함.
- 100인에 선정된 주요 인물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美 대선 공화당 유력 주자인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 세계적 투자가 워런 버핏, 영국 왕세자비인 케이트 미들턴과 그의 여동생 피파 미들턴, 중국 시진핑(習近平) 부주석 등임.
- 타임은 “영감을 주거나, 우리를 즐겁게 하거나, 우리에게 도전하거나, 세상을 바꾸는” 인물들을 선정했다고 밝힘.

● **패네타, 北 이동미사일 공개에 우려(종합)(4/19, 연합뉴스)**

-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은 19일(현지시간) 북한이 최근 군사 퍼레이드에서 공개한 이동 미사일 장비에 대해 미국이 우려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패네타 국방장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미 하원 군사위원회 보고를 통해 이같이 말했으며 “북한이 만일 실제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의 이동발사 능력을 갖췄다면 그로 인한 북한의 잠재적 위협은 증가한 것”이라고 지적함.

● **美 “中, 유엔안보리 결의 준수할 것”(4/19, 연합뉴스)**

- 미국 정부는 19일(현지시간) 중국의 북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 지원 의혹과 관련, 중국 정부에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를 우회적으로 촉구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런 의혹에 대한 대응방침을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피한 채 “중국은 그동안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를 충실하게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해왔다”고 말함.
- 그는 그러면서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이후에 중국이 이런 방침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느냐’는 질문에 “내가 아는 바로는 없다”면서도 “우리는 그들의 말을 믿는다”라고 강조함.

● **패네타 美국방 “中, 北미사일 개발 지원”(4/19, 연합뉴스)**

-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은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지원해왔다고 말했다고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가 전함.
- 패네타 장관은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중국이 “무역과 기술 교환”을 통해 북한 미사일 개발을 지원했느냐는 물음에 “중국으로부터 어떤 도움이 있었다고 확신한다. 그러나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는 모른다”고 밝힘.
- 그는 “그러나 분명히 지원은 있었다”며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개발과 핵 무기능력은 미국에 위협이 된다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북한과 그들의 도발적인 행동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말함.

● **北, 日에 일본인 유골 반환 제안(4/20, 교도통신)**

- 북한이 일본에 2차 세계대전 전후 남겨진 일본인의 유골 반환을 제안했다고 교도통신이 20일 보도함.
- 이 통신에 의하면 송일호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담당 대사는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평양을 방문한 일본 방북단에 이런 의향을 밝혔는데 송 대사는 북한에서 일본인으로 보이는 유골이 발견됐다면 서 일본 측으로부터 수집과 반환 요청이 있을 경우 얼마든지 응하겠다고 말함.

- **北 합의파기 美 망신주려는 책략<美 전한국과장>(4/20, 교도통신)**
 - 북한이 미국과 지난 2월 타결한 합의를 장거리 로켓을 발사함으로써 파기한 것은 미국의 체면을 잃게 하려는 계산된 술책이라고 데이비드 스트로브 전 미국 국무부 한국과장이 20일 밝혔다.
 - 교도통신에 따르면 방일 중인 스트로브 전 과장은 이날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일시 중단 등의 대가로 식량지원을 받기로 미국과 합의하면서 장거리 로켓을 쏘아 올린 게 미국을 망신시키기 위한 책략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스트로브 전 과장은 장거리 로켓 발사를 계획하며 합의를 맺은 북한이 “미국을 속였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北 신형 이동미사일은 실물아닌 가짜<美전문가>(4/21, 일본 요미우리신문)**
 - 북한이 지난 15일 군사 퍼레이드에서 공개한 신형 이동미사일은 실물이 아니라 가짜라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1일 보도
 - 신문에 따르면 미국 정책연구기관인 ‘걱정하는 과학자들의 모임(Union of Concerned Scientists)’의 미사일 전문가 데이비드 라이트는 전날(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세미나에 참석해 북한의 이동미사일이 “종이를 여러 겹 발라 만든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했다.
 - 라이트는 평양의 열병행사에 초청받은 각국 취재진이 촬영한 미사일 6기의 선명한 사진을 비교한 결과 동체 표면에 늘어진 전선용 관(duct)의 설치 장소와 미사일을 고정하는 벨트의 위치가 조금씩 다른 등 의문스러운 점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 **‘대화파’ 美진보논객 “北 더는 못 믿어”(4/22, 연합뉴스)**
 - 북핵문제 해결의 유일한 길을 ‘협상’이라고 주장해온 미국의 대표적인 진보논객이 북한과 더이상의 대화는 어렵다는 강경론을 내놔 눈길을 끌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22일 전함.
 - 21일(현지시간) 미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사회과학원의 리언 시걸 동북아안보협력프로젝트 국장은 최근 격월간 국제전문지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은 신뢰할 수 없는 새 길을 가고 있다”며 최근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를 강하게 비판했음.

- 시걸 국장은 북한의 이른바 '2·29 합의' 파기에 대해 “이번에는 (과거와) 다른 양상이고, 더욱 위험해 보인다”면서 “더는 미국과의 관계개선 의지가 없고, 핵·미사일 개발을 자제하려는 의지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음.

● **北노동당-中공산당 베이징서 전략대화(4/22, 조선중앙통신)**

- 북한 노동당과 중국 공산당이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전략대화'를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
- 회담에는 북한 측에서 김영일 노동당 국제비서와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가, 중국 측에서는 왕자루이(王家瑞)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참석
- 김영일과 왕자루이의 회담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광명성 3호 위성' 발사 이후 이뤄진 양측간 최고위급 회담임.
- 통신은 “쌍방은 조중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해서와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대화는 동지적이며 친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전했다. 왕자루이는 이날 북한 노동당 대표단을 위해 연회를 마련했음.
- 중국 신화통신도 21일 북중 '전략회담' 소식을 보도하면서 “양측은 공산당과 노동당 간 교류 증진과 협력, 그리고 다른 국제 및 지역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심도있게 교환했다”고 전했다.

■ 기타 (대외 일반)

- 北 '외무성' 대변인 성명(4.22), '현 남북관계 정세가 긴박하게 된 것은 남측 책임'이라고 주장하며 '민족내부 문제에 개입하려는 동맹국'에 대해서도 위협 발언(4.22,중통)
- 北노동당(김영일 등 黨대표단) - 中공산당(왕자루이 王家瑞 대외연락부장), 4.21 베이징에서 '전략대화' 진행(4.22,중통·중방)
- 중국 국무위원 다이빙궈(戴秉國), 베이징 다오위타이(釣漁臺)에서 북 노동당 대표단을 위한 환영 만찬 개최(4.22,중방)
- 일본 수상 망언("일본군 성적노예문제" 표현은 역사적 사실과 다르다)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정면부정, 피해자들과 인류양심에 대한 우롱'이라고 개탄 및 '과거범죄 청산' 촉구(4.22,중통·민주조선/만사람을 경악케 하는 망발)

나. 6자회담(북핵)

● IAEA, 北방문 가능성 낮아(4/17, 연합뉴스)

-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한 측이 미사일과 핵실험 동결과 관련된 미국과의 합의가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발표한 만큼 핵시설 사찰을 위한 북한 방문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17일(현지시간)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IAEA의 길 튜더 대변인은 “북한의 이번 발표를 감안할 때 IAEA가 북한의 요청에 따라 대표단을 파견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함.

● 北 핵실험 등 임시중지 해제는 당연(4/19, 조선신보)

- 2·29 북미합의가 깨짐으로써 북한이 약속한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영변 우라늄농축활동 임시중지조치는 당연히 해제된다고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19일 보도함.
- 신문은 “조선외무성 성명은 ‘우리는 조미합의에서 벗어나 필요한 대응조치들을 마음대로 취할수 있게 됐다’고 했다”며 “대응조치가 무엇인지 예단할 수는 없으나 조선은 모든 일을 자주권, 생존권 수호의 견지에서 정당당당하게 해나갈 것”이라고 밝힘.
- 신문은 “오바마 정권이 조선의 행동을 도발로 몰아붙이고 여론을 오도해 봤자 소용이 없다”며 “올해 대통령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는 정권이라면 허세를 부리기 전에 조선이 대응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산생되는 후과부터 고려하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함.

● 북한, 3차 핵실험 실시 준비 완료(4/20, 일본 후지TV 온라인 뉴스 FNN)

- 북한은 핵실험용 지하시설의 굴착공사 등을 끝내고 다시 핵실험을 할 준비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일본 후지TV 온라인 뉴스 FNN이 20일 보도
- FNN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 북한의 제3차 핵실험에 대해 “외형적인 준비가 갖춰졌으며, 언제 핵실험을 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전했으며 이에 따라 일본과 미국 정부는 앞으로 북한이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방송은 밝혔음.
- 북한은 지난 13일 장거리 로켓 발사가 실패로 끝나자 핵실험 준비에 박차를 가한 것으로 관측된다고 FNN은 지적했음.

3 대남

- 北 “서울 날려보내는 특별행동조치 할 수도”(4/18,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4월15일 태양절)을 맞아 이명박 정부가 ‘최고 존엄’을 모독했다며 복수를 천명하면서 서울의 모든 것을 날려 보낼 수도 있다고 18일 조선통신이 전함.
 - 통신에 따르면 북한 인민군 최고사령부는 18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태양절 100돌을 성대히 경축한 바로 이러한 때 이명박역도와 그 패당만은 동족의 축제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우리의 최고존엄을 모독하는 극단의 도발광기를 부리며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함.
 - 성명은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소속 반동과 깡패 대학생 무리들을 서울 광화문광장을 비롯한 곳곳에 내몰아 우리의 최고존엄을 건드리는 망나니짓을 벌여놓게 만들고 있는 것이 이명박 역적패당”이라며 “우리의 최고수뇌부를 형상한 모형을 만들고 거기에 총질까지 해대는 난동을 부리도록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고 주장함.

- 北 “최고존엄 모독 사죄 안하면 복수성전”(4/19,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19일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4월15일 태양절)을 맞아 이명박 정부가 ‘최고존엄’을 모독했다며 사죄를 요구하고 나섰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북한의 정부·정당·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괴뢰역적패당은 태양절행사를 중상모독한 중대범죄에 대해 당장 사죄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천만군민은 활화산같은 분노를 총폭발시켜 복수의 성전에 떨쳐나설 것이며 이땅에서 괴뢰역적패당을 영영 쓸어버릴 것”이라고 밝힘.

- 北, 이대통령에 막말·욕설 동원 원색비난(4/20,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20일 원색적인 막말과 욕설까지 동원해 이명박 대통령을 맹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내용은 ‘인간의 탈을 벗은 희세의 야만들’이란 제목의 논평에서 이 대통령의 지난 16일 라디오연설 내용에 대해 “우리 체제와 최고 존엄을 모독하는 특대형 범죄”라고 규정하고 ‘이명박 쥐XX’라는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며 이 대통령을 비난했음.

- 이 대통령은 16일 라디오연설에서 “북한이 살 길은 스스로 핵무기를 포기하고 개혁·개방을 통해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으며, 이에 통신은 “이명박 취XX는 이 세상 구석구석을 다 뒤져서라도 잡아내 말려 죽이려는 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보복 일념”이라고 밝혔다.

● 北 평양서 대남 규탄 대규모 군중집회(종합)(4/20,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20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는 평양시 군민 대회를 열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대회는 리일환 평양시 당비서의 사회로 오금철 조선인민군 부총참모장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낭독하는 것으로 시작해 송원익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남철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부장 등이 규탄 연설을 했음.
- 이날 행사에는 최영립 내각총리, 리영호 총참모장, 최룡해 군총정치국장, 김영춘, 김기남, 최태복, 문경덕, 김양건 당비서, 조병주, 로두철 내각부총리, 전용남 청년동맹 1비서 등이 참석

● 李대통령 “北 개방 앞서 농지개혁해야”(종합)(4/21, 연합뉴스)

-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북한의 새 지도자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해 농지개혁 단행을 촉구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이 대통령은 이날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진행된 통일정책 최고위과정에서 특별강연을 통해 “북한도 집단농장을 할 게 아니고 ‘쪼개 바칠 것은 바치고 네가 가져라’라고 하면 쌀밥 먹는 것은 2~3년 안에 (가능할 것)”이라며 “농지 개혁을 하면 개인적으로도 더 벌고 국가적으로도 수입이 는다”고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 이 대통령은 이어 “북한은 그것(농지개혁)을 해야 된다. 젊은 지도자(김정은)가 그것 하나 하면 되는 것”이라며 “가장 시급한 것이다. 개방 이전에 그것부터 해야 한다”고 주문했음.

● 李대통령 “통미봉남은 옛말..이젠 ‘통중봉북’”(4/21, 연합뉴스)

- “통미봉남(通美封南)은 지나간 과거사다. 나는 오히려 통중봉북(通中封北)이 맞다고 본다.”고 전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20일 종로구 삼청동

- 남북회담본부 회담장에서 열린 통일정책 최고위 과정 특별강연에서 새로운 한·중 관계를 포함해 한반도 주변 역학관계를 이같이 제시했음.
- 이 대통령은 “협상을 하든 뭘 하든 그것은 한미간에 합작이다. 미국도 이렇게 이야기 했다”면서 “20년, 30년 전에 쓰던 통미봉남이라는 말을 현재 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음.
 - 이 대통령은 “중국은 남과 통하고 북을 봉쇄하는 게 아니냐”고 현재 상황을 진단했다며 올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개시하는 등 양국 관계가 점차 긴밀해 지는 점을 언급한 것임.
 - 북한이 최근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고 핵실험과 같은 추가 도발을 할 경우 혈맹으로 북한을 옹호했던 중국도 결국은 등을 돌릴 수 있다는 ‘경고’의 의미를 담은 것으로도 풀이됨.

기타 (대남)

- 李大統領의 ‘北, 4.15 행사비용’ 및 ‘핵과 미사일위협’ 발언 등을 거론 “극악한 중대도발”이라며 ‘동족에 대한 극도의 적대감과 존엄높은 체제에 대한 무조건적인 거부감의 발로’라고 비난(4.20, 중통·노동신문·평방/참을 수 없는 모독, 극악한 중대도발)
- 『조평통』 대변인 기자회견(4.21) 이대통령의 국방과학연구소 방문 및 미사일 발사장면 공개를 비난하며 ‘호전광들이 조금이라도 바스락거리면 그 기회에 아예 남쪽땅을 완전히 타고 앓을 것’이라고 위협(4.21, 중통)
- 통일부 장관의 기자간담회 발언(4.18, 北 장거리 로켓 발사 및 열병식 등 언급 및 도발에는 대가가 따른다)에 대해 “동족대결근성의 필연적발로”라고 비난(4.22, 중통·노동신문·평방/본색을 드러낸 대결미치광이)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4.23-4.30

4월

4주차

1. 대내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군사
- 라. 사회·문화

2. 대외

- 가. 일반
-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1 대내

가. 정치

- **北 총리 주재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4/23,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최영립 내각총리를 비롯한 내각 성원이 참석한 가운데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전함.
 - 회의에서는 ‘1분기 인민경제계획 수행정형 총화와 2분기 인민경제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2012년 국가예산을 정확히 집행할 데 대하여’를 토의함.
 - 통신은 1분기 공업총생산액이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103% 늘었으며 수십 개의 위원회, 성, 중앙기관과 수천 개의 공장, 기업소가 분기 공업총생산액 계획을 수행했다고 전함.
 - 2분기 중심과업에 대해서는 “모든 역량을 총집중해 봄철 영농사업을 제철에 해제킴으로써 올해 농사 성과의 담보를 마련하고 인민소비품 생산에 전환을 일으키며 인민경제 4대 선행부문에서 전반적 생산을 활성화하고 올해 인민경제계획 수행의 돌파구를 열어내는 것”이라고 통신은 설명함.
- **北, 최룡해 군 건설현장 시찰 이례적 보도(4/25, 조선중앙통신)**
 - 북한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이 24일 김형직사범대학 개건보수공사장을 현지 요해(了解. 파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전함.
 - 통신은 최룡해가 건설 현장에서 “김정은 동지의 의도에 맞게 김형직사범대학 개건보수공사를 최상의 수준으로 빨리 끝내기 위한 공사에서 노력적 성과를 이룩하고 있는 군인건설자들을 고무했다”고 전함.
- **北 ‘인민군 창건 80돌’ 행사…김정은 참석(종합)(4/25,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인민군 건군일로 정한 25일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건군 80돌 경축 중앙보고대회를 열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전함.
 - 대회에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비롯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영립 내각총리,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등 당·정·군 고위간부들이 참석했으며 주석단에는 한때 좌천설이 나돈 김격식 전 4군단 사령관도 모습을 나타남.

- 리영호 인민군 총참모장은 중앙보고대회 보고에서 “인민군대는 제국주의자들이 떠드는 고도기술무기들을 일격에 격파 분쇄할 수 있는 위력한 현대적 무기로 (충분히) 장비되게 됐다”며 “인민군대는 그 어떤 현대전에도 능히 대처할 수 있는 우리식의 공격수단과 방어수단들을 완비한 천하무적의 백두산 혁명강군의 위용을 떨치고 있다”고 강조함.
- 김 1위원장은 이날 건군절 80돌을 맞아 금수산태양궁전도 참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北김정은, 건군 80돌 경축 합창공연 관람(4/26,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25일 평양의 4·25 문화회관에서 열린 인민군 창건 80돌 경축 공훈국가합창단 공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공연 관람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영림 내각총리, 최룡해 군총정치국장, 리영호 총참모장, 김정각 인민무력부장,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김경희, 박도춘, 김영춘, 김국태, 김기남, 최태복, 현철해 당비서, 강석주 내각 부총리,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등이 함께 함.

● **北김정은, 무장장비관 건설 군인들과 기념사진(4/26,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조선인민군 무장장비관을 완공한 군인 건설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전함.
- 기념촬영에는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리영호 총참모장, 김정각 인민무력부장,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김영춘 국방위 부위원장, 김기남, 박도춘 노동당 비서, 현철해 인민무력부 1부부장,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리명수 인민보안부장 등이 함께함.

● **北김정은, 군부대 ‘보복타격’ 훈련 참관(4/28,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인민군 창건 80돌을 맞아 진행된 북한군 제655연합부대의 종합전술연습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전했다.
- 통신은 종합전술연습이 진행된 날짜는 밝히지 않았으며, 훈련에는 비행대, 탱크와 장갑차, 포부대, 보병부대 등이 동원됐음.

- 훈련장에서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리영호 총참모장, 김정각 인민무력부장, 현철해 인민무력부 1부부장,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리명수 인민보안부장 등 북한군 고위간부들이 김 1위원장을 영접했으며, 장성택, 김영춘 국방위 부위원장, 김경희, 김기남 노동당 비서 등 당·정·군의 고위간부가 김 1위원장과 함께 훈련을 참관했음.

● **김정은, 진군 80돌 경축 은하수음악회 관람(4/28,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평양 인민극장에서 열린 인민군 창건 80돌 경축 은하수음악회 ‘잊지 말자 혁명에 다진 그 맹세’를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
- 공연을 관람한 김 1위원장은 “은하수관현악단은 장군님(김정일)께서 손때 묻혀 키우신 예술단체”라며 “역시 은하수”라고 치하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 공연 관람에는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리영호 총참모장, 김경희 당 비서, 김정각 인민무력부장, 장성택, 김영춘 국방위 부위원장, 김기남, 박도춘 당 비서, 현철해 인민무력부 1부부장,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김경옥 당 조직부 1부부장, 김명국 총참모부 작전국장 등이 함께했음.

● **<북한단신> 인민군 창건 80돌 경축 연회(4/28, 조선중앙통신)**

- 북한 인민군 창건 80돌 경축 연회가 27일 저녁 평양 목란관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
- 연회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영림 내각총리 등 당·정·군 간부들이 참석했으며, 연회에서는 왕재산예술단 공연이 있었음.

● **北김정은, 군사과학기술 전람회장 시찰(4/30,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조선인민군 제26차 군사과학기술 전람회장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
- 통신은 김 1위원장이 총건평 2만1천여㎡에 개건한 조선인민군 과학기술 전람관의 1~2층 실내전시관과 야외전시관을 둘러보고 인민군대 안의 과학자, 기술자, 연구사, 군인들이 이룩한 과학연구사업 성과를 치하했다고 전함.

- 시찰에는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리영호 총참모장, 김정각 인민무력부장, 장성택, 김영춘 국방위 부위원장, 현철해 인민무력부 1부부장, 김명국 총참모부 작전국장, 리재일 당 1부부장 등이 수행

김정은동향

- 4/23, 김정은은 黨 제1비서, 4.23 중국 후진타오 주석 축전에 답전(4.23,중통·중방)
- 4/25, 김정은은 국방위 제1위원장, 4.25 인민군 창건(4.25) 80돌 경축 중앙보고대회(4.25문화회관) 참석(4.25,중·평방·중통·중앙 TV)
 - 김영남, 최영림, 최룡해, 리영호(보고), 김경희, 김정각, 장성택, 박도춘, 김영춘, 김국태, 김기남 (사회), 최태복, 양형섭, 강석주, 현철해, 김원홍, 리명수, 오극렬, 김양건, 김영일, 김평해, 문경덕, 곽범기, 주규창, 김창섭, 로두철, 리병삼, 조연준, 김영대 등
- 4/25, 김정은은, 4.25 금수산태양궁전 김일성·김정일에게 경의 표시(4.25,중·평방·중통)
 - 김영남, 최영림, 최룡해, 리영호, 김경희, 김정각, 장성택, 김영춘, 김국태, 김기남, 최태복, 박도춘, 양형섭, 강석주, 현철해, 김원홍, 리명수, 김양건, 김영일, 김평해, 문경덕, 주규창, 곽범기, 김창섭, 리병삼, 로두철, 조연준 등 참가
- 4/25, 김정은은, 4.25 공훈국가합창단 공연(4.25문화회관) 관람(4.25,중통·중·평방)
 - 김영남, 최영림, 최룡해, 리영호, 김경희, 김정각, 장성택, 박도춘, 김영춘, 김국태, 김기남, 최태복, 양형섭, 강석주, 현철해, 김원홍, 오극렬, 리명수, 김양건, 김평해, 문경덕, 곽범기, 주규창, 김창섭, 로두철, 리병삼, 조연준, 김영대 등 동행 관람
- 4/26, 김정은은, 4.25 새로 건설된 만수교교기상점(평양 보통강변) 준공식 참석(4.26,중통·중방)
 - 김영남, 최영림, 최룡해, 리영호, 김경희, 김정각, 장성택, 박도춘, 김영춘, 김기남, 최태복, 양형섭, 강석주, 현철해, 김원홍, 리명수, 김양건, 김평해, 문경덕, 곽범기, 주규창, 김창섭 등 참여
- 4/26, 김정은은 黨 제1비서, 무장장비관 건설에서 위훈을 세운 군인건설자들과 기념사진(4.26,중통·중방)
 - 최룡해, 리영호, 김정각, 장성택, 김영춘, 김기남, 박도춘, 현철해, 김원홍, 리명수, 주규창, 김창섭, 리병삼, 최부일, 손철주, 박재경, 김영철, 조경철, 윤동현, 김수학, 리재일 참가
- 4/28, 김정은은 제1위원장, 제655연합부대 종합전술연습 지도(4.28,중통·중방)
 - 최룡해, 리영호, 김정각, 최부일, 현철해, 김원홍, 리명수, 박재경, 리병철, 김영철, 윤정린, 조경철, 박정천, 손철주, 김경희, 장성택, 김영춘, 김기남, 양형섭, 박도춘, 강석주, 김영일, 김양건, 김평해, 문경덕, 김창섭, 리병삼, 곽범기, 오일정, 김경옥, 리재일, 한광상, 김명국 등 참관
- 4/28, 김정은은, 인민극장에서 軍 창건 80돌 경축 은하수음악회 관람(4.28,중통·중방)
 - 최룡해, 리영호, 김경희, 김정각, 장성택, 김영춘, 김기남, 박도춘, 현철해, 김양건, 김경옥, 김명국 등 관람
- 4/29, 김정은은 제1비서, 조선인민군 제26차 군사과학기술전람회장 참관(4.29,중통·중·평방)
 - 최룡해, 리영호, 김정각, 장성택, 김영춘, 현철해, 손철주, 박재경, 김영철, 리재일, 김명국, 윤동현, 전창복, 박정천 동행
- 4/29, 김정은은 제1비서, 평양시민들과 함께 조선인민군교예단 대형예술공연 관람(4.29,중통·중·평방)
 - 최룡해, 리영호, 김정각, 장성택, 김영춘, 현철해, 최부일, 김영철 등 함께 관람
- 4/30, 김정은은 제1위원장, 장성택과 능라인민유원지 개발사업 현지지도(4.30,중통)

기타 (대내 정치)

- '김정은 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자주·선군·사회주의의 길로 역세계 전진하며 주체혁명의 새 승리를 이룩해 나갈 것'을 호소(4.23,중통·노동신문·중방/김정은 동지의 영도따라 주체혁명의 위대한 새 승리를 향하여 역세계 전진하자)
- 對南 규탄 시(구역)·군 군민대회, 각각 개최(4.28,중통·중방)
-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 육성 연설(4.15, 열병식)을 "세계 12,000여개 출판 보도물들 보도, 5대륙 수억명이 시청했다"며 中 인민일보 등 내용 소개(장엄한 출발 선언 등) 선전(4.28,중방/조선에서 김정은 시대가 맞을 올렸다)

나. 경제

● 北, 하얼빈~금강산 관광 잠정중단 안했다(4/23,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김일성 주석100회 생일(4월15일·태양절) 기간에 하얼빈~금강산 국제관광을 실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전함.
- 통신은 "지난 13일부터 3박 4일간 일정으로 전세계에 의한 하얼빈~금강산 국제관광이 있었다"며 "해금강과 구룡폭포, 만물상 등지의 산천경계를 부감(높은 곳에서 내려다봄)하며 관광객들은 그 신비로운 세계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전함.

● 北농업성, 비료 20만t 해외구매 지시(4/25, 좋은벗들)

- 북한 농업성이 무역성 일꾼에게 비료 20만t을 구입하라고 지시했다고 대북인권단체 (재)좋은벗들이 25일 전함.
- 이 단체가 운영하는 북한연구소의 소식지 '오늘의 북한소식'(452호)은 이 지시에 따라 무역성 일꾼 10여 명이 비료를 포함한 농자재 구입을 위해 해외에 파견됐지만 중국산 비료 구매가 사실상 불가능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힘.
- 중국은 올해 1월부터 비료 수출을 제한하려는 목적으로 비료수요 기간에 특별관세율을 부과해 화학비료와 염화암모늄 등 각종 비료제품은 1~5월과 10~12월에 75%의 특별수출세를 부과하고 있어 이 때문에 무역성 일꾼들은 러시아산 비료 구매방안을 알아보고 있지만 비료 구입에만 약 1억 달러 이상 드는 것으로 파악돼 이마저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소식지는 전함.

● **평양 고기상점 준공식에 北지도부 총출동(4/26,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25일 평양 만수교 고기상점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연건축면적 5천여㎡의 만수교 고기상점 1층에는 생선매장이, 2층에는 육류 및 가공품 판매매장, 3층에는 불고기식당이 들어섰는데 김 1위원장은 지난 1월과 3월 상점 건설장을 찾아 주민들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건설하라고 지시한 바 있음.
- 준공식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영림 내각총리, 최룡해 군총정치국장, 리영호 총참모장, 김정각 인민무력부장,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김경희, 박도춘, 김영춘, 김국태, 김기남, 최태복, 현철해 당비서, 강석주 내각 부총리,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등도 참석함.

● **北, 중국인 북한 단체관광 재개(4/27,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김일성 주석 생일(4월15일·태양절) 전후로 중단한 중국인의 북한 단체관광을 25일 재개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중국내 여행사를 인용해 27일 전함.

● **北 무연탄 매장량 세계 2위...지하자원 보물고(4/30, 조선신보)**

-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30일 북한의 무연탄 매장량이 150억t으로 추정되며 매장량 면에서 세계 2위라고 보도
- 신문은 “종래 제철에서는 코크스가 필수적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코크스 대신 무연탄으로 제철공업을 발전시켜왔다”며 “앞으로 주체철 생산이 대대적으로 진행된다면 인민경제 발전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함.
- 또한 “우리나라(북한)는 세계광물의 표본실이라 불리는 지하자원의 보물고”라며 “매장량에서 무연탄 2위, 마그네사이트 3위, 아연 7위, 텅스텐은 9위를 차지한다”며 “주목되는 것은 우라늄, 망간, 티타늄 등 최첨단기술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광물자원이 많다는 것”이라고 전함.
- 신문은 또 “(함경남도) 단천지구를 비롯한 각지의 마그네사이트 매장량은 54억t”이라며 “단천은 원래 수심이 깊은 항인데 수년간의 항만 공사가 끝나고 머지않아 동해의 또 하나의 근대적인 무역항으로 출발한다”고 소개

● 남포~평양 바닷물 수송관 준공식(4/30, 조선중앙통신)

- ‘남포~평양 바닷물 수송관’ 준공식이 남포시 와우도구역에서 30일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통신은 “수송관 건설이 끝남으로써 바닷물로 먹는 물을 소독해 나라에 많은 이익을 주고 평양곰등어관과 중앙동물원 수족관에 바닷물을 원만히 공급해 인민들의 문화정서 생활에 이바지할수 있게 됐다”고 밝힘.

다. 군사

● 中기업, 작년 北미사일 차량 판매 ‘자랑’(4/24, 연합뉴스)

- 북한에 미사일 운반 차량의 차대를 판매한 것으로 미국 당국이 추정하는 중국 기업이 지난해 자체 웹사이트에 언론발표문을 통해 그같은 판매사실을 자랑한 것으로 보인다고 유엔 외교관들이 24일(현지시간)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미 정보 당국은 ‘후베이 썬장 스페이스 왕산 스페셜 비히클(湖北三江航天萬山特種車輛有限公司·이하 후베이썬장)’이라는 중국 기업이 북한에 완성차가 아닌 차대를 판매했고 그것도 민수용으로 여겼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한 미국 관리가 말했으며 이 관리는 이 중국 기업이 구매자의 실체를 은폐할 의도로 나선 ‘간판 회사’에 차대를 판매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함.

● 北, 평양서 인민군 건군 80돌 경축 보고대회(4/25, 조선중앙통신)

- 북한 인민군 건군 80돌 경축 중앙보고대회가 25일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통신은 “김일성 동지께서 조선인민군을 창건하신 80돌이 되는 날을 경축하는 중앙보고대회가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성대히 진행됐다”고 밝힘.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중앙보고대회에 참석함.

● 中, 작년 5월 북한에 발사대 차량 8대 수출(4/27, 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 15일 열병식에서 선보인 신형 이동식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발사대 차량은 지난해 중국에서 수입한 것이라고 캐나다에 본부를 둔 중국 전문 민간 군사연구기관 ‘칸와(漢和) 정보센터’가 26일(현지시간)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밝힘.

- 통신에 따르면 칸와 정보센터는 이날 북한의 신형 미사일 발사대 차량과 관련, 중국기업이 작년 5월 8대를 수출했으며 칸와 정보센터는 그간 중국산일 가능성이 제기된 발사대 차량을 조사한 결과 중국이 수출한 것에 미국제 디젤엔진과 독일제 변속기를 단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함.

라. 사회문화

● 중국방문 北주민 급증...전년比 40% ↑ (4/24, 미국의소리(VOA))

- 중국을 방문하는 북한 주민이 급증하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4일 전함.
- 중국 관광정책 담당부처인 국가여유국이 23일 공개한 '1분기 외국인 입국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중국을 방문한 북한 주민은 4만2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만8천600명보다 40.5%나 늘어났음.
- 올해 1분기 방중한 북한 주민 중 공장이나 식당 등에서 일하려고 방문한 사람이 1만9천300명(48%)으로 가장 많았고, 회의 참석이나 비즈니스 용무 1만800명(27%), 관광 1천100명 등 순으로 집계되었으며 연령별로는 45~64세가 1만9천100명으로 가장 많고, 25~44세 1만7천200명으로 낮고, 성별로는 남성이 3만3천200명(83%), 여성은 7천명이었음.

● 北 10대인구 2050년에 지금보다 24% ↓ <유니세프>(4/26, 미국의소리(VOA))

- 북한의 10대 청소년 인구가 2050년에는 현재보다 24% 감소할 것으로 유엔 아동기금(UNICEF)이 전망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6일 전함.
- 유니세프는 25일 내놓은 '어린이 발전 백서'(Progress for Children)에서 2010년 북한의 10~19세의 청소년 인구를 4백12만3천명으로 추산하고 2050년에는 이보다 24% 감소한 3백11만6천명이 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에 따라 전체 북한인구 중 10대 청소년 비율도 2010년 17%에서 2050년에는 12%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봄.

● 北, 일본인 납치피해자 강제 이주(4/29, 산케이신문)

- 북한이 일본인 납치피해자를 강제 이주시키는 등 비밀 유지를 위해 엄중히 관리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29일 보도
- 이 신문은 일본의 시민단체인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한 전국협의회(구하는 모임)’가 북한의 유력한 당국자로부터 이런 정보를 입수했다고 전했으며, 북한은 2007년과 2008년 일본인 피랍자의 정보를 입수하려 시도한 인물을 체포한 뒤 비밀경찰인 국가안전보위부가 피랍자에게 접근하는 사람은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처벌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함.
- 또 일본인 피랍자를 엄중한 관리하에 두기 위해 강제 이주시킨 것으로 전해졌음.

● UNHCR 대표 “中 탈북자 복송 중단 안했다”(4/29,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요미우리신문)

- 중국이 최근 탈북자 강제복송을 중단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에 대해 유엔 난민최고대표사무실(UNHCR)의 안토니오 구테레스 최고대표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9일 보도
- RFA는 미국 의회 소식통을 인용, 구테레스 최고대표가 지난 27일 오전 미 의회 관계자들에게 중국내 탈북자 문제에 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18일 중국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광명성 3호 위성’ 발사와 관련해 북한으로부터 사전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탈북자 강제복송을 중단했다고 보도한 바 있음.

2 대외

가. 일반

- **백악관 “北 추가도발 배제 못해”(종합)(4/24, 연합뉴스)**
 - 미국 백악관은 23일(현지시간) 북한의 ‘대남 특별행동’ 위협과 관련, 추가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24일 전함.
 - 제이 카니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정권은 분명히 도발적인 행동으로 알려져 있고, 연속적으로(in a series) 도발을 해왔다”면서 “따라서 도발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함.
 - 카니 대변인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는 특별히 대응할 게 없다”면서 “다만 북한 정권의 행동은 국제사회의 규탄을 초래했고, 영양지원을 진전시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비판함.

- **중국, 북한에 도발행위 자제 촉구(4/24, 교도통신)**
 - 중국 정부는 24일 북한이 ‘대남 특별행동’을 개시하겠다고 위협한 데 대해 자제를 촉구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함.
 - 통신에 따르면 류웨이민(劉爲民)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베이징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 “한반도 정세의 안정을 해치지 말기를 관련 당사국에 촉구한다”고 강조해 북한에 추가 도발에 나서지 말 것을 당부함.
 - 류 대변인은 “최근 한반도 정세의 발전에 강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혀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며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의 동향에 경계감을 나타냄.

- **美에 우호적인 中..새로운 협력시대 도래?(4/28, 연합뉴스)**
 - 최근 중국이 북한과 이란, 시리아 등을 둘러싼 국제안보 문제에서 미국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28일 전함.
 - 하지만 이는 때마침 일부 중요한 사안에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데 따른 것일 뿐 양국간에 새로운 화해의 시대를 알리는 전조로 보기에에는 이르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27일(현지시간) 보도

- 중국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로켓 발사를 강행하자 이를 강하게 규탄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성명에 순순히 찬성했으며, 안보리의 시리아 결의안에 두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휴전 감시단을 파견키로 하는 결의안에도 제동을 걸지 않았음.
- 앞서 2월에는 이란산 원유 수입을 대폭 줄였고 이란이 1년만에 핵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는데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음.
-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양국 관계에 대한 선부른 낙관론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음.

● 美, 인공위성 수출규제 완화 추진..北은 제외(4/30, 연합뉴스)

- 미국 정부가 10여년만에 인공위성 관련 부품에 대한 수출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북한 등에 대해서는 규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30일 연합뉴스가 전함.
- 29일(현지시간)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미 국방부와 국무부는 최근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인공위성 관련 부품을 군용물자리스트(USML)에서 상무부통제리스트(CCL)로 옮기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함.

기타 (대외 일반)

- 北 외무성 대변인 담화(4.23) 장거리 로켓 발사 관련 '미국의 이중기준 적용은 대북적대시정책의 산물이며, 이런 적대시정책을 국제화하는데 유엔을 악용하고 있다'고 비난(4.23,중통·중방)
- 김영일(黨 비서), 4.23 후진타오 中 공산당 총서기 예방(4.24,중통)
 - 후진타오, 김정운을 수반으로 하는 노동당과 강성국가 건설 성과에 지지 표시 및 '최근시기 정세가 복잡하지만 중조친선은 계속 공고발전되고 있다'고 언급
 - 김영일, 4.22 리위엔차오 中 공산당 조직부장과도 담화 및 4.24 귀국(4.24,중통)
- 日 '2012년 외교청서'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려는 범죄적 기도의 산물"이라고 비난(4.25,중통·노동신문·중방/집요한 영토강탈 야망)
- '미국이 핵무기 없는 세계를 주도하기라도 할 것처럼 너스레를 떨고 있다'며 '인류에게 핵참화를 들썩운 핵범인, 지구상에 핵군비경쟁을 몰아온 최대의 장본인'이라고 비난(4.29,중통·노동신문·중방/미국은 세계최대의 핵 범죄국가)

나. 6자회담(북핵)

● 北 김영일, 핵개발 계속하겠다(4/24, 교도통신)

- 북한 노동당 비서 김영일은 앞으로도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겠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24일 보도함.
- 통신에 따르면 당국제부장인 김영일은 이달 중순 방북한 일본의 안토니오 이노키 전 참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힘.
- 프로레슬러 출신인 이노키 전 참의원은 인터뷰에서 김영일이 “미국이 핵개발을 중단하면 지원하겠다고 말하지만 핵을 포기한 나라는 짓밟혔다. 그 전철을 밟진 않겠다”고 강조했다고 전함.

● 반 총장 “北, 추가도발·핵실험 삼가야”(4/27, 연합뉴스)

- 인도를 방문 중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27일(현지시간)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소식과 관련, 북한에 자제를 촉구했다고 연합뉴스가 27일 전함.
- 반 총장은 이날 뉴델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이 이달 중순에 실시한 로켓 발사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북한은 “추가 도발이나 핵실험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음.
- 반 총장은 이어 북한이 “역내 평화 유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만 한다”고 밝혔음.

● 한미 “北핵위협 시나리오 공동 연구개발”(4/28, 연합뉴스)

- 한·미 양국은 최근 북한의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핵위협 시나리오’를 공동 연구·개발기로 합의했다고 연합뉴스가 28일 전함.
- 또 양국간 국방 우주협력 합의서 체결과 우주분야 연합연습, 사이버 협의 채널 강화 등을 통해 국방 동맹의 범위를 사실상 전방위로 확대키로 했으며, 한·미 양국은 27일(현지시간) 미국 펜타곤(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1차 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방협력 방안을 마련했다고 국방부가 밝혔음.
- 양국 국방당국은 이번 회의에서 최근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강행과 3차 핵실험 가능성 등과 관련, 핵위협 시나리오를 공동으로 개발해 올해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에서 이를 집중적으로 논의키로 합의했음.

- TTX는 북한이 핵무기로 남한을 위협하는 위기상황에 정치·군사적으로 대응하는 연습으로, 지난해 11월 미 전략사령부에서 처음으로 실시됐음.

● 국방부 “北핵실험 정황있으나 정보없다”(4/28, 연합뉴스)

- 임관된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27일(현지시간)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우려와 관련,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한·미 양국의 판단”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28일 전함.
- 제1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임 실장은 이날 특파원단을 대상으로 한 회견에서 이같이 전했다.
- 그러나 ‘구체적인 정보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면서 “언제가 될지 구체적으로 예단할 수 없지만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 그러면서 북한이 과거 두차례의 핵실험을 미사일발사와 연계했던 전례가 있는데다 최근 장거리로켓 발사 실패를 만회해 김정은 체제의 각인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정황’ 근거로 제시

● 北 우라늄 이용한 3차 핵실험 가능성(4/28, 연합뉴스)

- 3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이 이번에는 플루토늄이 아닌 우라늄을 이용한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이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28일 전함.
- 하이노넨 전 차장은 27일 로이터 통신을 통해 공개한 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하면서 “북한이 이렇게 한다면 고농축우라늄(HEU) 생산 기술을 개발해 핵무기 생산에 충분한 정도의 핵물질을 비축한 상태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 2010년까지 IAEA에 몸담았던 하이노넨 전 차장은 북한이 2010년말 미국 전문가들에게 보여준 우라늄 농축시설은 HEU의 생산을 위해 손쉽게 개량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美 위성사진, 北 핵실험 준비 장소 포착(4/28, 연합뉴스)

- 북한의 과거 핵실험 장소인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핵실험용 강도 굴착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탄광차 행렬과 여타 작업들이 위성사진에 포착됐다고 28일 연합뉴스가 전함.

- 이 사진에는 그러나 북한이 언제 핵실험을 실시할 지를 추정할 수 있는 단서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국제대학원의 한미연 구소가 27일 AP통신에 제공한 상업용 위성 촬영 사진에는 풍계리 현장 의 이 같은 모습이 담겨있음.
- 3월 8일부터 4월 18일 사이에 촬영된 이 사진들을 분석한 결과 현장에서 는 8천m³의 토사가 굴착된 것으로 추정됐음.
- 이 연구소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 노스’(38 North) 편집자인 조엘 위트 는 “이 사진들을 보면 북한이 지난 몇 달 동안 핵실험 준비를 해왔음이 분명하지만 언제 실험을 단행할 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음.
- 풍계리는 북한이 2006년과 2009년에 각각 핵실험을 실시한 곳으로 이번 에 촬영된 사진들은 지난 3월부터 이곳에서 다양한 작업이 진행됐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가들은 밝혔음.

3 대남

- 北 “조선반도에 무슨일 터지면 이명박 책임”(4/23, 조선중앙통신; 우리민족끼 리)
 - 북한 외무성은 22일 밤 대변인 성명에서 “조선반도에서 무슨 일이 터지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이명박 역도에게 있다는 것을 엄숙히 선언한 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외무성 대변인은 “이명박 역도는 수령님(김일성) 탄생 100돌 경축행사에 돈이 얼마 들었드냐니, 그 돈이면 식량을 얼마 사올 수 있드냐니 하는 악의에 찬 돈벌레 타령을 해댔으로써 우리 인민의 숭엄한 사상감정에 마구 칼질을 하는 특대형 도발행위를 저질렀다”며 이같이 밝힘.
 - 같은 날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난 20일 특강내용을 비난하는 논평을 통해 “특별강연이란 데서 북의 ‘농지 개혁 단행 촉구’라는 궤변까지 늘어놓고 있다”며 “우리의 체제와 존엄을 흔들어보고 천년 가도 실현될 수 없는 체제붕괴의 틈을 마련해보려는 것”이라고 비난함.

● 北 “대남무력 특별행동 곧 개시” 위협(종합)(4/23,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23일 남측에 “혁명무력의 특별행동이 곧 개시된다”고 사실상 대남도발을 예고했는데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특별작전행동소조는 이날 통고를 통해 “이명박 쥐XX무리들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분노는 하늘에 닿았다”며 “역적패당의 분별없는 도전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우리 혁명무력의 특별행동이 곧 개시된다”고 밝힘.
- 인민군은 “우리 혁명무력의 특별행동은 일단 개시되면 3~4분, 아니 그보다 더 짧은 순간에 지금까지 있어본 적이 없는 특이한 수단과 우리 식의 방법으로 모든 쥐새끼무리들과 도발 근원들을 불이 번쩍나게 초토화해 버리게 될 것”이라고 위협함.
- 인민군은 “특별행동은 노호한 민심과 분노의 폭발이며 우리의 최고존엄을 사수하기 위한 천만군민의 성전”이라며 “특별행동의 대상은 주범인 이명박 역적패당이며 공정한 여론의 대들보를 쏘고 있는 보수언론매체들을 포함한 쥐새끼무리들”이라고 밝힘.
- 인민군은 이명박 대통령의 20일 통일교육원 특강내용, 19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의 발언 등을 겨냥해 “현실은 역적패당의 도발광기가 이미 분별을 잃은 지 오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함.

● 北매체들도 일제히 ‘대남 보복戰’ 위협(4/23, 연합뉴스; 노동신문; 평양방송; 조선중앙통신)

- 북한 인민군 최고사령부가 23일 ‘혁명무력 특별행동 곧 개시’라고 대남도발을 예고한 뒤 북한 매체들도 대남비난과 위협의 수위를 일제히 높였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개인필명의 논설을 통해 “공화국의 체제를 부정하면서 대결 야망을 실현해 보려고 발악하는 이명박 역적패당은 종국적인 파멸을 면할 수 없다”며 “우리 군대는 우리식 성전으로 역적패당을 축탕쳐버리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이제 남은 것은 실천 뿐”이라고 밝힘.
- 대외용 라디오방송인 평양방송은 ‘단호히 박살 낼 때가 되었다’는 제목의 논설에서 “역적패당이 ‘태양절(김일성 생일)’ 경축행사를 걸고 들어 잔치비용이요 뭐요 하는 허튼 수작질로 우리 최고존엄, 우리 체제, 우리 군대

와 인민을 또다시 중상 모독했으니 도발이면 이보다 더한 도발이 어디에 있겠는가”라며 우리 정부를 비난함.

- 조선중앙통신도 논평을 내고 “동아일보를 비롯한 악질적인 보수언론들도 우리의 존엄 높은 영상모습을 날조하는 무도한 짓을 서슴지 않았다”며 “우리의 보복은 특대형 도발자들에 대해 그가 누구이든, 어디에 있던 무자비한 복수의 세례를 안기고 그 모든 것을 통째로 날려보내는 가장 위력한 타격전으로 될 것”이라고 위협함.

● **北조평통 “우리 최고존엄·체제 모독맨 표적”(4/27, 조선중앙통신)**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7일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중상모독하는 자들은 이명박 쥐XX와 똑같이 우리 선군 총대의 표적이 돼 가장 비참한 운명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이날 조평통 서기국은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의 발언을 겨냥, 보도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우리 군대와 인민은 신성한 우리의 최고존엄과 제도를 모독하는 데 대해서는 두목 쥐XX든 줄개 쥐XX든 다 때려잡아 치울 것”이라고 위협했음.

● **北 ‘은하3호’ 발사 최초 탐지 해군 부사관 특진(종합)(4/27, 연합뉴스)**

- 북한이 발사한 장거리 로켓(미사일) ‘은하3호’를 최초로 탐지한 해군 부사관이 1계급 특진에 훈장까지 받았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해군은 충무공 탄신 467주년을 하루 앞둔 27일 경남 창원시 진해군항에 정박한 세종대왕함에서 최윤희 해군 참모총장 주관으로 ‘북한 장거리 미사일 대응 유공자 포상 및 특진 신고식’을 열었음.
- 특진에다 훈장까지 받은 허 상사는 세종대왕함 사격통제 부사관으로 지난 13일 북한의 은하3호를 발사 45초만에 탐지해 냈으며 1997년 해군 부사관 171기로 임관한 허 상사는 2007년 우리 해군의 첫 이지스구축함인 세종함 인수요원으로 선발된 뒤 최첨단 이지스체계의 핵심인 스파이레이더 운용요원으로서 5년간 근무하고 있음.

● **李대통령 “5월 월급 ‘통일항아리’ 넣겠다”(종합)(4/28, 연합뉴스)**

-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통일 재원 마련을 위해 통일부가 마련한 ‘통일 항아리’ 기금에 다음달 월급을 전액 기부하겠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김성환 외교통상 장관이 통일 기금의 필요성을 거론하자 “5월 월급을 통일 향아리에 넣겠다”고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 그러자 류우의 통일부 장관은 “그것(이 대통령의 기부)을 통일 향아리 1호로 해야겠다”고 말했다고 전함.
- 통일 향아리는 옛 서독이 통독에 대비해 ‘연대기금’(Solidarity Fund)을 조성한 것처럼 남북통일 비용을 미리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통일부가 기획한 기금이지만, 18대 국회에서 관련법이 처리되지 않아 모금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음.

기타 (대남)

- [北 최고사령부 특별작전행동소조 통고(4.23)] ‘최고존엄을 사수하기 위한 천만 군민의 성전으로 혁명무력의 특별행동이 곧 개시된다’며 ‘특이한 수단과 방법으로 도발근원들(이○○정부와 보수 언론매체들)을 초토화해 버리게 될 것’이라고 극렬 위협(4.23, 중통·중·평방·우리민족·조선신보/역적패당의 위험수위에 이른 도발광기를 더는 용납할 수 없다)
- 【중앙통신사 논평(4.24)】 이대통령의 김일성 생일 행사비용 거론을 ‘北 최고존엄·체제·인민에 대한 특대형 도발행위’라고 연일 비난(4.24, 중통/부덕취 무리는 인간세상을 알 수 없다)
- ‘北 특별행동 통고는 국면전환용, 대남심리전’ 주장에 대해 “우리 혁명무력은 절대로 빈말을 하지 않는다”며 “연평도포격사태와 같은 수준의 경고로 그치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에 불과하다”고 주장(4.26, 우리민족끼리/아직도 우리의 보복의지를 모르겠는가)
- ‘최고존엄모독’ 관련 대통령의 ‘통일교육원’(4.20), ‘국방과학연구소’(4.19)에서의 대북발언을 두고 ‘천만군민의 멸적의 과녁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속 위협(4.26, 평방/달갈로 바위를 치는 격의 어리석은 망동)
-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발언(4.23, 北 세습체제 등)을 “최고존엄에 대한 가장 악랄한 모독행위”라고 비난 및 “천백배의 보복성전이 이 땅에서 개시되었다”고 위협(4.28, 중통)
- 국가재정전략회의(4.28, 청와대)에서 ‘통일향아리’에 대통령의 5월 월급 기부 관련 ‘대결정책에 대한 지지여론을 향아리에 채워보려는 치졸한 속심’이라고 비난(4.29, 우리민족끼리/통일향아리에 채워질 것은?)

3·4월

북한동향 일지

<3월 일지>

보도일자	내용
3/1, 중통	최영림 내각총리, 3.1 평양지하철도 운영 및 관리정형 현지요해
3/3, 중통·중방	김정은 부위원장, 조선인민군 전략로켓사령부 시찰
3/3, 중통·중방	김정은 부위원장, 판문점 시찰
3/6, 중통	김정은 부위원장, 3.6 러시아 대선 승리 푸틴총리에게 축전
3/8, 중방·중통	[3.8국제부녀절] 102돌 기념 중앙보고회, 양형섭(최고인민회의 부위원장)·최룡해(黨 비서)·김락희(내각 부총리)·로성실(『여맹』위원장/기념보고) 등 참가下 인민문화궁전에서 개최
3/10, 중통·중·평방	김정은 부위원장, 오중흠7연대칭호를 수여받은 해군 제123군부대 시찰
3/15, 중통·중·평방	김정은 부위원장, 조선인민군 육해공군 합동타격훈련 지도
3/15, 조선신보	김정은 부위원장, 숲 위원장 사망 당시 '유훈관철을 통한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일떠세워야 한다는 입장을 뚜렷이 밝혀주었다'면서 유훈관철을 강조
3/17, 중통·중·평방	최영림 총리, 3.15 부령합금철공장 및 고무산시멘트공장 시찰
3/17, 중통	최영림 총리, 3.16 김책제철연합기업소 현지시찰
3/19, 중통	최영림 내각총리, 3.16~17 라남탄광기계연합기업소·청진제강소·수성천종합식료공장 등 咸北 청진시 여러부문사업 현지시찰
3/20, 중통·중방	최영림 총리, 3.17 함경북도 경성군 공장들(경성도자기공장·경성애자공장 및 염분진호텔건설장) 시찰
3/22, 중통	최영림 내각총리, 만수대지구 인민극장 건설정형 현지요해
3/24, 중통·중·평방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87호(3.22字), 4.13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 회의 소집(평양) 및 4.11·12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등록 고지
3/24, 중통	北, 조선노동당 대표자회를 앞두고 市(구역), 郡 당대표회들 진행
3/25, 중·평방·중앙TV	김정일 사망 100일 중앙추모대회, 김일성광장에서 진행
3/27, 중방·중통	김정은 부위원장, 3.26 김정일 사망에 애도를 표한 전체 장병들과 인민들에게 「감사문」전달
3/29, 중통·노동신문	김정은 부위원장, 새학년을 맞은 평양시 교육부문 단위들에 컴퓨터·수자식 촬영기·사진기 등 90종·수천점의 현대적인 교육설비·체육기자재들 전달
3/30, 중통·중방	함경도·양강도·황해북도·남포시 당대표회, 김정은 부위원장을 당대표자회 대표로 추대
3/30, 중통	내각, 조선인민내무군, 철도성, 문화성대표회, 김정은 부위원장을 당대표자회 대표로 추대

〈4월 일지〉

보도일자	내용
4/1, 중통	자강도·황해남도·평안북도·강원도·라선시 당대표회, 김정은 부위원장을 당대표자회 대표로 추대
4/4, 중·평방·중통	김정은 부위원장, 동해안전방초소 려도방어대 시찰
4/5, 중통·중방	개성시 박연폭포 주변 천연바위에 새긴 글밭(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동지 수령님탄생 100돌 기념 주제101(2012)년 준공식 진행
4/6, 중통·중방	김정은 부위원장, 조선인민군 해군 제155군부대 시찰
4/6, 중통·중방	희천1호, 2호발전소 준공식, 4.5 최영림(내각총리/준공사) 참가
4/7, 중방·노동신문	‘광명성-3호’ 발사 등 “우리는 새로운 주제 100년대의 문을 연다”며 김정은의 “조선의 전진속도는 천리마에 우주를 더한 광명성속도로 될 것”이라고 강조
4/8, 중통	김영남·최영림·이영호를 비롯한 당·국가·군대의 책임일꾼들 등, 만경대 방문
4/9, 중통·중방	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김정일 위원장에게 ‘김일성훈장’(정령 제2290호, 3.29)과 ‘김일성상’(정령 제2291호)을 수여
4/9, 중통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93.4.9) 19돌 기념 중앙보고대회, 4.25문화회관에서 진행
4/9, 중방	김일성父子 ‘태양상 모자이크벽화’(총길이 51m, 높이 16.6m) 준공식, 최영림·김기남·양형섭·문경덕 등 참가下 평양 장대재 언덕에서 진행
4/10, 중·평방·중통	김정은 부위원장, 완공을 앞둔 인민극장 현지도 및 국가산업미술전시회장 시찰
4/11, 중통	黨 제4차 대표자회, 김정은 부위원장 참석下 평양에서 진행
4/13, 중통·중·평방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 회의 개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추대(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
4/13, 조중TV	광명성 3호 발사, 궤도진입 실패 보도
4/14, 중통·중방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 4.13 인민군 지휘성원들 승진 인사 ‘명령 제009호’ 하달
4/14, 중통·중·평방·조중TV	김일성 주석 생일(4.15) 100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김일성경기장에서 진행
4/15, 중통·중·평방	조선인민군 ‘무장장비관’ 개관식, 4.14 김정은 제1위원장 참가下 평양에서 진행
4/17, 중통·중·평방	김정은 제1위원장, 黨 제4차 대표자회 참가자들 및 김일성 주석 생일경축대표들과 기념사진 촬영
4/17, 중통	北-러 정부, ‘무역, 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 임업분과위 제16차 회의 의정서’ 평양에서 조인
4/19, 노동신문	김정은 제1위원장과 黨중앙위 책임일꾼들의 담화(4.6) 내용 게재
4/22, 중통·중방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 연설(4.15)을 “세계 1만2,000여개 각종 출판보도물들이 특대소식으로 전하고 5대륙의 수억 명이 시청했다”고 선전
4/22, 중통·중방	對南규탄 평안북도·강원도 군민대회 개최
4/23, 중통·조선신보	北, 최영림 총리 등 참가下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 진행
4/25, 중통	최룡해 총정치국장, 4.24 김형직사범대학 개건보수공사장 현지요해

보도일자	내용
4/25, 중·평방·중통· 중앙 TV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 인민군 창건(4.25) 80돌 경축 중앙보고대회(4.25문화회관) 참석
4/26, 중통·중방	김정은 제1비서, 무장장비관 건설에서 위훈을 세운 군인건설자들과 기념사진
4/28, 중통·중방	김정은 제1위원장, 제655연합부대 종합전술연습 지도
4/29, 중통·중·평방	김정은 제1비서, 조선인민군 제26차 군사과학기술전람회장 참관
4/29, 중통·중·평방	김정은 제1비서, 평양시민들과 함께 조선인민군교예단 대형요술공연 관람
4/30, 중통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 장성택과 능라인민유원지 개발사업 현지지도



통일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